



한수달 4호 작품 분석 [미수록]

by. 2021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 임태욱

「춘설(春雪)」 - 정지용

문 열자 선뜻!¹⁾

먼 산이 이마에 차라.²⁾

『우수절(雨水節)*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³⁾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⁴⁾와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⁵⁾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⁶⁾

흰 웃고름 절로 향기로워라.⁷⁾

웅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아아⁸⁾ 꿈 같기에 설어라.⁹⁾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¹⁰⁾

움짚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햇웃*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¹¹⁾.

*우수절: 입춘과 경칩 사이의 절기인 우수로, ‘봄비로 물기운이 가득한 때’라는 뜻임. 양력 2월 18일경.

*웅송그리고: 춥거나 두려워 몸을 궁상맞게 몹시 움츠려 작게 하고.

*움짚 아니 기던: 움직이지 않던.

*햇웃: 안에 솜을 두어 지은 겨울옷.

*각주 내 밑줄은 단어 설명을 의미

- 1) 영탄법, 갑작스레 봄눈을 보고 놀란 화자의 마음 표현
- 2) 영탄법, 공감각적 심상 (시각의 촉각화) 먼 산에 내린 눈(시각적 심상)이 이마에 닿아서 차가운 것(촉각적 심상)처럼 표현
- 3) 『 』 시간적 배경 제시
- 4) 화자 바라본 산 꼭대기
- 5) 공감각적 심상, 먼 산에 덮여 있는 차가운 눈(촉각적 심상)과 빛을 받아 반짝이는 눈(시각적 심상)이 이마에 와 닿는 것(촉각적 심상)처럼 느껴진다고 표현
- 6) 봄이 오는 모습
- 7) 공감각적 심상 (시각의 후각화), 훈훈한 봄바람에 날리는 하얀색 웃고름(시각적 심상)에서 봄의 향기(후각적 심상)가 느껴진다고 표현
- 8) 영탄법
- 9) 화자의 감정이 드러난 영탄적 표현, 설어라는 낯설다(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모습)와 서럽다(지난겨울의 삶) 두가지 뜻으로 해석 가능
- 10) 봄날의 생명력, 시각적 이미지
- 11) 겨울이 가는 아쉬움과 봄을 맞이하고픈 화자의 심정

1. 갈래 : 자유시, 서정시
2. 성격 : 감각적, 영탄적
3. 제재 : 춘설
4. 주제 : 춘설이 내린 잔연에서 느끼는 봄의 생명력

<표현상의 특징>

-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봄이 온 것을 생동감 있게 나타냄.
-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외부의 정경에서 화자의 내면으로 시상이 이동하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방언이나 고어, 새로운 조어를 시어로 사용 ('서늘옴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웅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옴짓 아니 기던')
- 색채감이 드러난 시어 사용을 통해 대상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내용상의 특징>

- 보통 눈은 차가운 속성 때문에 주로 겨울의 이미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이 시에서는 초봄을 알리는 역할
- 중의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복합적인 의미를 전달

「눈물」 - 김현승

『더러는
옥토(沃土)¹²⁾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¹³⁾이고저……』¹⁴⁾

『흙도 티도,
금 가지 않은
나의 전체(全體)¹⁵⁾,¹⁶⁾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¹⁷⁾ 하올 제,

나의 가장 나아중¹⁸⁾ 지니인 것』¹⁹⁾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²⁰⁾이 시들을 보시고
열매²¹⁾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²²⁾

12)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풍부한 좋은 땅.

13) '눈물'의 은유

14) 『 』, 소망이 담긴 어조, '눈물'이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아닌, 부활을 준비하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

15) 전부 혹은 모든 것, 완전한 것으로 해석 가능

16) 『 』, 온전하고 순수한 것으로서의 '눈물'

17) 경건한 분위기 조성 위한 높임법 사용

18) 나중. 마지막. 시적 허용

19) 『 』,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의 '눈물'

20) 일시적으로 얻게 되는 삶의 기쁨을 의미, 그 '꽃'이 시들을 보시고 절대자가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

21) 꽃(일시적인 존재)과 대조되는 상징으로서의 열매(나무의 최종 결실) '꽃'은 '웃음'의 보조 관념으로 쓰였고, '열매'는 '눈물'의 보조 관념으로 쓰임

22) '웃음'은 화려하고 찬란하지만 일시적인 것인데 반해, '눈물'은 그 존재의 최종 결실,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 '눈물'은 씨앗을 그 안에 간직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지닌 '열매'처럼 순수하고 진실한 내면적 가치를 지닌 영원한 것, 즉 신의 섭리와 은총

1. 갈래 : 자유시, 서정시
2. 성격 : 종교적, 명상적, 상징적
3. 제재 : 눈물, 아들의 죽음
4. 주제 : 슬픔의 종교적 승화를 통한 순결한 삶의 추구

<표현상의 특징>

- 경어체를 사용한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함.
- 절대자를 향한 순수한 삶의 기원과 소망은 1연에서 4연에 이르기까지 점층적 구조를 이루면서 전개되다가 의미상 병치(並置)를 이루는 5연과 6연에 와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냄
- '꽃'과 '얼매', '웃음'과 '눈물'이라는 대조적 상징으로 시 전체의 주제를 부각
-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대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

<내용상의 특징>

-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먼저 죽음의 세계로 보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 아픔과 슬픔을 종교적 믿음으로 견디면서 쓴 작품
- 인간은 기쁨보다는 슬픔 속에서 성숙한다는 인간의 삶에 내재된 역설 표현
- 이 시에서 '눈물'은 그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서, 희생을 통한 부활의 씨앗으로서의 '생명'을 나타낸다.

「배꼽을 위한 연가 5」- 김승희

인당수²³⁾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²⁴⁾, /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²⁵⁾

공양미 삼백 석²⁶⁾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²⁷⁾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²⁸⁾
 『어머니, /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²⁹⁾

『나비여,
 나비여,
 애벌레³⁰⁾가 나비³¹⁾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³²⁾
 죄입니까?³³⁾
 하나의 알³⁴⁾이 새³⁵⁾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³⁶⁾이
 죄일까요?³⁷⁾

『그 대신 점자책을 사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지요.』³⁸⁾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³⁹⁾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⁴⁰⁾
 어디에도 인당수⁴¹⁾는 없습니다.
 『어머니, /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⁴²⁾

23) 심청이 부모를 위해 희생한 곳, 자신을 희생하는 공간, 심청전을 재구성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①

24) 돈호법, 심청전의 '아버지' 변형

25) 심청과 같은 삶을 거부하고 나의 삶을 살겠다는 주체적인 삶의 의지 표현

26) 자신의 희생으로 얻게 되는 이익, 눈먼 부모를 구하는 수단, 청전을 재구성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②

27) 어머니, 은혜를 갚을 대상

28) 부사어와 단호한 종결어미로 희생의 거부를 의지적으로 표현

29) 1연과 유사한 구절 반복, 단호한 의지 강조

30) 종속적 삶을 사는 존재 (=하나의 알)

31) 돈호법 반복법, 나비를 화자가 바라는 주체적인 사는 삶을 사는 존재(=새)로 표현

32)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 부모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 것

33) 설의법, 죄가 아니다.

34) 종속적 삶을 사는 존재 (=애벌레)

35) 주체적인 사는 삶을 사는 존재 (=나비)

36) 부모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 것, 자신의 삶을 사는 것

37) 설의법 죄가 아니다.

38) 『 』, 어머니가 자신의 힘으로 삶을 주체적으로 살길 바램

39) 나와 부모의 사람을 일반화

40) 직유법, 우리의 삶을 외국어에 비유. 모국어(mother tongue)가 부모에게 종속된 채 배우는 언어라면 외국어는 스스로 학습하는 언어.

41) 심청이 희생하여 황후가 되고, 부모의 눈을 뜨게 한 곳으로 현실에서는 존재 하지 않는다.

42) 돈호법,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주체적 삶을 강조

1. 갈래 : 자유시, 서정시
2. 성격 : 의지적, 주체적, 설득적, 교훈적
3. 제재 : 부모를 위해 희생한 심청의 행동
4. 주제 : 주체적인 태도의 필요성

<표현상의 특징>

-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
- 설의법과 구절의 반복, 비유를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
- 단호한 어투(평서형 종결어미 ~니다)를 사용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

<내용상의 특징>

- 고전 소설 심청전의 주인공을 말하는 이로 설정하여 주체적인 삶의 필요성 강조
-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교훈을 전함

「나비와 철조망」- 박봉우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런 강과 또 산⁴³⁾을 넘어야⁴⁴⁾ 진종일을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서녘 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⁴⁵⁾ 큰 눈의 창⁴⁶⁾을 열어…… 지친 날개⁴⁷⁾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⁴⁸⁾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모진 바람⁴⁹⁾이 분다.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⁵⁰⁾. 첫 고향의 꽃밭에 마즈막까지 의지 하려는 ⁵¹⁾강렬한 바람의 향기⁵²⁾였다.

앞으로도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⁵³⁾ 몇 <마일>⁵⁴⁾은 더 날아야 한다.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⁵⁵⁾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 간다 목이 빠삭 말라 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⁵⁶⁾.

벽, 벽……⁵⁷⁾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려⁵⁸⁾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⁵⁹⁾ 바람은 다시 분다⁶⁰⁾ 얼마쯤 날으면 아방(我方)⁶¹⁾의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에 안길.⁶²⁾

이런 마즈막 <꽃밭>⁶³⁾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⁶⁴⁾ 어설픈 표시의 벽⁶⁵⁾. 기(旗)여……⁶⁶⁾

43) 남북 분단과 대치, 나비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 시각적 이미지
 44) 극복해야
 45) 노을이 지는 서쪽하늘의 모습, 색채 이미지 활용한 감각적 표현
 46) 해
 47) 분단의 현실 속에서 고통 받는 나비
 48) 서로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해와 나비의 마음, 분단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안타까움 안쓰러움.
 49) 시련의 상황, 나비가 날 수 없는 상황(분단, 비극적인 현실)
 50) 동족상잔의 고통과 분단의 아픔을 상징
 51) 분단 되기 전의 평화롭던 시절(나비가 지향하는 세계)을 의지삼아 현실을 견디려는
 52) 강렬한 바람(소망)을 후각적 이미지인 향기에 빚대어 표현, 은유법
 53) 남북 분단과 대치상황
 54) 휴전선 155마일을 연상하게 함과 동시에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날들을 상징
 55) 현실 극복의 과정에서 입는 상처
 56) 분단현실의 냉혹함, 남북의 군사적 대립
 57) 분단된 조국의 상징
 58) 자신의 숙명에 대한 인식, 우의적인 형상화 수법
 59)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
 60) 계속되는 고통
 61) 우리 편
 62) 나비의 비행은 끝나지만 민족의 대립은 계속 될 것임을 암시하는 표현
 63) 더 이상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 남북통일
 64) 계속 날겠다는 의지, 평화의 세계에 대한 갈망
 65) 남북분단
 66) 대립의 깃발

1. 갈래 : 산문시, 서정시
2. 성격 : 현실비판적, 의지적, 상징적
3. 제재 : 나비, 철조망
4. 주제 : 남북 분단의 비극과 통일에 대한 염원

<표현상의 특징>

- 전체적으로 우의적인 형상화 수법 사용
- 한탄과 고통이 담긴 어조로 주제를 표현
- 상징적이고 대립적 시어인 '나비'와 '철조망'을 통해 남북분단의 상황을 표현
- 색채와 관련된 시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나비의 여정을 감각적으로 묘사

<내용상의 특징>

- 분단의 아픔과 극복의 열망을 형상화
- 평화와 화해로 충만한 세계에 대한 열망을 노래

「초토의 시 8 - 적군 묘지 앞에서」 - 구상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녀⁶⁷⁾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⁶⁸⁾

어제까지 너희⁶⁹⁾의 목숨을 겨눠
『방아쇠⁷⁰⁾를 당기던』⁷¹⁾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⁷²⁾
『그래도 양지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땀⁷³⁾마저 입혔거니』⁷⁴⁾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⁷⁵⁾

이곳서 나와 너희의 녀⁷⁶⁾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삼십(三十) 리면
가로막히고⁷⁷⁾

무인공산⁷⁸⁾의 적막만이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⁷⁹⁾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⁸⁰⁾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⁸¹⁾ 속에 깃들어 있도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⁸²⁾은 무심히도 / 북(北)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 몇 발⁸³⁾
나는 그만 이 은원(恩怨)의 무덤⁸⁴⁾ 앞에
목 놓아 버린다.⁸⁵⁾

67) 전쟁으로 죽은 병사의 원혼

68) 동족상잔으로 목숨을 잃고, 그 주검마저 분단으로 인해 북으로 돌아가지 못한 원한 때문에

69) 적군 병사

70) 전쟁과 분단 현실의 모습

71) 『 』, 금속성 이미지, 냉혹함, 폭력, 광폭함을 환기

72) 죽음의 시각적 형상화, 전쟁의 참혹함 표현

73) 흠을 붙여서 뿌리째 떠낸 잔디.

74) 『 』, 죽은 자에 대한 관용과 연민

75) 『 』, 애증을 초월한 이념 대립의 허망함과 생명의 존엄성

76)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처지

77) 분단을 의미

78) 인가와 인기가 전혀 없는 쓸쓸한 산. 적군병사가 묻혀 누워 있는 곳

79) 분단의 현실에서 시적화자가 느끼는 답답한 심정

80) 이념적, 군사적 대립

81) 분단극복, 조국 통일, 너희 에 대한 태도가 ‘미움’에서 ‘바람’으로 변화함

82) 통일에 대한 화자의 염원이 투영된 대상, 화자의 처지와 대조를 이루는 자유로운 존재

83) 금속성 이미지, 아직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음을 말해줌

84) 살아서는 적으로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죽어서는 조국 통일을 염원하는 동포임. 동포로서의 사랑과 적으로서의 원한이 교차하는 화자의 모순된 감정과 동시에 전쟁의 원한과 상처를 교훈 삼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깨달음

85) 분단으로 인한 비극적 현실에 대한 통탄

1. 갈래 : 자유시 , 서정시
2. 성격 : 관념적, 인도적, 걱정적, 추도적
3. 제재 : 무덤 (적군묘지)
4. 주제 : 적국의 묘지를 보면서 느끼는 분단 현실에 대한 통한과 통일에 대한 염원

<표현상의 특징>

- 평범한 시어들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현
- ‘구름’과 ‘포성’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분단 현실의 비극적 모습을 부각

<내용상의 특징>

- ‘적군 묘지’ 앞에서 적군 병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동족상잔의 비극에 대한 아픔과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
- 인도주의에 바탕을 둔 인간애를 다룸.

「오랑캐 꽃」 - 이용악

— 긴 세월을 오랑캐⁸⁶⁾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의 머언 조상들⁸⁷⁾이 너⁸⁸⁾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드리운 오랑캐의 뒷머리⁸⁹⁾와도 같은 까닭⁹⁰⁾이라 전한다⁹¹⁾

아낙⁹²⁾도 우두머리⁹³⁾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⁹⁴⁾
도래샘*도 밧집⁹⁵⁾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 갔단다⁹⁶⁾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⁹⁷⁾처럼 굴러갔단다⁹⁸⁾

구름⁹⁹⁾이 모여 골짜 골짜¹⁰⁰⁾을 구름이 흘러¹⁰¹⁾
백 년이 몇백 년¹⁰²⁾이 뒤를 이어 흘러갔다¹⁰³⁾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¹⁰⁴⁾
너는 돌가마도 털메투리*¹⁰⁵⁾도 모르는 오랑캐꽃
두 팔로 햇빛¹⁰⁶⁾을 막아 줄게
울어 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¹⁰⁷⁾ 오랑캐꽃¹⁰⁸⁾

*도래샘: 빙 돌아서 흐르는 샘물.
*메투리: ‘미투리’의 방언. 삼이나 노 따위로 쥘신처럼 삼은 신.

- 86) 여진족
- 87) ‘오랑캐꽃’과 우리민족의 관련성
- 88) 오랑캐꽃의 의인화
- 89) 오랑캐꽃이라 불린 까닭은 그 모습의 유사성에 기인
- 90)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간접화법
- 91) 서두의 존재 이유와 효과 : 이 작품은 오랑캐꽃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모습만 비슷할뿐 특정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함. 이를 통해 억울하고 서러운 연민의 정서를 불러일으킴
- 92) 가족, 식구 돌보아야할 사람
- 93) 지켜야할 존재, 의리로 맺은 관계
- 94) 간접화법
- 95) 삶의 터전
- 96) 함경도 부근에 살던 여진족들이 윤관의 토벌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감
- 97) 약하고 무력한 존재
- 98) 비참하게 쫓겨남
- 99) 시간의 흐름을 상징적, 비유적으로 보여줌
- 100) 공간의 대응 (골짜 골짜, 백년이 몇 백년)
- 101) 시간이 오래 흘렀음을 시어의 반복을 통해 나타냄
- 102) 시간의 대응 (골짜 골짜, 백년이 몇 백년) , 고려 시대와 일제 강점의 현실을 연결
- 103) 안타까움 덧없음
- 104) 오랑캐와 외형적 유사성 이외에는 무관하지만 오랑캐꽃이라고 불리는 억울함이 우리 민족의 억울함과 닮아있음
- 105) 여진족의 삶과 관련된 것들
- 106) 마음껏 울지도 못하게 하는 것
- 107) 우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
- 108) 오랑캐꽃에 이입된 화자의 슬픔은 바로 일제에 의해 천대받던 유이민들의 슬픔이며, 더 나아가 전 조선 민중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암시

1. 갈래 : 자유시, 서정시
2. 성격 : 서정적, 서사적, 상징적, 서술적
3. 제재 : 오랑캐꽃
4. 주제 : 유이민들의 비극적인 삶과 비애

<표현상의 특징>

- 서정적 감정 처리 방식과 서사적인 표현 방식을 동시에 사용함.
- 오랑캐꽃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 유사한 어구의 반복으로 운율감을 형성함.
- 명사형 종결로 시상을 집약
- 간접 화법의 종결 어미로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내용상의 특징>

- 서두에 오랑캐꽃에 대한 해설적 설명을 제시함.
- 대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에서 정서적 교감으로 변화

「섬진강 1」 - 김용택

가문 섬진강¹⁰⁹을 따라가며 보라¹¹⁰
 퍼가도 퍼가도¹¹¹ 전라도 싹틔줄¹¹² 같은
 개울물들¹¹³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¹¹⁴
 해 저물면 저무는¹¹⁵ 강변¹¹⁶에
 쌀밥¹¹⁷ 같은 토끼풀꽃,
 숯불 ¹¹⁸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 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¹¹⁹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¹²⁰ 풀¹²¹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¹²² 흰하게
 꽃등¹²³도 달아 준다』¹²⁴
 흐르다 흐르다 ¹²⁵목메이면¹²⁶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¹²⁷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¹²⁸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¹²⁹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¹³⁰
 『일어서서 꺾꺾 웃으며
 무등산¹³¹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떠 무등산이 그렇다고 흰한 이마 끄덕이는
 고갯짓¹³²』¹³³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¹³⁴이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
- 109) 남도 민중들의 끈질긴 생명력
 - 110)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자신감 표현,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반복
 - 111) 시어의 반복을 통해 지속성 강조
 - 112) 생명력의 바탕
 - 113) 소외되고 유약한 민중dml 모습
 - 114) 지속성, 단결성
 - 115) 평범하고 일상적인
 - 116) 삶의 공간
 - 117) 먹을거리
 - 118) 추위를 막게 하는 것
 - 119) 소외된 곳
 - 120) 이름 없는, 주목받지 못한
 - 121) 토끼풀꽃, 자운영꽃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 민중들의 소박한 삶을 상징
 - 122) 민중들의 고단한 삶
 - 123) 밝음과 평안과 위로를 줌
 - 124) 『 』, 민중의 삶을 위로
 - 125) 시어의 반복을 통해 지속성 강조. 앞의 퍼가도 퍼가도와 대응
 - 126) 그리움과 한
 - 127) 목메임을 해소, 의인화
 - 128) 위정자, 민중에게 위해를 가하는 세력
 - 129) 부정적인 존재에 굴복하지 않은 민중의 의지와 생명력
 - 130) 섬진강과 함께하는 지리산. 의인화
 - 131) 영산강, 지리산, 무등산 섬진강과 함께 남도를 대표하는 자연물, 민중의 건강한 삶과 힘을 상징
 - 132) 교감,
 - 133) 지리산과 무등산의 화답을 통해 민중의 긍정적인 모습 드러냄
 - 134) 섬진강(민중)에게 해가되는 부정적 세력

1. 갈래 : 서정시, 자유시
2. 성격 : 서정적, 민중적, 상징적, 향토적
3. 제재 : 섬진강
4. 주제 : 민중의 소박하고 건강한 삶과 끈질긴 생명력

<표현상의 특징>

- 명령투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강한 자신감을 드러냄.
-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상징의 표현 기법을 통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함.

<내용상의 특징>

- 섬진강변의 소박한 모습을 통해 민중의 소박한 삶과 연결되면서 민중의 저력이
- 산과 강이 어우러지고 있는 것처럼 자연의 힘찬 생명력이 한데 어우러지는 장관이
- 섬진강은 곧 저마다의 사연과 한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박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남도 민중들의 모습으로 이해

「성탄제」 - 오장환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¹³⁵⁾에
 물이꾼¹³⁶⁾의 날카로운 소리¹³⁷⁾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¹³⁸⁾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슬¹³⁹⁾은 꺼지지 않는다.¹⁴⁰⁾

못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¹⁴¹⁾,
 나아린 사슴¹⁴²⁾은 보았다
 오늘도 물이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¹⁴³⁾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¹⁴⁴⁾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¹⁴⁵⁾ 곳에서 쇠북 소리¹⁴⁶⁾ 울린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¹⁴⁷⁾

길이 ¹⁴⁸⁾돌아가는 사슴¹⁴⁹⁾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¹⁵⁰⁾이 내리고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¹⁵¹⁾.....

135) 생명이 폭력에 의해 위협받는 공간
 136) 자연을 훼손시키고, 폭력을 가하는 존재
 137) 생명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한 소리, 일제 강점기의 탄압
 138) 희생당한 생명체, 흰색과 붉은 색의 대비 (눈, 흰색: 싸늘하고 비정함 / 피, 붉은색 : 순수한 생명력)
 139) 어둠을 밝히는 불, 일제 강점기의 탄압
 140) 살육이 밤새 이어짐. 물이꾼이 집요하게 사슴을 추적하는 상황, 계속되는 민족의 탄압
 141) 사슴에게 공격성을 지닌 존재들
 142) 무방비 상태의 어린 생명
 143) 물이꾼에게 희생된 존재
 144) 다친 어미를 살릴 수 있는 샘과 약초를 바람
 145) 동음이의어 마음이 위태로운 혹은 아찔한 정도로 높거나 낮음. 반복과 변주
 146) 폭력에 대해 성찰 하는 소리, 종소리 성탄제의 종소리 혹은 사냥할 때 내는 종소리
 147) 여러 해석 중에 살아있는 사슴의 생명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수 있음
 148) 오랜 시간동안 내내
 149) 어린 사슴을 두고 죽어가는 어미의 안타까운 심정
 150) 어미사슴 혹은 어린사슴이 흘린 눈물
 151) 생명의 순수성과 연약함

1. 갈래 : 자유시 , 서정시
2. 성격 : 감각적, 비판적, 시각적, 상징적
3. 제재 : 어머니사슴의 희생
4. 주제 : 생명의 순성과 이를 유린하는 인간 문명에 대한 비판

<표현상의 특징>

- 흰색과 붉은 색의 강렬한 색채대비
-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으로 주제 강조
- 냉온감각의 대비, 명암의 대비
- 명사형 종결 및 명령형 표현을 사용
- 말줄임표의 사용으로 여운의 효과를 줌

<내용상의 특징>

-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반성 촉구
- 쇠북소리는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제를 연상시키면서 폭력에 대한 성찰을 유도
- 사슴을 소재로 하여 시대적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우화시의 특징을 지님

「무등을 보며」 - 서정주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¹⁵²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¹⁵³ 속에 갈맷빛¹⁵⁴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¹⁵⁵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¹⁵⁶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청산(靑山)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¹⁵⁷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¹⁵⁸
 목숨이 가다가다 농울쳐¹⁵⁹ 휘어드는¹⁶⁰
 오후(午後)의 때¹⁶¹가 오거든
 내외(內外)들이여 그대들도
 더러는 앉고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¹⁶²

지어미는 지아비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¹⁶³
 지아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¹⁶⁴

어느 가시덤불 속 구렁¹⁶⁵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玉)돌¹⁶⁶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¹⁶⁷
 청태(靑苔)¹⁶⁸라도 자욱이 끼일 일인 것이다.

152) 우리 몸에 걸친 누더기 옷 , 가난이 우리가 타고난 순수하고 선한 성품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뜻
 153) 순수함을 더욱 부각시킴
 154) 검은빛이 감도는 진한 초록색(시각적 이미지)
 155) 물질적 궁핍에 휩쓸리지 않는 의연함과 넉넉함을 상징
 156) 인간이 타고난 순수함, 가난을 이겨내는 근원적인 순수성.
 157) 가난 속에서도 소중이 길러내는 ‘우리 새끼들’
 158)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의 태도
 159) 기운을 잃고 풀이 꺾이어
 160) 삶의 시련과 고통의 시절
 161) 피곤과 허기가 몰려오는 때, 고통과 시련으로 힘겨운 때.
 162) 사람의 고통을 받아들여 수긍하는 자세가 필요
 163) 지아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164) 지어미를 위로하는 것을 의미, 부부간의 애정
 165) 가난 때문에 어렵고 초라한 환경
 166)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유있고 넉넉한 정신 상징
 167) 깎아 다듬지 않는 옥처럼 어려운 형편 속에 묻혀 있지만, 고결한 정신과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한 자세.
 168) 푸른 이끼 - 연륜이 쌓여 가면서 성숙해 가는 삶, 품위와 지조, 삶의 보람

1. 갈래 : 서정시, 자유시, 현대시
2. 성격 : 관조적, 교훈적, 서술적, 긍정적
3. 제재 : 가난
4. 주제 : 가난과 시련을 이겨 내는 넉넉한 마음의 삶의 자세

<표현상의 특징>

- 고전적인 분위기의 시어와 문체를 사용함.
- 삶을 관조하는 차분한 어조, 완곡한 명령형의 어조를 사용함

<내용상의 특징>

- 삶의 의미와 무등산을 동일시하여 표현하였다.
- 동양적 삶의 여유를 드러내고 있다.
- 자연 현상을 인생과 관련시켜 생각하고 있다.

동행 - 임철우

[앞부분 줄거리] 일주일 전, '나'는 친구였으나 정치적 이유로 수배를 당해 소식이 끊겼던 '너'를 만난다. 그리고 '너'는 어젯밤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박스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다.

넌 선선히 대답했다. 우리는 정문에 다다랐다. 경비실 안에서 경비원인 듯한 두 사내가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너는 앞장서서 성큼성큼 걷고 있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었으나 그냥 묻지 않기로 했다. 네 말마따나 모르는 것이 피차 좋을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넌 비밀투성이¹⁶⁹⁾였다. 아직도 나는 네가 기거하고 있는 집조차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형편이었다. 전화를 걸어오는 건 언제나 네 쪽이었고, 어제도 그건 마찬가지였다. 밤 열 시가 막 지날 즈음이었다.

M시로 가는 열차 편 좀 알아봐 줘. 너랑 같이 동행하고 싶은데 그래 주겠니?¹⁷⁰⁾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그렇게 말했다. 이날은 강의가 있었다. 몇 과목은 이날 종강할 것이라고 했다. 아마 대학에서의 마지막 강의가 될 터였다. 하지만 그까짓 강의쯤은 아무래도 좋았다.¹⁷¹⁾ 그보다 나는 M시에로의 위험한 나들이의 이유¹⁷²⁾에 대해서, 또 왜 하필 나와 동행을 네가 요

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꽤 궁금했다. 그러나 그 문제 역시 입을 다물어 두기로 하자. 어차피 동행할 거라면 차차 알게 되겠지.

정문 앞에서 택시를 탔다. 마흔 살쯤 되어 보이는 운전수는 S읍까지는 시외 요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오백원을 깎은 액수로 합의를 보았다. 차는 종합운동장을 끼고 난 고가 도로의 오르막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잠시 우리는 침묵했다. 멀리 무등산이 보였다. 산의 거대한 몸체가 언제나처럼 도시를 품에 안은 채 묵묵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우직한 선머슴 같은 산의 무릎에서 이 도시 사람들은 웅기종기 모여들어 살고 있었고, 우리 둘 역시 거기서 나고 자라 온 것이었다. 하지만 산은 이젠 어느덧 짙은 남빛 슬픔의 빛깔로 음울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¹⁷³⁾

차창 너머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문득 너와 나를 떼어 놓았던 지난 일 년 반의 시간과 그 마디 끊긴 시간의 한쪽 끝을 저마다 손가락이 감아쥐고 다시 되돌아온 지금의 우리 둘을 생각했다. 그래. 우리는 어쨌든 다시 만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님을 서로가 깨닫고 있었다.¹⁷⁴⁾ 전장으로부터 돌아온 귀환병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우리였으나,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실로 까마득하게 오랜 세월같이 여겨지는 일종의 진공 상태와도 같았다. 너와 나 사이에는 거대한 협곡이 밀도 끝도 가능하기 어려운 깊은 아가리를 벌린 채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쪽 벼랑 끝에 마주 서서 우리는 이 순간 아찔한 절망감과 당혹감으로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¹⁷⁵⁾

곁에서 어깨를 바짝 붙이고 앉아 있는 네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좀체 지워지지 않고 있는 그 서먹한 느낌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따져 보려 했다.

(중략)

대합실 건물의 외벽에 갖가지 벽보가 어지러이 붙어 있는 게 보였다. 불조심. 자연 보호. '속은 인생 어제까지, 밝은 인생 오늘부터'라고 적힌 방첩¹⁷⁶⁾ 포스터, 그리고 그 옆으로 하사관 모집 광고와 지명 수배자들의 사진도 나란히 붙어 있었다. 이십칠 세. 신장 백칠십오 센티미터. 미남형에 호리호리한 체격.¹⁷⁷⁾ 그 아래에 고등학교 교복 차림의 네 사진도 틀림없이 끼여 있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바로 내 곁에

169) 수배생활로 인해 외부와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부각

170) '너'가 전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171) 아마 ~ 될 터였다. : 서술자 '나'의 신분(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드러남. / 하지만 ~ 좋았다. : '나'가 '너'를 만나고 싶어함.

172) 은유 : 수배자인 '너'와 동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비유적으로 표현,

173) 감정이입 : '나'가 느끼는 '이 도시 사람들이 겪은 사건'과 '너'의 현재 상황

174) '너'와 '나', 그리고 둘 사이 관계가 만나지 못한 동안 달라져 있음

175) 일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변해버린 '너'와 '나'의 거리감과 당혹감이 드러남.

176) 간첩 활동을 방지(당시 시대상을 엿볼수 있음)

177) '너'의 외적 묘사

앉아 있는 우스꽝스런 차림의, 얼핏 보면 사십 대쯤으로나 보이는 더부룩한 구레나룻의 뚱뚱한 사내를 나는 새삼스레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사진 속의 옛된 소년의 모습을 떠올리며 혼자 쿡쿡 웃고 말았다.¹⁷⁸⁾ 너는 무심한 표정을 내게 돌리고 있었다.

왜 그래.

아냐, 그냥. 흐흐흐. 네 사진 본 적이 있니?

어디……?

내가 턱 끝으로 벽보를 가리키며 웃었고, 잠시 그쪽으로 눈길을 주고 있던 너는 고개를 저었다.

인마, 너 그치들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더구나. 몸이 후리후리한 미남형이란다, 너더러. 으흐흐흐.

그래?

비로소 너는 조금 웃었다. 그러더니 이내 낮게 한숨을 깔아 내쉬며 허공에 시선을 던지는 것이었다.¹⁷⁹⁾ 나는 순간 다시금 속으로 후회를 씹으며 발끝에다가 시선을 박았다. 온몸이 모래 속에 묻힌 듯 꺼끌꺼끌한 느낌에 커다랗게 고함이라도 내질렀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지난 일 년 반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고 네 얼굴과 마주쳐야만 했었다. 극장이나 다방, 식당, 대합실, 술집, 당구장……¹⁸⁰⁾ 그 어디를 가나 너는 줄곧 우리를 따라다니며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었다. 지난봄, 졸업여행을 갔던 제주도 어느 여관의 방 안에까지 쫓아 들어온 교복 차림의 너 때문에 그날 밤 우리는 녹초가 되도록 술을 퍼마셨고 엉망으로 추태를 떨어야 했다. 하지만 차라리 그때가 더 우리에게겐 마음 편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엄지손가락만큼 작은 현상 수배자의 사진 속에 너를 가두어 놓고 나서 이따금 낡은 앨범을 펼치듯 적당한 양의 감상과 자기 합리화를 취향껏 덧칠해 가면서 너를 들여다볼 수 있었을 동안만은 그래도 너는 우리들에겐 여전히 기억 속의 이름으로서만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네가 다만 과거의 기억 속에서 머물러 있어 주는 한, 그래도 우리는 술에 취하면 잠들 수가 있었고, 가끔은 아픈 생채기를 손톱으로 할퀴어 대며 저주 섞인 넋두리를 퍼부어 대다가도 그것이 끝나면 사실은 더 많은 일상의 권태와 망각 속으로 쉽사리 몸을 던져 넣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¹⁸¹⁾ 우리들은 피곤했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겨웠으므로 우리는 차라리 잠들어 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비된 의식과 교살당한 영혼을 희뿌연 혼돈의 나락을 향해 까마득히 침몰해 가도록 내버려 두고 싶었다. 그래. 모두들 가라앉고 있었다. 저마다 탈색된 눈빛으로 심연의 저편으로 어느덧 차츰차츰 가라앉아 가고 있는 참이었다. 잠들어라. 깊이깊이 잠들어라. 영영 깨어나지 않을 잠¹⁸²⁾ 속으로 투신하라. 깊이깊이. 오래오래……. 어디선가 감미로운 음악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귓전에 불어오는 소리. 소리. 소리. 그 불경한 주문을 들으며 우리는 침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마다 그 감미로운 속삭임을 이렇게 은밀히 서로서로 따라서 되된다. 잊어라. 잊어버려라. 옛날은 옛날일 뿐. 기억은 기억일 뿐. 보다 새롭고 싱싱한 내일을 위해 악몽은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지워 버려라. 깨끗이. 완벽하게…….

아아. 그런데 하필 이 순간에 네가 나타난 것이다.¹⁸³⁾ 그 불쾌하고 섬뜩한 악몽의 흔적을 우리의 졸리운 뇌리로부터 감히 곡괭이질해 내기 위한 하나의 음모로서, 그리고 그 악몽의 명백한 증거물로서 네가 나타난 것이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어거지를 쓰듯, 우리의 이 몽롱한 최면의 당밀분을 함부로 휘저어 희석시키려는 당돌하고 무모한 음모와 함께, 너는 어쩌면 우리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공모하여 억지로 너를 가두어 놓기를 원했을지도 모르는 저 네모난 사진¹⁸⁴⁾ 속으로부터 돌연히 뛰쳐나와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분명한 실체로 서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통증¹⁸⁵⁾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었다.

178) 사진 속 '너'와 현재의 '너'의 외모가 너무 다른 것에 재미를 느끼는 '나'.

179) 간접적 제시 : '너'의 답답한 심정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남.

180) '너'의 수배 사진들로 가득차 있는 공간들 ('너'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

181) 자아성찰 : 지식인으로서 역사적 상처를 망각하고 싶어하는 태도에 대한 반성과 고백.

182) 저항을 멈추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

183) 현실에 안주하고자 할 때 갑작스럽게 등장한 '너'.

184) '너'의 존재를 환기시키는 연결매개체

185) 감각적 표현 : 과거의 저항 정신을 떠올리며,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지금의 모습과의 괴리감에서 오는 자괴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함.

1. 갈래 : 단편소설
2. 성격 : 회고적
3. 배경 : 시간 - 1980년대. 공간 - 서울, M시, S읍
4.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5. 제재 : 수배중인 친구와의 '너'와의 만남 그리고 동행
6. 주제 : 불온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삶과 시대의식 고취

글의 구성

- 발단 : '너'를 기다리는 '나'
- 전개 : M시로 가는 차편이 마땅찮아 S읍까지 택시로 간다.
- 위기 : S읍에서 M시로 가는 열차를 탄다. 할 말은 많았지만 서로 침묵의 연속이다.
- 절정 : 열차 사고가 나고, 빗속을 뚫고 무사히 M시에 도착한다.
- 결말 : 뜨거운 악수를 나누고 '너'와 '나'는 헤어진다.

등장 인물

- 나 : 글의 화자. '너'의 갑작스런 출현에 초조와 불안을 안고 산다. M시까지 '너'와 동행하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깨닫는다.
- 너 : 수배 전단이 곳곳에 나붙어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대학생.
- K : '나'와 '너'의 친구.

변방에 우짚는 새 - 현기영

“허울 좋은 독립, 조선 독립을 보장한다, 조선을 개화시킨다는 구실 아래 이권이란 이권은 저 오랑캐들이 다 차지해 버렸으니¹⁸⁶ 피폐한 국가 재정을 무엇으로 메꾸니까? 오로지 혈벗고 주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¹⁸⁷ 국가재정을 세우고 왕실 비용을 충당하니…….” / 이렇게 나기주가 한탄하는데 이번엔 최 주사가 끼어들었다.

“조정 것들¹⁸⁸은 외국에 이권을 넘겨주고 구전 챙기는 거간꾼에 불과하죠. 그중 폐하의 총애가 가장 두터운 내장경 이용익의 발호가 가히 좌충우돌입니다. 벌써 수백만 금 모아 천하 거부가 되었다는 소문¹⁸⁹ 아닙니까? 『왕실 비용을 마련한다고 두만강, 압록강의 드넓은 삼림 채벌권을 노서안¹⁹⁰에 양도하질 않나, 법국 차관을 들여올 공리를 하지 않나,』¹⁹¹ 봉세관¹⁹²을 팔도에 보내 세금을 더러더러 앵기고 있는 것도 그 작자의 사업입죠. 그중 우리 제주섬은 제일 만만하게 보아, 선산을 지키는 구부러진 소나무 한 그루에도, 띠풀 같은 잡초에도 세를 붙이니,¹⁹³ 어찌 소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세액이 많은 지세가 큰 시빗거리입죠. 『천지개벽 이래 수천 년 동안 우리 제주섬엔 지세라곤 없었습니다. 지세 대신 진상물을 꼬박꼬박 바치고 있는데, 그 위에 또 지세까지 내라니, 이런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감.』¹⁹⁴ ▶ **국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

“자네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릴 하는구먼,¹⁹⁵ 허허. 지세라면 별칭이 왕세(王稅)인데 제주섬도 조선 왕의 땅이거늘, 왕세는 내야 함이 도리가 아닌가.¹⁹⁶ 요 근래는 진상도 하지 않는 모양¹⁹⁷인데…… 굴 과수원도 봉세관을 시켜 민간에 팔아 치워 폐지하지 않았는가.”

“대감, 잘못 알고 계십니다요. 진상이 없어진 게 아님죠. 굴 진상은 폐지된 게 사실입니다만 ¹⁹⁸전복 진상은 어망세에 갖다 붙이고, 말 진상은 공마대전(貢馬代錢)이라 하여 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나기주가 입을 열었다.

“흠, 그렇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진상이란 원래 속방(屬邦)이 종주국에 바치는 예물이 아니오?¹⁹⁹ 예로부터 이 섬에 왕세 대신 진상의 의무를 지운 것은 별다른 뜻이 있는 거지요. 왕화(王化)가 미치지 못하는 수천 리 물 밖에 있음을 기화로 자주 토란(土亂)을 일으켜 조정에 거역하는 섬 백성들을 무마시켜 보려는 교육정책이죠. 왕세가 없고 진상이 있음은 곧 제주섬이 아직도 탐라국의 전통을 보전하고 있다는 뜻이오.²⁰⁰” / 이 말에 최 주사는 펄쩍 펄 듯이 놀란 얼굴로,²⁰¹

“원, 형님도, 탐라국이라뇨? 우리 섬 백성들도 어엿한 폐하의 적자인데²⁰²…… 다만 섬 땅이 척박하여 세곡마련이 어렵기로 대신 진상물로 백성 된 도리를 하고 있는 것²⁰³뿐입니다.”

“하하, 최 형, 꽤나 몸을 사리는군. 내가 최 형을 반역죄로 받고할까 봐 그러시오? 하하하.”

나기주가 이렇게 깔깔 호탕하게 웃고 최 주사는 고개를 숙인 채 난처한 듯 뒷머리를 긁었다.

“가까이 방성칠란만 봐도 알지 않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²⁰⁴섬 백성들 마음 한구석엔 옛날 탐라국 시절의태평성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은연중 있는 거요.” ▶ **진상을 이유로 나라에 대한 불만을 드러냄.**

186) 국가 재정이 부족하여 외세의 의한 이권 침탈이 이루어졌다고 봄.

187) 국가 재정이 부족하여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심해짐.(비판적 현실 인식)

188) 외세의 이권 침탈을 돕고 있는 조정 대신들

189) ① 조정대신이 사리사욕을 채움. ② 백성들 사이에서 개인의 사욕을 우선하는 조정 대신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

190) ‘러시아’의 음역어

191) 『』: 그 시대의 이권 침탈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줌.

192)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193) 소요(민란)의 원인이 세금을 명목으로 한 과도한 수탈임을 지적함.

194) 『』: 진상으로 대신하고 있던 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상황의 억울함을 지적함.

195) 나기주와 최 주사의 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그들이 위협해질 수 있음을 우려함.

196) 지세부과가 정당하다고 보는 이유 ①

197) 지세부과가 정당하다고 보는 이유 ②

198) 대감의 말에 대한 반박: 일부 진상을 제외한 여러 진상들이 여전히 세금의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함.

199) ‘진상’의 근본적인 목적을 상기시켜 진상과 지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것이 부당한 일임을 지적함.

200) 지세 부과에 대한 비판이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

201) 나기주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최 주사

202) 제주가 탐라국의 전통을 잇는다는 나기주의 말에 대한 반박.

203) 제주의 진상과 속방에서 바치는 진상의 성격이 다를음을 지적함.

204) 나기주는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조정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음.

이때 운양 대감의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이번 민회(民會)에 다른 세폐와 진상의 폐는 거론할지언정²⁰⁵⁾ 왕세만은 시비 삼아서는 안 되는 거여. 왕세를 거역함은 국왕을 거역함이니!²⁰⁶⁾”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하고 최 주사가 머리를 조아렸다.²⁰⁷⁾

▶ 민회가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한 비판으로만 한정됨

1. 갈래 : 현대 소설, 장편 소설, 역사 소설
2. 성격 : 사실적, 비극적
3. 배경 : 시간-조선 말, 공간-제주도
4. 시점 : 3인칭 시점 (객관적 거리 유지)
5. 제재 : 조선 말기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란
6. 주제 : 민중의 저항과 좌절

<특징>

- 거남운동으로 제주도에서 시작된 민란이 반봉건적 의거와 천주교 박해로 발전 되는 과정을 보여줌.
- 역사학계에서도 다루지 못했던 방성칠란과 신축제주항쟁에 대해 다룸.

■ 등장인물

- 나기주 : 과도한 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 외세의 침탈로 어려워진 국가의 재정을 세금으로 보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최 주사 : 제주에 진상이 있음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인물. 외세에 의해 국가의 이권이 침탈 되는 상황에 조정 대신들이 사육을 청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운양 대감 : 과도한 세 부담의 불만이 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인물의 내면을 소상하게 드러냄
 - 산문 안에 운문을 넣어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

205) 세 부담의 과중함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으로 제한함.

206) 과세에 대한 비판이 국가에 대한 반역의 의도로 비춰지는 것을 단속함.

207) 상대방에게 존경의 뜻을 보이거나 애원하느라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자꾸 숙이다.

「해산 바가지」- 박완서

[앞부분 줄거리] ‘나’는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며느리가 출산 후 입원해 있는 병원에 함께 간다. 친구의 며느리가 누워 있는 옆 침대에서는 아들을 낳은 산모를 시골벽적으로 축하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본 친구는 둘째도 딸을 낳은 며느리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다.

“재가 시에미 대접을 어찌 이리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쯤 쳐다봐도 제가 시에미 같은 건 안중에 없다는 걸 모를 내가 아닌데.”²⁰⁸⁾

친구가 착 가라앉은 그러나 떨리는 소리로 사돈 마님한테 이렇게 쓰고 드러누운 며느리를 나무랐다.

“저도 면목이 없어서 안 그러니까. 잘 먹지도 않고 시시때때로 저렇게 울고 속을 끓이니 저 애 꼴이 말이 아닙니다.”²⁰⁹⁾

“아니죠. 재가 시에미 알기를 워낙 개떡같이 아는 얽니다. 버르고 별려서 한마디 해도 어느 바람이 부나 하는 식이죠. 그러니 말해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번 일만은 어른 된 입장에서 한마디 다짐을 받고 넘어가야겠다 싶어 이렇게 왔더니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까 그 사람들이 다 해 주지 뭐니까? ²¹⁰⁾저도 귀가 있으니 들었겠죠. 더 보태지도 덜지도 않을 테니 그 사람들한테서 들은 소리²¹¹⁾를 고스란히 명심하고 있으라 이르세요. 나 절대로 심한 시에미 아닙니다. 이번에 또 딸 낳은 것 가지고 뭐라지 않아요. 이 친구는 딸을 넷 낳고 기어이 아들을 낳았답니다.²¹²⁾ 딸 둘이 훔칠 것 하나 없어요. 그렇지만 남의 집 대를 끊어놓겠다는 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²¹³⁾ 그건 안 될 말이죠. 부처님 가운데 토막²¹⁴⁾도 눈을 부라릴 일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사돈 마님. 더 긴 말은 안 하겠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 줬으니까. 『그 사람들처럼 젊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 이 시에미 생각을 덮어놓고 구닥다리 낡은 생각으로 치지도외²¹⁵⁾하지는 못하겠죠.』²¹⁶⁾ 이만 가 보겠습니다. 저가 시에미 꼴 안 보려고 흥물을 떨고 있는데 시에미라고 제 꼴 보고 싶겠습니까? 애, 가자.”

친구가 서슬이 퍼렇게 말하고 나서 내 소매를 잡아끌었다.

“이대로 가면 어떡하니? 안 오니만도 못하게.”

나는 친구 눈치를 봐 가며 모포 위로 슬며시 산모의 어깨를 잡았다. 격렬한 떨림²¹⁷⁾이 손아귀에 닿자마자 나는 미리 준비한 축하와 위로를 겸한 인사말을 까먹고 말았다.

“가자니까, 시에미 우습게 아는 게 시에미 친군들 안중에 있을라구.”

친구는 내 등을 떠다밀다시피 해서 먼저 문밖으로 내쫓고 따라 나왔다. 뒤쫓아 나온 사돈 마님은 참회하는 죄인보다 더 기운 없이 고개를 떨구고 파리한 입술을 간신히 들먹여 면목없다는 소리만 되풀이했다.²¹⁸⁾

(중략)

내가 첫째를 났을 때 시어머님은 해산달을 짚어 보고 선달²¹⁹⁾이구나,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해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 바가지²²⁰⁾를 구해 오게 했다.

“잘생기고, 여물게 굳고, 정한 데서 자란 햇바가지여야 하네. 첫 손자 첫국밥 지을 미역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²²¹⁾

208) 글쓴이의 친구로 며느리가 또 딸을 낳은 것에 대해 못마땅함을 표현

209) 시어머니의 질책에 딸을 감싸는 친구의 사돈

210) 남아 선호사상이 만연한 당시의 세태

211) 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것

212) 글쓴이인 ‘나’가 아들을 낳기 위해 딸을 넷이나 낳았다고 생각

213) 아들이 반드시 낳아 가문이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임

214) 자비로운 부처의 가운데 부분과 같이 마음이 지나치게 어질고 순한 사람을 이르는 말.

215) 치지도외(置之度外 : 마음에 두지 아니함)

216)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일반적인 통념인 것으로 강조

217) 친구의 며느리가 매우 괴로워 하고 있음

218)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인 취급을 받던 당시 사회의 잘못된 생각을 볼 수 있음

219) 음력 12월

220) 남아, 여아를 차별하지 않는 생명존중사상

221) ‘해산 바가지’의 역할

이러면서 후한 값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그럴 때의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 나도 덩달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었다. 이윽고 정말 잘 굳고 잘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셔 놓았다. 또 손수 장에 나가 보얀 젓빛 사발도 한쌍을 사다가 선반에 얹어 두었다. 그건 해산 사발이라고 했다.

나는 내가 낳은 첫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켕겼다.²²²⁾ 외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흔히 그렇듯이 그분도 아들을 기다렸음 직하고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엄숙한 해산 준비는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나 어울림 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원한 나를 맞아들이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²²³⁾ 그 잘생긴 해산 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두 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것 하나만은 믿어도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²²⁴⁾ 때문에 인줄²²⁵⁾을 걸고 부정을 기(忌)²²⁶⁾하는 삼칠일²²⁷⁾ 동안이 끝나자 해산 바가지는 정결하게 말려서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이 만면²²⁸⁾하고도 경건한 의식²²⁹⁾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 다음에도 딸이었다. 네 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²³⁰⁾ 의사나 간호사까지 나를 동정²³¹⁾했고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다. ²³²⁾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²³³⁾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였다. 그분이 아직 살아 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²³⁴⁾ 그분의 망가진 정신²³⁵⁾, 노추²³⁶⁾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²³⁷⁾이 깃들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²³⁸⁾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 해도 사이버기도원 같은 데 맡겨 있지도 않은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남편이 막걸릿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²³⁹⁾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²⁴⁰⁾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삼 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던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해괴하고 새록새록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 사람의 눈치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목욕 시키거나 옷 갈아입힐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했다 뉘우쳐지면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다.』²⁴¹⁾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고부터 신경 안정제가 필요없게 됐다.²⁴²⁾ 시어머니도 나를 잘 따랐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천진한 얼굴로 내 치마꼬리만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했다 늦게 돌아오면 그분은 저녁도 안

222) 아들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해 편치 못한 마음. 사회에 만연한 남아선호사상에서 ‘나’는 자유롭지 못함
 223)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모습
 224) 생명을 존중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자식을 낳은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을 느낌
 225) 금줄. 부정한 것의 침범을 막기 위해 문등에 매는 새끼줄
 226) 꺼리거나 피하다
 227) 세이레(아이가 태어난 후 스무하루 동안)
 228) 희색만면 (喜色滿面 :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함) 여아든 남아든 구분하지 않고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기쁜 일임을 보여줌
 229) 해산 바가지에 국과 밥을 담아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복을 비는 일
 230) 남아선호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해 딸을 낳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부담감을 느낌
 231) 남아선호사상의 분위기
 232) 아들 딸 구분 않고 생명의 탄생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시어머니의 모습
 233) 태어난 아이를 맞아 대접
 234)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는 일
 235)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상태
 236) 노추 (老醜 : 늙고 추함)
 237)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238) 『 』, 시어머니의 생명을 존중했던 모습을 기억하며, 노환으로 힘겨운 어머니 역시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
 239)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기로 결정
 240) 남편 역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 마음의 짐을 덜어냄
 241) 위선으로 효부인척 시어머니를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인간적인 존중감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대함
 242) 위선에 사로잡히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고 애정을 표시하면서 ‘나’는 평화를 되찾음

들고 어린애처럼 칭얼대며 골목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곤 했다. 임종 때의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서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날 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²⁴³⁾ 나는 마치 그분의 그런 고운 얼굴을 내가 만든 양 크나큰 성취감에 도취했었다.

1. 갈래 : 단편 소설
2. 성격 : 현실 비판적, 회상적
3. 배경 : 1980년대 서울
4.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5. 주제 :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남아선호사상 비판

<등장인물>

'나' : 시어머니의 치매로 인해 부양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요양원에 보내려 하지만, 지난날 시어머니가 보여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깨닫고 다시 모시게 됨.

'나'의 시어머니 : 아이를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기르며 생명 그 자체를 소중히 하는 모습을 보여 줌.

'나'의 친구 : 며느리가 딸만 둘을 낳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자 속상해 하며 뿌리 깊은 남아 선호 사상을 드러냄.

남편 :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서술상의 특징>

- 내부 이야기가 외부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액자식 구성으로 전개됨(뒷부분의 바깥 이야기는 없음.)
- '해산 바가지'라는 상징적 소재를 사용해 시어머니의 생명존중사상을 보여줌

<내용상의 특징>

- 남아 선호 사상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대조해 주제를 표출
- 과거를 회상하면서 서서히 주인공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줌
- 남아선호 사상과 그에 따른 성차별적인 세태 비판
-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부양 문제에 대한 인식 촉구

243) 시어머니의 평화로운 죽음

칼의 노래 - 김훈

혼절²⁴⁴)과 혼절 사이에서 나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다. 위관²⁴⁵)의 질문은 답변을 미리 예비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었다. 위관은 집요했으나, 아무것도 묻고 있지 않았다. 아마도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금뿐이었다. 임금은 나를 죽여서 사직을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고 나를 살려서 사직을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었다.²⁴⁶⁾

히데요시가 전 일본의 군사력을 휘몰아 직접 군을 지휘하며 바다를 건너올 것이라는 풍문²⁴⁷⁾ 앞에 조정은 무겁게 침묵하고 있었다. 나를 죽이면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²⁴⁸⁾ 임금은 나를 풀어 준 것 같았다. 그러므로 나를 살려 준 것은 결국은 적이었다. 살아서, 나는 다시 나를 살려 준 적 앞으로 나아갔다. 세상은 뒤엎겨 있었다. 그 뒤엎김은 말을 걸어 볼 수 없이 무내용했다.²⁴⁹⁾

의금부에서 풀려난 뒤부터, 추운 날에는 허리가 결렸고 왼쪽 무릎이 시리고 쭈셨다. 무릎이 시릴 때, 두 다리가 땅을 밟지 못하는 것처럼 얼얼했다. 뺨속의 구멍으로 찬 바닷바람이 드나드는 듯싶었다. 뺨속을 드나드는 바람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임금의 숨결이며 기침 소리처럼 느껴졌다. 내 어깨에는 적이 들어와 살았고, 허리와 무릎에는 임금이 들어와 살았다.²⁵⁰⁾ 활을 당겨 표적을 겨눌 때 나는 내 어깨에 들러붙은 적을 느꼈고 칼의 세(勢)를 바꾸려고 몸을 돌릴 때 나는 내 허리와 무릎 속에서 살고 있는 임금을 느꼈다. 시린 무릎으로 땅을 온전히 딛지 못할 때도 내 몸은 무거웠다. / 적과 임금이 동거하는 내 몸은 새벽이면 자주 식은땀을 흘렸다. 구들에 불을 때지 않고 자는 밤에도 땀은 흘렸다.

▶ **왕명을 거역했다는 모함 때문에 의금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이순신.**

(중략)

다시 날이 밝았다.²⁵¹⁾ 바다는 고요했다. 포위망을 조이면서 적에게 다가갔다. 대열의 계통을 버리고, 적들은 산개²⁵²⁾했다. 적들은 개별적 철수를 시도했다. 적들은 바다 가득히 뿔뿔이 흩어졌다. 적들의 깃발이 어지럽게 뒤엎졌다. 적들은 내 포위망 사이사이로 파고들었다. 내 포위망은 교란되었다. 교전하는 함대 사이로 적선들은 한 척씩 빠져나갔다.

▶ **날이 밝아오자 개별적으로 철수를 시도하는 적군.**

적들은 계통 없이 달려들었다. 멀리 떨어진 내 전선들이 깃발 신호를 받지 못했고, 신호는 전달되지 않았다.²⁵³⁾ 함대 전체를 통제할 수 없었다. 각 방면별 수령들에게 지휘권을 넘겼다. 나는 중군(中軍)²⁵⁴⁾만을 인솔하고 적의 진로 맨 앞으로 나아갔다. 전투는 난전(亂戰)²⁵⁵⁾으로 돌입했다. 진은 무너지고 대열은 흩어졌다. 지휘 통제는 작동되지 않았다. 한 척이 닳치는 대로 한 척씩을 붙잡아 들러붙었다. 모든 한 척이 전방위의 사선(射線)²⁵⁶⁾에 노출되어 있었다. 수평선 쪽의 적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기나긴 하루였다. 시간은 정지한 듯 더디었다.²⁵⁷⁾ 바다는 쓰레기에 덮였다. 화약 연기와 뱃짚이 타는 연기에 뒤덮여, 먼 싸움은 기억 속의 싸움처럼 희미했다.

『불붙은 적선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노를 저어 와서 내 대장선의 고물²⁵⁸⁾을 들이받고 깨어졌다. 적병들의 시체가 노와 노 사이에 끼어 으깨졌다. 물에 뜬 적병들의 시체를 헤치면서 또 다른 적선이 불길을 날리며 달려와 대장선을 들이받고 깨어졌다. 적들은 사방에서 들이닥쳤다.』²⁵⁹⁾ ▶ **철수하는 적들과의 난전이 이어짐.**

다시 날이 저물었다.²⁶⁰⁾ 해 지는 쪽의 먼 섬들이 석양에 빛났다. 화약 연기 속으로 노율이 스몄다. 바람은 잠들었다.

244) 정신이 아찔하여 까무러침.

245) 죄인을 신문할 때에, 의정대신 가운데서 임시로 뽑아 임명한 재판장

246) 임금은 사직의 보존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47)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소문이 남.

248) 나를 살려줘야 나에게 적을 물리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

249)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이순신장군의 마음을 알 수 있다.

250) 어깨에는 적과의 전투에서 얻은 부상의 흔적을, 허리와 무릎에는 고문으로 인한 통증을 가지고 있음.

251) 전쟁이 며칠째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

252) 여럿으로 흩어져 별립.

253) 적들의 교란작전으로 아군의 체계가 흔들려 통제가 어려워짐.

254) 예전에, 전군(全軍)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던 중심 부대

255) 전투나 운동 경기 따위에서, 두 편이 마구 뒤섞여 어지럽게 싸움

256) 쏜 탄알이나 화살이 지나가는 선.

257) 오랜 전투로 심신이 지쳐있음.

258) 배의 뒷부분

259) 『』: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로 최후의 전투에 임하는 적군.

격군²⁶¹)들은 기진맥진했다. 사흘 밤을 재우지 못했다. 적선 백여 척이 관음포 안 내항으로 달아났다. 거기는 퇴로가 없는 물목²⁶²)이었다. 적들은 항로를 오인했던 모양이다.

나는 중군을 몰아 관음포로 향했다. 거기서 포구의 어귀를 막고 안쪽을 찌를 판이었다. 적선 두 척이 내 대장선 앞뒤로 달려들었다. 뒤쪽에서 중군장이 달려 나와 앞에서 달려드는 적선을 막았다. 나는 대장선 장대에서 소리쳤다.

— 관음포가 급하다. 관음포로 가자.

난간에 도열²⁶³)한 적들이, 일제히, 무더기로 쏘아 댔다.

▶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며 항로를 오인한 적들을 따라 관음포로 가고 있음.**

갑자기 왼쪽 가슴이 무거웠다.²⁶⁴) 나는 장대 바닥에 쓰러졌다. 군관 송희립이 방패로 내 앞을 가렸다. 송희립은 나를 선실 안으로 옮겼다. 고통은 오래전부터 내 몸속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전신에 퍼져 나갔다. 나는 졸음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오는 죽음을 느꼈다.²⁶⁵)

— 지금 싸움이 한창이다. 너는 내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말라.²⁶⁶)

내 갑옷을 벗기면서 송희립은 울었다.

— 나으리, 총알은 깊이 삽사옵니다.²⁶⁷)

나는 안다. 총알은 깊다. 총알은 임진년의 총알보다 훨씬 더 깊이, 제자리를 찾아서 박혀 있었다.²⁶⁸) 오랜만에 갑옷을 벗은 몸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서늘함은 눈물겨웠다. 팔다리가 내 마음에서 멀어졌다. 몸은 희미했고 몸은 멀었고, 몸은 통제되지 않았다.²⁶⁹)

— 복을…… 계속…… 올려라. 관음포…… 멀었느냐?²⁷⁰)

송희립은 갑옷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복을 울렸다.

▶ **적의 총을 맞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군을 지휘 통제하는 이순신.**

난전은 계속 중이었다. 싸움의 뒤쪽 아득한 바다 위에서 노을에 어둠이 스미고 있었다.²⁷¹) 적선을 태우는 불길이 바다 곳곳에서 일었다. 등판으로 배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격군들은 관음포를 향해 저어 가고 있었다.

싸움터를 빠져나가 먼바다로 달아나는 적선 몇 척이 선창 너머로 보였다. 밀물이 썰물로 바뀌는 와류²⁷²) 속에서 적병들의 시체가 소용돌이쳤다. 부서진 적선의 파편들이 뱃전에 부딪혔다. 나는 심한 졸음²⁷³)을 느꼈다.

내 시체를 이 쓰레기의 바다²⁷⁴)에 던지라고 말하고 싶었다. 졸음이 입을 막아 입을 열리지 않았다. 나는 내 자연사에 안도했다. 바람결에 화약 연기 냄새가 끼쳐 왔다. 『이길 수 없는 졸음 속에서, 어린 면의 젖 냄새와 내 젊은 날 함경도 백두산 밑의 새벽안개 냄새와 죽은 여진의 몸 냄새가 떠올랐다. 멀리서 임금의 해소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냄새들은 화약 연기에 비비지면서 멀어져 갔다.』²⁷⁵) 함대가 관음포 내항으로 들어선 모양이었다. 관음포는 보살의 포구인가.²⁷⁶) 배는 격렬하게 흔들렸고,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선창 너머로 싸움은 문득 고요해 보였다.

세상의 끝이……²⁷⁷) 이처럼…… 가볍고…… 또…… 고요할 수 있다는 것이……,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²⁷⁸)을……

260) 날이 경과한 것을 알 수 있다.

261) 조선 시대에, 사공(沙工)의 일을 돕던 수부(水夫).

262) 물이 흘러 들어오거나 나가는 어귀.

263) 많은 사람이 죽 늘어섬. 또는 그런 대열.

264) 적의 총알을 맞음.

265)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느낌.

266) 이순신의 평소 품성을 알 수 있음.

267) 거짓말로 이순신을 안심시키려는 송희립.

268) 부상이 임진년에 사천 전투에서도 총알을 맞았던 부상보다 심각함.

269) 죽음이 다가오자 팔 다리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음을 표현함.

270) 이순신이 점점 죽어가고 있음을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나타냄.

271) 시간이 경과했음을 보여줌.

272)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흐름. 또는 그런 흐름

273) 죽음이 더 가까워 졌음을 보여줌.

274) 전쟁의 참상을 나타내기 위해 시체와 전쟁의 잔해를 쓰레기에 비유함.

275) 『』: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기억과 감각이 떠오름.

276) ‘관음포’와 ‘관세음보살’의 음이 비슷함을 연관 지어 생각함.

277)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비장함과, 이순신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과정을 보여줌.

278) 전쟁에 나가 직접 싸울 수 있는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을 가리킴.

이 세상에 남겨 놓고…… 내가 먼저……, 관음포의 노을이…… 적들 쪽으로…….

▶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 이순신.

- 김훈, 「칼의 노래」

1. 갈래 : 장편 소설, 역사 소설
2. 성격 : 사실적, 역사적, 전기적
3.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4. 배경 : 시간-1597~1598년/ 배경-조선
5. 제재 :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겪은 고초와 전쟁
6. 주제 : 이순신 장군의 삶의 자세와 고뇌

<특징>

- 전투 장면을 속도감 있고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간결한 문체를 사용함.
-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됨.
-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허구가 혼재되어 있음.
-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여 주인공의 고뇌와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줌.
- 모순 어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드러냄.

「탈출기」 - 최서해

김 군! 수삼 차 편지는 반갑게 받았다.²⁷⁹⁾ 그러나 나는 한 번도 화답지 못하였다.²⁸⁰⁾ 물론 군의 충정²⁸¹⁾에는 나도 감사를 드리지만 그 충정을 나는 받을 수 없다.

▶ 김 군이 편지에서 밝힌 충정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나’

— 박 군!²⁸²⁾ 나는 군의 탈가(脫家)²⁸³⁾를 찬성할 수 없다. 음험한²⁸⁴⁾ 이역²⁸⁵⁾에 늙은 어머니와 어린 처자를 버리고 나선 군의 행동을 나는 찬성할 수 없다.²⁸⁶⁾ 박 군! 돌아가라.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²⁸⁷⁾ 군의 부모와 처자가 이역 노두²⁸⁸⁾에서 방황하는 것을 나는 눈앞에 보는 듯싶다. 그네들의 의지할 곳은 오직 군의 품밖에 없다. 군은 그네들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군은 군의 가정에서 동량(棟樑)²⁸⁹⁾이다. 동량이 없는 집이 어디 있으랴? 조그마한 고통으로 집을 버리고 나선다는 것이 의지가 굳다는 박 군으로서는 너무도 박약한²⁹⁰⁾ 소위²⁹¹⁾이다.

군은 xx단에 몸을 던져서 x선에 섰다²⁹²⁾는 말을 일전 황 군에게서 듣기는 하였으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그것을 시인할 수 없다. 가족을 못 살리는 힘으로 어찌 사회를 건지랴.²⁹³⁾

박 군! 나는 군이 돌아가기를 충정으로 바란다. 군의 가족이 사람들 발 아래서 짓밟히는 것을 생각할 때 군의 가슴인들 어찌 편하랴.

▶ 집을 나와 독립단에 가입한 나(박 군)와 가족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김 군의 편지

김 군! 군은 이러한 말을 편지마다 썼지?²⁹⁴⁾ 나는 군의 뜻을 잘 알았다.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하여 동정하여 주는 군에게 내 어찌 감사치 않으랴? 정다운 벗의 충고에 나는 늘 울었다. 그러나 그 충고를 들을 수 없다. 듣지 않는 것이 군에게는 고통이 될는지 분노가 될는지? 나에게 있어서는 행복일지도 알 수 없는 까닭이다.

김 군! 나도 사람이다. 정애(情愛)가 있는 사람이다. 나의 목숨 같은 내 가족이 유린받는 것을 내 어찌 생각지 않으랴?²⁹⁵⁾ 나의 고통을 제삼자로서는 만분의 일이라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의 탈가한 이유를 군에게 말하고자 한다. 여기 대하여 동정(同情)과 비난(非難)은 군의 자유이다. 나는 다만 이러하다는 것을 군에게 알릴 뿐이다. 나는 이것을 군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을 받는 까닭이다.²⁹⁶⁾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군도 사람이거나 나의 말하는 것을 부인치는 못하리라.

(중략)

부지런하다면 이때 우리처럼 부지런함이 어디 있으며 정직하다면 이때 우리 식구같이 정직함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빈곤은 날로 심하였다.²⁹⁷⁾ 이를 사흘 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번은 이틀이나 굶고 일자리를 찾다가 집으로 들

279) 편지 형식의 서간체 소설임을 알 수 있음.

280) 김 군이 몇차례 편지를 보냈지만, ‘나(박 군)’가 그 동안 답장하지 못하다가, 지금 답장을 쓰고 있는 상황

281)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정 (후술할 ‘나’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을 가리킴)

282) ‘나’를 가리킴

283) 자기 집에서 나감

284) 음산하고 험악하다

285) 본고장이나 고향이 아닌 다른 곳

286) ‘나(박 군)’는 집에 나온 상황(탈가)임을 알 수 있음

287) 김 군이 ‘나(박 군)’에게 보낸 편지에서 충고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음

288) 길거리

289) 기둥 (집안에서 중대한 인물을 지시할 때 쓰는 말)

290) 의지나 체력 따위가 굳세지 못하고 여리다

291) 하는 일 소행

292) 독립단에 가입하여 독립단원이 됨

293) 작은 일을 못하면서 큰일을 할 수 없다고 설득함

294)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김군의 설득이 여러번 있었음

295) ‘나(박 군)’의 결단은 고통스럽고 쉽지 않았음

296) 가족을 떠나서 독립단에 가입한 이유를 밝히려고 함.

297) 정직하고 부지런 함에도 가난해지는 모순된 현실

어가니 부엌 앞에 앉았던 아내가(아내는 이때에 아이를 배서 배가 남산만 하였다.) 무엇²⁹⁸⁾을 먹다가 깜짝 놀란다. 그리고 손에 쥐었던 것을 얼른 아궁이에 집어넣는다. 이때 불쾌한 감정²⁹⁹⁾이 내 가슴에 떠올랐다.

“무얼 먹을까? 어디서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이길래 어머니와 나 몰래 먹누? 아! 예편네란 그런 것이로구나! 아니 그러나 설마…… 그래도 무엇을 먹던데…….”

나는 이렇게 아내를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밋게도 생각하였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어색하게 머리를 숙이고 앉아서 씩씩 하다가 밖으로 나간다. 그 얼굴은 좀 붉었다.

아내가 나간 뒤에 나는 아내가 먹다가 던진 것을 찾으려고 아궁이를 뒤졌다. 싸늘하게 식은 재를 막대기로 뒤져내니 벌건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것을 집었다. 그것은 굴껍질[橘皮]³⁰⁰⁾이다. 거기는 배 먹은 잇자국이 났다. 굴껍질을 쥐니 나의 손은 떨리고 잇자국을 보는 내 눈에는 눈물이 괴었다.³⁰¹⁾

김 군! 이때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면 적당할까?

‘오죽 먹고 싶었으면 오죽 배고팠으면, 길바닥에 내던진 굴껍질을 주워 먹을까! 더욱 몸 비값은³⁰²⁾ 그가! 아아,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아내를 나는 의심하였구나! 이놈이 어찌하여 그러한 아내에게 불평을 품었는가? 나 같은 간악한 놈이 어디 있으랴.³⁰³⁾ 내가 양심이 부끄러워서 무슨 면목으로 아내를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느껴 가며 눈물을 흘렸다. 굴껍질을 쥐 채로 이를 악물고 울었다.

“야, 어째 우느냐? 일어나거라. 우리도 살 때 있겠지, 늘 이렇겠느냐.”

하면서 누가 어깨를 친다. 나는 그것이 어머니인 것을 알았다. 나는,

“아이구 어머니, 나는 불효외다.”

하면서 어머니의 발을 안고 자꾸자꾸 울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소리 없이 가슴을 부둥켜안고 밖으로 나왔다.

▶아내를 의심한 ‘나(박 군)’의 자책

1. 갈래 : 현대소설, 서간체 소설
2. 성격 : 사실주의적, 현실 비판적, 자전적, 고백적, 저항적
3. 배경 : 일제시대, 만주의 간도 일대
4.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3. 제재 : 식민지 조선인의 생활상
4. 주제 : 식민지 시절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및 조선의 농민이 겪는 고통과 분노

< 특징 >

- 자신이 받은 편지에 답장을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서간체 소설
- 서간체 형식과 1인칭 시점을 통해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 자전적 요소가 강한 소설로 체험 문학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임
- 일제 강점기 하층민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신경향파 문학 작품
- 인물의 의식 변화를 통해 주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함

298) 독자에게 궁금증을 유발함
 299) 아내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생긴 원망과 미움
 300) 궁핍했던 간도의 삶을 상징하는 소재
 301) 아내를 의심하고 원망했던 자신을 반성함
 302) ‘임신’의 관용적 표현
 303) 아내를 의심한 자신을 자책

「아우를 위하여」 - 황석영

뭔가 네³⁰⁴게 유익하고 힘이 될 말³⁰⁵을 써 보내고 싶다.³⁰⁶

네가 입대해 떠나간³⁰⁷ 이제 와서 우울한 고향 실정이나 우리의 지난 잘못을 들어 여기에 열거해 놓자는 건 아니야.

아무 얘기도 못 해 주고 묵묵히 너를 전송했던 형³⁰⁸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나는 우리가 지금쯤은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문제를 확실히 해 두고, 또한 장래를 굳게 믿기 위하여 내 연애 이야기³⁰⁹를 빌리기로 한다. 너는 십구 년 전에 내가 누구를 사랑한 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마 놀랄 거다. 따져봐, 내 열한 살 때가 아니냐. 에이, 이건 오히려 형의 달착지근한 구라를 읽게 됐군. 하며 던져 버리지 말고 읽어 주렴.³¹⁰

너 영등포의 먼지 나는 공장 뒷길들이 생각나니³¹¹. 생각날 거야, 너두 그 학교를 다녔으니까. 아침마다 군복이나 물 빠진 푸른 작업복 상의를 걸친 아저씨들이 한쪽 손에 반찬 국물의 얼룩이 밴 도시락 보자기를 들고 공장 담 아래를 줄이 밀려가곤 했지. 우리 아버지두 그 틈에 있었을 거야. 참 그땐 생각하면 제일 먼저 까마중 열매가 떠오른다.

▶ ‘나’가 아우에게 유익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편지로 유년 시절 경험담을 시작함

(중략)

애들이 앞에 나가서 코끼리 맴돌기³¹²를 하고 있을 때, 자치회를 위하여 자리를 피해 주었던 선생님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놀랐다. “뭘 하구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입을 꼭 다물었고 영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벌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벌을?” “애들이 단체 행동에서 빠지려구 합니다.” “단체 행동이라니……” “애들 때문에 우리가 졌어요. 우리 반의 명예를 위해서 전부 놀이에 참가할 작정이었습니다.” “네, 그런가요. 언제 그 놀이를 해 보자구 여럿이서 의논을 했었나요?” 선생님의 한결같이 부드러운 질문에 영래가 대들듯이 거칠게 대답했다. “아뇨, 하나 마나죠. 우리 반을 위해서 나는 모두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³¹³.” “물론 여럿이 하는 일에 마음이 모두 맞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만 주장해서는 절대로 무슨 일에서건 이길 수 없을 거예요.³¹⁴ 급장은 책임이 중할수록 누구에게 불만이 없는가를 살피고, 있다면 그 불만이 자기가 저지른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닌가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모으겠다는 핑계로 제 잘못을 감추려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³¹⁵”

▶ 학급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생선생님

그러나 자치회 때의 일로 영래와 종하, 은수 그 애들은 선생님을 점점 미워하게 되었고, 자기네와 별로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소녀라고 놀려 보려 했던 것이다. 그 애들은 병아리 선생님³¹⁶에 관한 음탕한 욕지거리를 지껄이거나 그이가 돌아서서 칠판에 글씨를 쓸 때 일어나 쑥떡을 먹이며 이상스런 몸짓을 하는 거였다. 나는 이 공공연한 모독에 의한 아이들의 수치심³¹⁷이 점차로 깊이 만연되어 가고 있었던 상태를 전혀 느끼지도 못했었다. 어느 산수 시간에 뒷자리 아이로부터 내게까지 작게 접은 종잇조각³¹⁸이 건네져 왔으며, 펴 보고나서 나는 드디어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종잇조각에는 “본 다음에 앞으로 돌릴 것. 임중하.”라고 씌어 있고 밑에다 그이에 관한 욕설에 곁들여 변소에서 간혹 볼 수 있는 추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림을 책갈피에 끼워 넣고 시간이 끝나기를 애가 달아가

304) ‘너’라는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 (편지 형식의 서간체 소설)

305)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

306) 편지를 쓴 이유.

307) 가상의 청자가 군복무 중임을 알 수 있음

308) 청자와 화자가 형제관계라는 점을 알게함.

309) 액자식 소설의 내부에 해당하는 이야기

310) 동생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여, 끝까지 읽어줄 것을 장난삼아 설득함

311) 공유된 기억을 환기시킴

312) 학급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벌

313) 다른 의견은 듣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독단적인 생각

314)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

315) 권위주의적인 학급 운영을 비판함

316) 교생 선생님의 별명

317) ‘나’가 영래 무리를 비판하기 위한 행동과 아이들이 동참하게 되는 계기와 이유

318) 영래 무리가 교생 선생님을 비난하고 본인들의 행동에 동참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쓰여짐

다렸다.³¹⁹⁾ 그동안 나는 별의별 무서운 공상에 시달렸다. 나는 얻어터진다. 머리가 깨어져 다 죽게 된다. 그이가 나를 업고 간다. 몇 날 몇 달을 끝없이 간다.³²⁰⁾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뒤에서 종하가 대견한 짓이라도 해냈다는 듯이 “애들아, 그 쪽지 어디까지 갔는지 이쪽으루 다시 돌려라.” 하며 떠들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겁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했다. “내가 가졌다 왜. 정말 너 이따위 장난만 하거나?” 종하와 은수가 얼굴을 마주 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킬킬 웃어 댔다. “그게 니 깔치니?” “구경했으면 고맙다구 그럴 게지, 이 새끼가 ……” 나도 지지않고 말했다. “너희들 사과 안 하면 그냥 안 둔다.” 그에게로 가서 종잇조각을 내밀어 주었다. “사과해, 너는 선생님을 욕보인 나쁜 놈이다.” “그래 병아리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하고 석환이가 잇달아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³²¹⁾ “자, 이걸 네 손으로 찢어버려.” “이 새끼가 …… 맞아 볼래?” 종하가 내 멱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다가 바닥에 쓰러뜨렸다. 은수와 영래가 “밟아 버려, 밟아.”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아이들이 뒤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제각기 떠들었다.³²²⁾ “너희들이 잘못이다.” “우리는 병아리 선생님을 좋아한다.”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야.” 기가 죽어 지내던 장판석이도 종하를 내게서 떼어 밀치면서 말했다. “애들 때리면 재미적다.” 은수와 종하는 아직도 영래의 행동을 기다리며 씨근거렸다. 아이들이 사방에서 한마디씩 했다. “학급비를 거둬다 우리한테 알리지두 았구 맘대로 쓴 건 잘못이다.” “요전에 동열이를 때린 것도 잘못 이라고 생각한다.” “한 번도 자치회에서 물어보지도 았구 혼자 맘대로 한 건 더욱 잘못이다.” 영래는 자기가 반 아이들에게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이 셋노랑게 질려 있었다.³²³⁾ “너희들 반장에게…… 이러거나?” “너는 반장 자격이 없어.” “그만둬라.” 나는 종하에게 종이쪽지를 내밀었다. 종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듯이 영래를 바라보자 그 애는 의외로 나약해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찢어, 인마.” 종하가 그걸 찢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내게 사과 안 할 테냐?” 아이들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래 사과하란 말야, 짜식들아.” “사과 안 하면 몰매를 놓아서 쫓아내라.” 종하가 아주 비굴하게 들릴까 말까 한 음성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우리는 모두가 그 애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풀이 죽은 걸보고서 어리둥절해질 지경이었다.³²⁴⁾ 나의 들끓던 수치감은 그때에 짝 몰려 있던 오즘이 방광을 비집고 쏟아져 나올 때처럼 외부로 터져 나갔고, 가벼운 몸서리를 흠칫 느꼈던 것이었다.

▶용기내어 영래 무리들에게 저항한 ‘나’와 아이들

1. 갈래 : 현대소설, 단편소설, 서간체 소설, 성장소설, 액자 소설
2. 성격 : 교훈적, 우의적
3. 제재 : 불의에 맞서는 용기
4. 주제 :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 의지

< 특징 >

- 과거의 사건을 내부 이야기로 하는 액자식 구성
- 형이 군에 입대한 아우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 짐
- 전쟁 이후 한 교실의 모습을 통해 1970년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우의적으로 표현함
- 선명한 대립 구조로 문제 상황과 그 해결 과정을 보여주며 교훈적 의미를 전달함
- 부당한 권력의 횡포와 몰락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저항의 용기를 강조함

319) 불의의 상황에 동참하지 않은 ‘나’

320) 불의한 권력자에게 저항을 결심하면서 생기는 두려움

321) 아이들이 ‘나’의 용기에 동참하기 시작함

322) 개인적 비판이 공동체의 비판으로 확장됨

323) 반 아이들의 저항에 당황함 (민중의 저항에 겁먹은 권력자의 모습을 상징)

324) 약하다고 여겼던 반 아이들에게 권력과 폭력을 일삼았지만, 단결을 통해 강해지자 두려워하며 몰락하는 모습(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비겁한 모습)

「정읍사 - 그 천년의 기다림」- 문순태

월아는 문득 고개를 들어 멀리 야청빛³²⁵으로 햇살 속에 굵적굵적³²⁶ 솟아오른 말고개 쪽³²⁷을 보았다. 지난밤에도 꿈 속에서 남편은 전복³²⁸ 자락 휘날리며 말을 타고 날 듯이 들판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³²⁹ 소금 지게³³⁰ 대신 투구에 삼지창을 든³³¹ 당당하고도 다부진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아양 고개³³²를 뛰어 내려갔다. 말을 탄 남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남편과 함께 빨리 집으로 달려가서 부모님께 사랑하고 싶었다. 도림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속닥거린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한 모습의 남편을 보이고 싶었다.³³³ 월아는 너무 반가워 아양 고개를 뛰어 내려가며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방출이³³⁴가 소스라치듯 울었다. 꿈이라는 것을 안 월아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월아는 고개를 들어 밤마다 꿈속에서 남편이 말을 타고 내달아 오던 들판을 바라보았다.³³⁵ 눈이 시리다 못해 어지러웠다.

말고개 위쪽 높은 하늘에 흘러가는 조각구름을 목이 아프도록 쳐다보던 월아는 갑자기 온몸이 허물어지듯 산전의 땅바닥에 힘없이 퍼지르고 앉았다.³³⁶ 열흘 남짓 신열을 앓고 헛소리까지 내질렀던 ³³⁷월아는 가까스로 몸을 추스르고 오랜만에 산전³³⁸ 잡초를 뽑는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온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을 기다리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남편은 장삿길을 떠난 지 2년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조차 없다. 정말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³³⁹ 비사벌과 황산, 그리고 금마에서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혹시 남편도 백제군으로 징발³⁴⁰당해 신라군한테 죽임을 당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³⁴¹부모님 말대로 살아 있다면 소식이라도 전해 왔을 것이 아닌가. 월아는 강하게 고개를 흔들었다.³⁴²

월아는 아직도 도림이 죽지 않고 꼭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전쟁 중에 징발을 당해 싸우다 죽지도, 포로가 되어 신라로 끌려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³⁴³ 월아는 그가 돌아올 날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날 밤도 월아는 자정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다가, 세상이 고즈넉이 잠든 사이 부모님 몰래 큰샘 거리³⁴⁴로 나갔다. 그녀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 왕버드나무 밑에 놓고, 동편 하늘을 향해 합장하며 남편을 돌려보내 달라고 절절한 마음으로 빌었다. 그녀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두 해 동안 매달 보름달³⁴⁵이 뜨기를 기다렸다가, 큰샘 거리에 나가 찬물로 몸을 칼칼하게 씻고³⁴⁶, 천지신명께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빌어 왔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할 데라고는 달님과 산신령, 용왕님, 목신님, 지신님, 부처님, 미륵님뿐이었다.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달님께 전달된다면 남편을 무사히 돌려보낼 것으로 믿었다.

월아는 달님에게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빌고 나서는 버릇처럼 노래³⁴⁷를 흥얼거렸다.

325) 검은빛을 띤 푸른 빛

326) 몸을 느리게 움직이는 모양

327) 남편이 오는 방향

328) 무관들이 입던 옷

329)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월아의 마음

330) 월아의 남편(도림)이 소금 장수 임을 알 수 있다.

331) 월아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있음이 꿈에서 나타남

332)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에서 신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아양산(娥洋山) 자락에 있어 아양고개라고도 한다.

333) 마을사람들은 도림의 죽음을 예상

334) 월아의 아들

335) 남편을 기다리는 월아의 간절한 마음

336) 남편이 오지 않는 허탈감

337) 남편을 기다리는 슬픔과 고통

338) 산에 있는 밭

339) 남편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괴로워하는 월아

340) 국가에서 사람이나 물자를 강제로 모으거나 거둠

341) 백제와 신라가 전쟁을 치르는 시대상황 드러남

342) 남편의 죽음을 강하게 부정

343) 남편의 살아 돌아오리라는 강한 믿음

344) 정읍(井邑)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연관

345)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대상

346) 몸을 정갈하게 함

347) 백제가요인 '정읍사'를 월아의 노래로 설정.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그녀는 혼자 있을 때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노상 이 노래를 흥얼거렸다.³⁴⁸⁾ 자정이 넘고 첫닭이 훼를 칠³⁴⁹⁾ 무렵에 야 큰샘 거리에서 돌아오면서 월아는 노래를 계속 흥얼거렸다.

(중략)

“나도 요번에는 참말로 잘 싸울 자신이 있다네.”
“살어서 집에 돌아갈 궁리나 허소. 기다리는 여편네 생각도 해야제.”
“언젠가는 떳떳하게 처자식 앞에 나타나고 말 거여.”

도림은 집에 있는 월아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육신이 바람이 되어 천지간에 흔적조차 없이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듯한 고적감에 떨었다.³⁵⁰⁾ 그 처절한 순간만은 자신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의 녀만이 이 세상을 홀로 쓸쓸하게 떠돌음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곤 하였다.³⁵¹⁾ 집에 있는 월아를 생각할라치면 가슴에 삼지창이 꽂히고 숨이 턱 끝에 차오르면서 사지가 말갈기처럼 산산이 찢기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³⁵²⁾ 그 아픔을 견뎌 내기 위해 술을 퍼마셔야만 했고 때로는 버들을 품에 안아야만 했다. 그러고도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는 목을 매고 싶었다.

도림은 샘바다³⁵³⁾를 떠나오던 때를 돌이켜 보았다. 검단³⁵⁴⁾ 소금밭으로 떠나던 날 새벽³⁵⁵⁾, 달기와 함께 괴다리³⁵⁶⁾까지 따라 나온 월아는 이번 장삿길은 며칠이나 걸리느냐고 거듭 물었었다. 열흘 남짓 걸릴 것이라는 말에 월아는 탄식과도 같은 한숨을 내쉴었다. 그날 월아는 한사코 그만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오래도록 괴다리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월아를 생각할 때마다 괴다리에서 마지막 보았던 그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월아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자 갑자기 목구멍이 후끈거리면서 콧등이 시큰해졌다.³⁵⁷⁾

“그러,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각시 생각도 해야제. 대장부답게 싸워서 꼭 이겨야제. 그래서 집에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³⁵⁸⁾.”

도림은 달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는 둥근 달 속에서 홀로 처연하게 서 있는 월아의 모습을 발견³⁵⁹⁾하고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1. 갈래 : 현대소설
2. 성격 : 애상적, 기원적, 서정적, 서사적
3.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4. 제재 : 기다림과 사랑
5. 주제 : 간절한 기다림과 사랑

348) 월아가 늘 도림을 걱정하며 도림이 돌아오기를 기원. 남편을 기다리는 월아의 애타는 마음

349) 닭이나 새 따위가 날개를 벌리고 탁탁 치다. 잠에서 깨다.

350) 월아와 이별한 상태인 도림의 고독감

351) 월아가 없는 도림 자신의 삶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

352) 월아를 그리워하는 도림

353) 정읍. 정읍의 지명은 정촌현. 정촌현이 있었던 마을 이름이 정해(井海)다. 샘이 바다를 이룬 마을이란 뜻이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샘바다 또는 새암바다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354) 정읍시 칠보면에 있는 지명

355) 월아와 도림이 이별한 공간과 시간.

356) 정읍 근처의 다리(橋), 망석이 있는 곳으로 추측하기도 함

357) 도림이 고적감 속에서 월아를 그리워하고 있음

358) 전투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59) 달을 보고 월아를 떠올림

<표현상의 특징>

- 현전하는 유일의 백제가요 <정읍사>를 모티브로 함
-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인물의 내면을 소상하게 드러냄
- 산문 안에 운문을 넣어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

<내용상의 특징>

- 월아의 행동을 통해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드러남
- 전통적인 서정인 기다림을 서사형식으로 풀어냄
- 신라와 백제간의 전쟁 상황을 설정해 남녀간의 사랑과 기다림을 엮음.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성석제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마흔다섯 살³⁶⁰)의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노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³⁶¹⁾

“만그이 자석이 있었으나 내가 돈을 백만 원 준다 캐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³⁶². 아이구, 이 망할 놈의 똥 냄새, 여리가 싸 놔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기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마.”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³⁶³) 늘 그렇듯이 병글병글 웃으면서. ³⁶⁴⁾

“만그이가 있었으므로 저 거름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만그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³⁶⁵⁾”

마을 회관 결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 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노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노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³⁶⁶⁾ 황영석처럼 제가 찢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 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말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주었다. ³⁶⁷⁾

“만그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³⁶⁸⁾

또는 물어보나 마나 명약관화³⁶⁹⁾한 일을 두고도 황만근을 들먹였다.

“만그이도 알 낀다.”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만근가’³⁷⁰⁾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만근가,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³⁷¹⁾는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 하고 단호하고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를 쉬 뒤에 “마안 — 그은” 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백 분³⁷²⁾(번), 째 원³⁷³⁾(십원), 여 끈(열 근)³⁷⁴⁾, 팔 쑤³⁷⁵⁾, 두 바리³⁷⁶⁾(마리)” 하고 빠르게 센다. 마지막으로 “그래, 바안 — 그은” 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이 노래에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 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 있다.

황은 성을 말한다. 신대 1리는 황씨들이 오십여 호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2년 전에 귀농한 민 씨 같은 타성바지³⁷⁷⁾는 황씨 집안에 데릴사위로 들어온 노 씨를 포함 전체에서 두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신대(新垓), 새터는 이름이 암시하듯 새로 생긴 마을이다. 황만근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 때 이미 그를 배고 있었는데 남편을 여의고 황만근을 낳은³⁷⁸⁾ 까닭에 항렬을 따서 이름을 지어 줄 사람이 없어 집에서 우러러보이는 산, 만근산(萬根山)에서 이름을 받았다. 만근산은 신대 1리에서 3리까지가 띠 모양으로 둘러 있는 천곡지(千谷池)를 병풍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360) 젊은 사람이 없는 농촌의 현실

361) 부탁할 일이 생겨서야 황만근의 부재를 깨달음

362) 황만근이 그동안 마을의 굶은알을 도맡아서 했음

363) 『 』 부분에서 이 작품이 황만근의 인성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삽화를 병렬적으로 나열할 것임을 알 수 있다.

364) 황만근의 성격 1 긍정적이고 밝은 인성의 소유자

365)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감과 사실성 부여

366) 황만근의 성격 2 공평하고 헌신적이다.

367) 황만근의 성격 3.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368) 황만근의 성격 4 어리숙하지만 공평무사함

369)명약관화(明若觀火),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한 것

370) 노래가 있을 정도로 마을사람들에게 친숙한 존재인 황만근

371) 황만근의 됃됨이를 보여주는 매개의 기능

372) 황만근이 셀수 있는 가장 큰 단위

373) 황만근의 발음이 어눌했음

374) 황만근이 아들의 무게를 말함

375) 황만근이 열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실

376) 가족이 두명이라고 말한 것에 관한 일화

377) 다른 성을 가진 사람

378) 황만근이 유복자임을 알 우있다.

또한 사철 물을 대 주게 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만근산의 천곡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계곡에서 흘러져 사는 사람 들을 모아 한곳에 살게 한 곳이 바로 신대리이다. 이쯤만 해도 황만근이라는 이름이 곧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379)

‘백 분’은 무엇을 이름인가. 황만근이 땅바닥에 넘어진 횃수가 백 번임을 말한다.380) 황만근은 어릴 때 터 유난히 자주 넘어졌는데 동네 사람들 말대로 ‘골’, 곧 자주 아는 척하는 윗마을 황학수의 말마따나 평형 감각을 관장하는 소뇌가 미 발달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동네에서 툭, 소리가 나면 흥시 떨어지는 소리, 아니면 황만근이 넘어지는 소리라고 여겼다. 381)누군가 황만근에게 도대체 하루에 몇 번 넘어지는지 세어 보라고 했다. 기왕 넘어지는 거 셈 공부나 하라는 충고였겠다.382) 저녁때 어린 황만근에게 몇 번 넘어졌는가 물으면 황만근은 손가락을 꼽고 발가락을 꼬고 무릎과 허리까지 배배 째 가며 용을 썼다. 그런데 황만근은 언제부터인가 그런 물음에 명쾌하게 ‘백 분’이라고 대답했다. 하루에 백 번, 한 달에 백 번, 일 년에 백 번, 평생 백 번. 백은 황만근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였다. 383)

‘찹 원’은 면사무소가 있는 봉대 장터의 국수 가게 주인이 보태 준 별명이다. 어느 날 열서너 살 난 더 벅머리 황만근이 국수를 사러 와서는 가게 문간에서 이렇게 말했다. “꼭찌 찹 원어찌만 쪼요.”384) 국수 장 수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황만근은 신중하게 손가락을 헤아리더니 다시 ‘꼭찌’라고 하면서 가게 주변 이 온통 환하도록 널려 마르고 있는 국수 가닥을 가리켰다. 그러고는 ‘찹 원’이라고 했는데 주인은 그 말 을 그의 손에 들린 십 원짜리 지폐를 보고 겨우 알아들었다. 어린 시절 황만근은 허가 짧았던 것이다385).

1. 갈래 : 단편소설, 농촌소설
2. 성격 : 해학적, 향토적, 세대 비판적
3. 시점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4. 주제 : 부채로 얼룩진 농촌 현실과 메마른 인정, 황만근의 비극적이고 이타적인 삶

<표현상의 특징>

- 고전 문학의 ‘전(傳)’의 양식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함.
- 재기 발랄한 문체를 통해 풍자와 해학을 드러내고 있음
- 방언의사용으로 현장감과 사실성을 부여

<내용상의 특징>

- 현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이 나타남
- 원칙이 부재한 현대 사회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함
- 작품 속 주인공 ‘황만근’의 부족함을 동정하는 작가의 시선에서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드러남

379) 마음에서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암시, 황만근의 이름의 유래를 말하며 서술자가 우호적인 입장에서 서술함을 느끼게 한다.

380) 황만근의 모자란 모습 1

381) 과장도히고 익살 쓰러움 표현(해학)

382) 서술자의 개입

383) 황만근의 모자란 모습 2

384) 황만근의 어눌한 말투

385) 황만근의 모자란 모습 3

「누이와 늑대」 - 한승원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식구들을 보고 염병에 걸렸다고 저희들끼리 쑥덕거리기 시작한 것³⁸⁶은 이해 늦은 가을부터였다. 그 병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한 달가량 광주의 큰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³⁸⁷

병원 사람들은 우리 식구가 앓고 있는 병이 결코 염병이 아니라고 했다. 세균의 감염으로 말미암아 생긴 묘한 병이라고 얼뚱얼뚱한 소리를 했다. ³⁸⁸그 병을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앓기 시작한 것은 누님이였다.

처음에는 그게 병인 줄도 몰랐었다. 시집도 가지 않은 누님이 아기를 배었다는 소문³⁸⁹이 퍼졌었다. 남이 전혀 배어 볼 엄두도 낼 수 없는 아기를 자기 혼자서만 배고 있길래도 하는 양, 누님의 입덧은 유별나다는 말이 소문의 꼬리에 붙어 다녔던 것이었다. 적어도 그 소문은 아침 안개가 앞 강 의 물바닥을 뱀같이 기어들어 와서 마을의 골목길을 가득 채우듯이³⁹⁰ 온 마을 안에 퍼졌었는데, 그것은 어느 해던가 내 종아리에 생긴 습진³⁹¹ 같았다. 미치도록 근질거리고, 그래서 이를 물고 곱끄러운 베 조각 같은 것으로 비비거나 긁어 놓으면, 활활 타는 듯 아프면서 시원하고, 쓰린 듯 아리고 쑤시면서 콧물 같은 진물을 눈물처럼 뿜어내 놓던 습진같이,³⁹² 그것³⁹³은 우리 식구들을 괴롭혔다.

가장 못 견뎌 하는 것은 어머니였다.³⁹⁴ 틈만 있으면 이 집 저 집을 돌면서, 내가 이를 물고 가려운 습진을 비비거나 긁어 대듯이, 입에 거품을 물고 따지며 악다구니를 써 대곤 했다.³⁹⁵

“자네 눈으로 봤는가, 봤어? 다리 나왔다고 하면 뭣 나왔다고 하는 세상인데³⁹⁶, 뭣이 어찌고 어쨌다고? 도둑때는 벗어도 비늘 때는 못 벗는다³⁹⁷는 말 모른가? 칼부림 날 소리 ³⁹⁸하지 말어.”

어머니가 이렇게 비비고 헤집어 놓은 곳에서는 뺨뺨한 베 조각으로 문지르고 긁어 놓은 습진에서 나오는 진물 같은 말들이 계속 새어 나오곤 했다. 진물이 말라붙어 뺨뺨해진 옷이 아픈 곳을 자꾸 스치면서 딱지를 벗겨 놓곤 하듯이 식구들의 속을 뒤집어 놓곤 했다.³⁹⁹

“불 안 땀 굴뚝에서는 연기 안 나는 법이여. 무슨 요다가 있든지 있었으니께 그런 말이 났을 것 아니여⁴⁰⁰?”
“백 사람이 백 말을 해도 내 속만 칼칼하면 되는 법인데, 어쩐다고 굶을 치고 다녀? 원래 방구 편 놈이 구린내 난다고 외치고 다니는 법이라구만.”⁴⁰¹

처녀가 아기를 배면 다 그러는지 모를 일이지만, 누님은 머리가 자꾸 지끈거리며 아프다고 이마에 흰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다니는가 하면 뒤란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오다가 배를 움켜쥐고 쪼그려 앉기도 하고, 변소에 가서는 어느 때와 달리 오래 앉아 있곤 했다. 누님이 나온 뒤에 가 보면 똥 위에 코피를 흘린 듯 검붉은 피가 쏟아져 있곤 했다. ⁴⁰²나는 그런 누님이 불쌍했다.

(중략)

누님의 관을 뒷골 산밭의 허리 너머에 있는 우묵한 싸리 숲속에 묻은 날 밤의 하늘은 참 묘했다. 그것은 꽃자주에 가지색을 진하게 섞어서 칠해 놓은 듯했고, 거기 달린 별들은 5월 들 논의 자운영꽃들이 마파람에 흔들거리는 것처럼 송알거리고 있었다. 싸리 숲에 달린 녹두알 같은 꽃망울들이나 앞 강둑에 어우러진 개망초꽃들같이 야들거리고 있었다.⁴⁰³

386)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387) 배경제시, 과거회상의 방식으로 서술

388) 병의 원인이 환경오염임을 감추는 의료진

389) 누님의소문, 가족의 고통 원인

390) 아침 안개가 퍼져나가는 것에 비유, 소문을 막을 수 없음을 암시

391) 소문의 비유

392) 가족이 겪은 고통을 습진의 고통에 빗대어 감각적으로 표현

393) 누나가 임신했다는 소문

394) 딸에 대한 소문에 가장 괴로워한 것은 어머니였음

395) 가족이 받는 고통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신의 감각과 결부시켜 표현

396) 다리가 나온 것을 보고 허벅지가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소문이 부풀려짐

397) 도둑질 했다는 누명은 쉽게 벗을 수 있지만, 임신했다는 소문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벗어나기 쉽지않다.

398) 누이(딸이) 임신했다는 소리

399) 누이에 대한 소문의 고통을 습진의 고통에 비유, 가족과 마음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악화되어가고있음을 나타냄

400) 동네 사람의 진물 같은 말 1. 아니 땀 굴뚝에 연기날까,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음

401) 동네 사람의 진물 같은 말 2. 어머니의 대응으로 마을사람들의 비난이 증폭됨

402) 누님의 상태가 심각함을 보여줌

403) 가족의 비극과 대비되는 일상적 자연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비극성을 증대 시키고 있다.

아버지는 머리가 많이 아픈 듯 끙끙 앓으면서 벌겍게 된 눈을 감은 채 안방에 드러누워 있었다. 404) 마찬가지로 여느 때 머리가 많이 아픈 어머니는 흰 수건을 질끈 동인 채 부엌방에서 두 발을 뺀고 주저앉아 방바닥을 때리며 울어 대고 있었다. 405) 나는 멍해지면서 옥신거리는 머리를 낮게 하기 위해 406) 병원에서 가져온 약을 먹고, 누님의 관을 생각하면서 마당으로 나왔다. 누님을 담아 간 관은 하루 전에 내린 눈같이 흰꽃으로 싸고 덮였었다.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었다. 내 귀로 직접 듣지 않았으므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아버지의 말로는 누님이 죽어 가면서 그렇게 해 달라고 말을 했다던 것이었다.

“아버지, 팔도 사방 돌아다녀 보시오. 나같이 천하게 산 처녀 있는가.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머슴같이 부리고 안 살았소? 두엄 여 나를 만큼 여 날랐고, 비료 푸대 이고 다니면서 뿌릴 만큼 뿌렸소. 가물 때면 밤새워 가면서 물도 댔소. 멀구 일었다, 이화명충 생겼다, 희새병 한다, 도열병 한다, 목도열병 한다, 배추밭에 벌거지 일었다, 깨밭에 뜨물 졌다, 도둑벌레가 고추나무 잘라 버린다……. 그래서 농약뿌릴 만큼은 뿌렸소. 407) 김매고, 풀 베고, 외양간의 두엄 끌어내고……. 나 시집갈 때, 뿔을 얼마나 잘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디여? 다 버리고 흰 꽃으로만 싸다가 묻어 주시오. 408) 뒷골, 우리 산밭 옆 당가지에 우묵해 가지고 반반한 잔디밭이 있어요. 가장자리 싸릿대는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그 속에다가 묻어 주시오.”

아버지는 마음이 변해 있었다. 여느 때 이마를 송곳으로 찢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라던 어른이었지만, 누님의 꽃 관 을 마련하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듯했었다. 409) 이웃집 큰년이네 아버지를 시켜 꽃 관과 더불어 눈 같이 흰 주검 옷까지도 사 오게 한 것이었다.

읍으로 나간 큰년이네 아버지가 바지계에 지고 오던 꽃 관을 생각하며, 나는 지붕 너머로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정 씨네 문중 산 중턱을 쳐다보았다. 410)

“독살스럽고 모진 에미 밑에서, 소 가는 데 말 가는 데 다 가고, 오빠 동생들 옷학교 보낸다고 못 입고 못 먹고, 411) 아이고!”

어머니가 부엌방에서 울어 대는 소리가 가슴을 쥐어질렀다. 나는 북극성 주변에 있는 먼지 알같이 작은 별 하나와 싸라기만큼 한 별 하나 412)를 바라보았다. 어느 해의 여름날 밤이던가, 평상 위에 누워서 모깃불 연기를 쫓으며 누님이,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단다.” 하던 것이었다. 머리 큰 사람이 죽으면은 큰 별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은 기껏 먼지나 싸라기만 한 별이 된다고 했었다. 그때 송알거리는 별밭을 쳐다보면서 나는 장차 주먹만 한 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호르호 하는 늑대 울음소리가 정 씨네 문중 산 중턱에서 들려왔다. 이날 밤에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는 영악스런 짐승의 울음소리답지 않았다. 그것은 봄날 밤에 앞 강둑의 버드나무 숲에서 들려오곤 하던 소쩍새 울음처럼 가느다랗고 맑았다.

404) 농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아버지의 모습

405) 농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어머니의 모습

406) 농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나’

407) 누님이 농약중독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이유 짐작 가능

408) 누님의 탄식

409)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참담한 심정

410) 주변의 배경, 어복고 무겁게 가라앉음. 나와 가족의 비통한 처지를 암시

411) 딸에게 모질게 했던 지난 날의 후회

412) 누이와의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

1. 갈래 : 중편 소설, 생태 소설
2. 성격 : 사실적, 비판적
3. 제재 : 1인칭 관찰자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혼용
4. 주제 : 농약중독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현실에 대한 비판

<표현상의 특징>

-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의도 드러냄
- 과거의 어린 '나의' 시점과 과거를 회상하는 현재 '나'의 시점을 섞어 사용

<내용상의 특징>

- 서술자로 어린아이를 내세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부각
- 농약 피해로 파괴되어 가는 가족의 이야기
- 생태 문학의 미학적 가능성을 보여줌

「완장」 - 윤홍길

“사람이 운수 불길해서 잠시 잠깐 이런 촌구석에 처백혀 있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시뻘⁴¹³ 보들 마시오!⁴¹⁴ 에이 여보 쇼들, 저수지 감시가 뭐요, 감시가! 내가 게우 오만 원짜리 ⁴¹⁵꼴머심⁴¹⁶ 폰수배끼 안 되는 것 같소? 나 임종술이, 이래 봐야도 왕년에는 사장님 소리까장 들어 본 사람이요!”⁴¹⁷

그것⁴¹⁸은 공연한 허풍 아닌 사실이었다. 『동대문의 시장 바닥에서 처음에는 목판⁴¹⁹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포장마차를 할 때라든지, 마지막으로 양키 물건에 손을 대기까지 종술은 그를 상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좌우간 사장님 소리를 곧잘 듣곤 했었다. 딸 하나를 낳아 놓고는 호남 지방의 야산 개발 사업이 한창일 무렵에 마을에 가끔 나타나던 측량 기사 보조원인지 뭔지 하고 눈이 맞아서 달아나 버린 마누라까지도 처음에는 자기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었다. 식도 안 올리고 살림부터 차린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그가 한때 단골로 드나들던 맥주홀이었다.』⁴²⁰

“『무작정 화를 낼 일만은 아니네. 사람이 과거는 어쨌을망정 시방은 사세⁴²¹에 따를 줄도 알아야 장차 또 늘품수⁴²²가 생기는 뱀이지. 안 그런가? 한번 자알 생각해 보소.』”⁴²³

지칠 줄 모르는 최 사장의 끈기에 힘입어 익삼 씨도 다시 설득에 나섰다.

“내가 자네라면은 나는 기왕 낚시질하는 집에 비단잉어에다 월급봉투를 암낭혀서⁴²⁴ 한목에 같이 낚어 올리겠네.⁴²⁵ 삽자루 들고 땅따기허는 배도 아니고 그냥 소일 삼어서 감시원 완장 차고 물 가상이⁴²⁶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완장요!”

그렇다. 완장 바로 그것이였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종술의 흥분한 머리를 무섭게 때려서 갑자기 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였다.⁴²⁷

“팔에다 차는 그 완장 말입니까?”

종술의 천치스런 질문⁴²⁸에 최 사장은 또다시 그 어울리지 않는 너털웃음⁴²⁹을 호탕하게 터뜨렸다.

“이 사람아, 팔 완장 말고 기저구맨치로 사추리*에다 차는 완장이라도 봤는가?”⁴³⁰

완장이라! 왼쪽 팔에다 끼고 다니는 그 완장 말이다!⁴³¹

413) 대수롭지 않게

414) 종술은 최사장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함

415) 저수지 감시원직의 거부 이유

416) 꼴머슴, 땀나무나 꼴을 베는 일을 하는 어린 머슴

417) 자신의 과거이력을 내세우며 시시한 일 (감시원직)을 하지 않겠다고 함, 자신의 과거 경력에 얽매어 있는 허황된 모습에서 해학성이 유발 됨

418) 사장님 소리를 들은 것

419) 음식을 담아 나르는 나무 그릇

420) 『 』, 종술과 종술 부인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

421) 일이 되어가는 형세

422) 늘품의 방언으로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질이나 품성

423)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최사장의 충고

424) ‘검하다’의 방언

425) 저수지에서 낚시질 하면서 월급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

426) ‘가장자리’의 방언

427) 완장아리는 말을 들은 종술의 흥분, 종술이 완장에 선망이 있음이 드러남

428) 종술의 어리석음

429) 최사장의 의문스러움 암시

430) 해학적 표현

본래 껌싼 432)데가 있는 최 사장이었다. 그는 우연히 튀어나온 완장이란 말에 놀랍게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종술의 허점을 간파하고는 쥐란 놈이 곳간 벽에 구멍을 뚫듯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433)

“종술이 자네가 원한다면 하얀 완장에다가 빨간 글씨로 감시원이라고 크막하게 써서 멋들어지게 채워 줄 작정이네.” 434)

고단했던 생애를 통하여 직접으로 간접으로 인연을 맺어 온 술한 완장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종술의 뇌리를 스쳤다. 완장의 나라 435), 완장에 얽힌 무수한 사연들로 점철된 완장의 역사가 너울거리는 치맛자락의 한끝을 슬쩍 벌려 바야흐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종술의 가슴을 유혹하고 있었다.

『시장 경비나 방법들의 눈을 피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판을 들고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끝없이 쫓겨다니던 시절, 도로 교통법 위반이다 뭐다 해서 걸핏하면 포장마차에 걸려 오던 시비와 단속들, 암거래 조직에 끼어들어 미군 부대나 양색시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건을 상인들한테 증계하던 시절, 그리고 똑같이 전매법과 관세법의 위반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조직과의 피나는 세력 다툼 끝에 상대편의 밀고로 뒤가 구린 미제 컬러텔레비전을 운반하다가 체포되어 특정 범죄의 가중 처벌을 몸으로 때우던 시절…….』 436)

어느 시기가 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 앞에는 언제나 완장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완장 앞에서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이였다. 완장 때문에 녹아나는 건 늘 제 쪽이였다. 제각각 색깔 다르고 글씨도 다른 그 술한 완장들에 그간 얼마나 많은 한을 품어 왔던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완장들을 얼마나 또 많이 선망해 왔던가. 437)

완장이란 말 한마디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자신을 종술은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다.

(중략)

“오매 시상에나, 니가 완장을 다 돌려야?”

“그깟 놈의 것, 쇠고랑 채울 권한도 없고 그냥 명예뿐인디요, 뭐.” 438)

너무도 놀란 나머지 운암택은 눈앞이 다 캄캄해 왔다. 처음 맛본 기쁨 439)이 마을 회관 옆 공동 수도 펌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나중에 느낀 놀라움 440)은 널금 저수지하고도 맞먹을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한 것이였다. 대체나 이 노릇을 어째야 옳단 말이나.

“너 그것 안 돌리고 감시원 헐 수는 없겠냐?”

당치도 않은 말쑤이였다. 순전히 완장의 매력 한 가지에 이끌려 말기로 한 감시원이였다. 그런데 그걸 두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아들더러 언제까지고 개망나니 먹고 대학생으로 그냥 세월을 보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로였다.

“에이 참, 엄니도! 엄니는 동네서 사람대접 조개 받고 살라고 그러는 아들이 그렇게도 여영 못마땅하요?”

“돌아가신 낭반 441) 생각이 나서 안 그러냐.”

아버지 말이 나오는 바람에 종술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의 심정을 대강은 이해할 것 같았다. 하지만…….

“완장이라면 사족 442)을 못 쓰는 것도 다아 지 핏줄 탓인갑다.”

“그 완장하고 이 완장은 엄연히 승질부터가 달르단 말이요!” 443)

훗김에 종술은 그예 또 몽니 444)를 부리고 말았다. 새 출발이 약속된 날, 그 삼삼한 기분에 걸맞게 모처럼 어머니 앞에서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자고 단단히 작정한 바 있었으나 케케묵은 생각으로 아들의 흥을 산산조각 내는 데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431)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심리를 드러냄

432) 동작이 빠르고 날랜, 여기서는 눈치가 빠르다는 뜻

433) 종술의 욕구를 자극해서 원하는 바를 얻고자하는 모습

434) 종술이 원하는 바를 간파

435) 절대적 힘을 가진 권력이 지배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비판

436) 종술의 과거 요약적 제시

437) 완장에 대한 종술의 이중적 감정

438) 으스대는 종술

439) 종술의 취직에 대한 기쁨

440) 종술이 완장을 찬다는 것에 대한 걱정

441) 종술의 아버지는 6·25 전쟁 당시 인민군의 편에서 완장을 휘두르다 사람들에게 맞아 죽음

442) ‘사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규범 표기는 ‘사족’이다.

443) 어머니 운암택의 말에 서운함을 느끼는 종술

444) 받고자 하는 대우를 못받을 때 내는 심술

*사추리: 두 다리의 사이.

1. 갈래 : 장편소설, 세태소설
2. 성격 : 풍자적, 희화적, 해학적, 향토적
3. 시점 :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4. 주제 : 권의 횡포에 대한 비판과 고발

<표현상의 특징>

- ‘완장’이라는 상징을 통해 권력이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해 왔는가를 반성하게 한다.
- 권력의 의미와 그 남용이 가져오는 폐해를 향토적 입담과 해학적 표현을 통해 형상화
- ‘완장’같은 상징적 기호로 모든 사람에게 은밀하게 진짜 권력을 휘두르는 상층 권력자들의 횡포를 은연중에 비판
- 남도 방언을 잘 살려 쓴 작가의 입담과 해학은 전통 패관문학이 담고 있었던 한국 문학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 준다

<내용상의 특징>

- 한국전쟁 이후 정치권력의 폭력성과 보통 사람들의 암울한 삶을 해학적 필치로 그려냄
- 폭력의 의미를 풍자적으로 접근

「만무방」 - 김유정

[앞부분 줄거리] 응칠은 성실하게 농사를 했지만 쌓여 가는 빚을 이기지 못해 아내와 헤어지고 유랑민이 된다.⁴⁴⁵⁾ 응칠은 그리운 마음에 성실한 농부인 아우 응오를 찾아오게 되고 응오가 논의 벼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것⁴⁴⁶⁾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⁴⁴⁷⁾ 한 해 동안 애를 즐기며 혼자 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거둬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새벽부터 옛, 옛,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조*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⁴⁴⁸⁾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 주던 동무들이 뻘히 보고 섰는데 빈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없기⁴⁴⁹⁾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참다 응오는 눈에 눈물⁴⁵⁰⁾이 흘렀던 것이다.⁴⁵¹⁾

가뜩이나데 얹치고 덮치더라고 올해는 고나마 흉작이었다.⁴⁵²⁾ 셋바람⁴⁵³⁾과 비에 벼는 깨개⁴⁵⁴⁾ 배틀렸다. 이놈을 가을 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빚도 다 못 가릴 모양.⁴⁵⁵⁾ 예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⁴⁵⁶⁾,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벼를 거뒀다고 말만 나면 빚쟁이들은 우 몰려들거니깐 -

응칠이의 죄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으로⁴⁵⁷⁾ 가만만 있었으면 좋은 걸 이 사품⁴⁵⁸⁾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칠이었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만치⁴⁵⁹⁾ 어지간히 속이 트인⁴⁶⁰⁾ 건달이었다. 지주를 만나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⁴⁶¹⁾이니 도지도 좀 감해 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암말 없이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일 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놈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벼는 넉넉히 거둬들일 수는 있다. 마는 한번 버릇을 잘못해 놓으면 여느 작인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겉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였다⁴⁶²⁾. 실상이야 고까짓 벼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 그 심보를 눈치채고 응칠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귀신의 놀음 같은 변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쪽정이는 젓혀 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말짱 이삭만 따 갔다. 그 면적으로 어렵하면 아마 못 돼도 한 뼛 말가량은 될는지 -

응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께로 노닐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하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하나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로 보든 혐의를 받아 폐는 좋지 입어야 될 것이다.⁴⁶³⁾

응칠이는 송이도 송이려니와 실상은 궁리에 바빴다. 속중으로 지목 갈 만한 놈을 여럿 들어 보았으나 이렇다 짚을 만한 증거가 없다. 어쩌면 재성이나 성팔이 이 둘 중의 짓이리라, 하고 결국 이렇게 생각든 것도 응칠이가 아니면 안

445) 가족이 해체되고 이주 및 유랑하는 농촌의 비극적 현실

446) 응오가 벼를 추수하지 않은 것

447) 서술자의 개입

448) 추수해서 소작료와 이출 ㄹ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 당시 농촌의 불합리성

449) 화가나면서도 부끄럽다

450)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좌절과 슬픔

451) 수확이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감, 응오의 심리를 서술자가 제시

452)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상황

453) 동풍

454) 몹시 여위어 마름

455) 응오가 추수하지 않은 이유

456) 응오의 말을 인용하여 응오의 내면(자포자기(自暴自棄) 제시

457) 제 생긴 그대로, 자기 주제에 맞게

458) 어떤 동작이나 일이 진행되는 바람이나 겨를

459) 여러 곳을 다니며 경험을 쌓은 만큼

460) 마음이 넓고 대범하다

461) 절반가량 잃거나 손해를 봄.

462) 소작농의 사정을 봐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서도 소작농들을 통제하기 위해 봐주지 않는 지주의 몰인정한 모습

463) 응칠이가 응오의 논에서 벼를 훔쳐간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중 하나

될 것이다. /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⁴⁶⁴⁾

응칠이는 저의 짐작이 들어맞음을 알고 당장에 일을 낼 듯이 성팔이의 눈을 드리 노렸다.

성팔이는 신이 나서 떠들다가 그 눈총에 어이가 질리어 고만 병병하였다. 그리고 얼굴이 해쓱하여 마주 대고 쳐다보더니,

“그래, 자네 왜 그케 노하나. 지내다 보니깐 그렇길래 일테면 자네 보구 얘가지 뭐…….”

하고 뒷갈망을 못 하여 우물쭈물한다. / “노하긴 누가 노해 —”

응칠이는 빠팅겼던 몸에 좀 더 힘을 올리며, / “응고개를 어째 갔더냐 말이지?”⁴⁶⁵⁾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우연히…….” / “놀러 갔다. 거기가 노는 덴가?”

“글쎄, 그렇게까지 물을 게 뭐가. 난 응고개 아니라 서울은 못 갈 사람인가.”

하다가 성팔이는 속이 타는지 코로 호흡, 하고 날숨을 길게 뿜는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더 물을 필요가 없었다.⁴⁶⁶⁾ 성팔이란 놈도 여간내기가 아니요⁴⁶⁷⁾ 구장네 솔인가 뭐가 떼다 먹고 한 번 다녀온 놈이었다. ⁴⁶⁸⁾ 많이 사귀지는 못했으나 동리 평판이 그놈과 같이 다니다가는 엉뚱한 일 만난다⁴⁶⁹⁾ 한다. 이번에 응칠이 저 역시 그 섭수*에 걸렸음을 알고,

“그야 응고개라구 못 갈 리 없을 테 —”

하고 한번 엇먹다*, 그러나 자네두 아다시퍼 거 어디야, 거기 바로 길이 있다든지, 사람 사는 동리라면 혹 모른다 하지 마는 성한 사람이야 응고개엘 뭘 먹으러 가나⁴⁷⁰⁾, 그렇지 자네야 심심하니까, 하고 앞을 짹짹 등을 떠본다.

(중략)

응칠이는 논개로 바특이⁴⁷¹⁾ 내려서서 소나무에 몸을 착 붙였다. 선불리 서둘다간 낮의 횡액⁴⁷²⁾을 입을지도 모른다. 다 훔쳐 가지고 나올 때만 기다린다.

몽둥이는 잔뜩 힘을 올린다.

한 식경⁴⁷³⁾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서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형겅이 가렸다. 붓짐을 등에 짊어 메고는 허리를 구부러 뺑손을 놓는다. 그러나 응칠이가 날쌔게 달려들며, / “이 자식, 남의 벼를 훔쳐 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탈음을 지르니 논둑으로 고대로 데굴데굴 굴러서 떨어진다.⁴⁷⁴⁾ 얼결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었다.

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띠를 내려 조졌다. 어이쿠쿠, 쿠, —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띄어⁴⁷⁵⁾ 그 고개를 들고 팔⁴⁷⁶⁾부터 벗겨 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견으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⁴⁷⁷⁾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똥맞은⁴⁷⁸⁾ 바람만 공중에서 복새*를 논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⁴⁷⁹⁾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핵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붓짐도 내버린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 하고 되통스러이⁴⁸⁰⁾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464) 성팔이를 만난 응오의 심정

465) 성팔이를 도둑으로 의심

466) 성팔이의 말과 행동으로 성팔이의 짓으로 확신

467) 서역의 직접제시

468) 교도소를 다녀온 전과가 있다는 뜻

469) 성팔이가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하여 같이 다니면 덩달아 오해를 받을 수 있다

470) 동생 응오가 벼를 잃은 응고개는 외진 곳에 있음

471) 조금 가깝게

472) 뜻밖에 닥쳐오는 불행

473) 밥을 먹을 동안이라는 뜻으로 잠깐 동안

474) 응칠이의 고탈소리의 놀라 넘어지는 어리숙한 도둑(응오)의 모습

475) 비명소리를 듣고 깜짝 놀람, 아는 목소리임

476) 얼굴을 가린 형겅

477) 범인의 정체를 확인하고 응칠이는 충격을 받음

478) 말이나 하는 짓이 당돌하고 독살스럽다

479) 동생인 응오

형은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⁴⁸¹⁾ 그러다 얼마 지나서 한 손으로 그 붓짐⁴⁸²⁾을 들어 본다. 가뿐하니 깍⁴⁸³⁾ 말가웃⁴⁸⁴⁾이나 될는지. 이까짓 걸 요렇게까지 해 가려는 그 심정은 실로 알 수 없다.⁴⁸⁵⁾ 벼를 논에다 도로 털어 버렸다. 그리고 아내의 치마이겠지, 검은 보자기를 척척 개서 들었다. 내 걸 내가 먹는다— 그야 이를 말이라. 허나 내 걸 내가 훔쳐야 할 그 운명⁴⁸⁶⁾도 알것거니와 형을 배반하고 이 짓을 벌인 아우도 아우이렷다.⁴⁸⁷⁾ 에—이 고연 놈,⁴⁸⁸⁾ 할 제 볼을 적시는 것은 눈물이다.

- *도지: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논밭을 빌린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 *색조: 세곡이나 환곡을 받을 때나 타작할 때에 정부나 지주가 더 받던 곡식.
- *가을하다: 농작물 따위를 거두어들이다.
- *섭수: '수단'의 방언. '수단'은 일을 처리하여 나가는 솜씨와 께.
- *엇먹다: 사리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비꼬다.
- *복새: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일.

1. 갈래 : 단편소설
2. 성격 : 반어적 현실 비판적, 해학적, 풍자적, 토속적
3. 시점 :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4. 주제 : 식민지 농촌의 피폐함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인간군상의 비극

<표현상의 특징>

-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교차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함.
- 토속어와 의성어, 의태어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이나 응찰이의 시선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전개함.
- 상황의 아이러니 기법을 사용하여 소작인들의 궁핍상을 그려냄
- 절정 부분에서의 반전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됨

<내용상의 특징>

- 형제가 차례로 만무방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통해 일제 강점기 당시의 불합리한 농촌 현실을 비판함
- 모범 농군이 도둑이라는 모순된 상황을 통하여 일제 식민지 시대의 농촌 현실이 갖는 비극성을 포출
- '응오'의 현실을 통해 작가는 바로 모든 사람을 '만무방'으로 만들어 버리는 식민지 농촌 사회의 모순 비판

480) 말과 행동이 거칠고 미련한데가 있는
 481) 도둑이 응오임을 알고 기가 막혀하는 응찰의 모습
 482) 훔친 벼
 483) 겨우
 484) 한말 반쯤의 분량, 얼마 안되는 양
 485) 얼마 안되는 벼를 훔치려는 아우에 대한 안타까움
 486) 상식보다 비상식이일상의 삶을 지배하는 당대 농촌 현실.
 487) 형이 의심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저지름
 488) 동생에 대한 연민을 반어적으로 표현

이재수의 난 - 현기영 원작/박광수 외 각색

S# 72. 제주성 안 교당 (낮)

채 군수: (벌떡 성을 내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관장의 허락도 없이 무기고를 열다니 요⁴⁸⁹ 이곳 제주는 엄연히 대한 제국의 영토입니다.

구 신부: (못마땅한 얼굴로) 사또께선 무얼 하시는 분이오? 진작에 해산되었어야 할 폭도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⁴⁹⁰도 못 들었소?

채 군수: 그거야 교당 측이 무장도 하지 않은 민당들을 습격한 것⁴⁹¹ 때문 아니오? 화해를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서 그런 법이 어디 있소?⁴⁹²

▶ 구 신부 측의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채군수

최 선달: (발끈하여) 아니 사또 나으리, 난리를 진압할 책임이야 실은 사또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또가 못하시니까 우리가 대신 나선 것을 이제 와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⁴⁹³

채 군수: (성을 내며) 이놈! 군마로 관부를 범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 목을 베라 하였다. ⁴⁹⁴대정군 관아를 난장 박살 낸 게 니놈이 한 짓인 줄 모를 줄 아느냐!

▶ 문제 상황의 책임을 채 군수에게 전가하는 최 선달

구 신부: (꾸짖는 태도로) 최 선달!⁴⁹⁵

최 선달: 죄송합니다. 신부님.⁴⁹⁶

구 신부: 사또 너무 쾌념치 마시오. 어쩔거나 난리를 진압 못한 죄로 관직을 삭탈당할 뻔한 걸 우리가 구해준 셈 아니 오. 그러니 과거사는 묻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가 협력해야 하오.⁴⁹⁷ 폭도들이 동서 양진으로 나뉘 며칠 후면 이곳으로 들이닥칠 거라 하는데 그 무지한 것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떠난 김 군수마저 감감무소식입니다. 나는 나대로 법국 군함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 놓았으니⁴⁹⁸ 사또께서도 뭔가 할 일을 찾아보셔야 하지 않겠소?

채 군수: (단호하게) 구 신부! 그것만은 안 됩니다. 법국 군대가 제주섬에 들어오는 날엔 피아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닙니까?⁴⁹⁹

▶ 채 군수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구 신부

(중략)

S# 83. 군막 안

채 군수: 놈들이 명월진에서 한 짓을 생각하면 불이라도 삼키고 싶겠지만, 생각해 보시오. 신부들이 벌써 법국 군함과 군대를 부르러 보냈는데, 그들이 이 섬에 들어오는 날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소? 작년 청국에서 의화단 사람들이 성교 신부들과 신자들을 살해했다가 어떤 결말이 났는지를.⁵⁰⁰ 『법국이여 서양각국들이 제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답시고, 군대를 보내 대량 살육을 하고 급기야는 땅과 이윤을 차지한다고 청국을 갈라 먹고 있지 않소.』⁵⁰¹ 법국 함대가 지금 태고*에 있는데 삼 일이면 제주에 도착한다고 합니다.⁵⁰²

마찬삼: 사또, 우리가 싸우지 않고 물러간다고 이 섬이 온전할 성싶소?⁵⁰³ 저 폭도들을 그냥 두면 이 섬은 온통 법국 천지가 될 거외다. 우리가 안 싸워도 법국 세상이요, 싸워도 법국 세상이라면 우린 싸워서 원뿔이를 해야 하겠소

489) 공권력의 약화와 외세의 침탈이 있음을 보여줌.

490)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외부 요인으로 화제를 전환함.

491) 문제 상황의 본질적인 원인이 구 신부 측의 행동에 있음을 지적함.

492) 구 신부 측이 백성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했음을 비판함.

493) ①공권력이 약해진 현실을 나타냄. ② 채 군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문제 상황의 원이라고 지적함.

494) 법으로 상대방의 비판을 반박하지만, 실제로는 공적 권위인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

495) 겉으로는 채 군수의 권위를 존중함.

496) '채 군수'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약화를 재확인해 줌.

497) 현실적인 상황을 이유로 상호 간에 협력할 것을 제안함.

498) 민란을 빌미로 외세가 침입할 빌미가 생김.

499) 외세의 침탈로 인한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함.

500) 법국 군대의 침입의 우려를 과거의 본보기를 들어 나타냄.

501) 『』: 국제 정세를 들어 제국주의적 침탈이 만연한 현실을 지적함.

502)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함.

503) 법국 군대의 침탈이 민란과는 관계없이 자행될 것임을 예측함.

이다.⁵⁰⁴) 제주성 동쪽에 진을 친 동진의 강우백 장두* 어른도 우리와 같은 생각입니다.

오달문: 사또 어른, 왜 법국 군함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미 피를 본 백성들은 눈이 뒤집혀 있습니다. 저 백성들을 통솔하자면 똑같이 눈알이 뒤집혀야 합니다.

▶ 외세와 외세에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저항할 의지를 굽히지 않는 민란세력

채 군수는 한숨을 내쉬며 이재수를 바라본다.⁵⁰⁵)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재수. 채 군수는 답답한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개를 들어 채 군수를 쳐다보는 이재수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다.⁵⁰⁶) 이재수는 채 군수의 발치로 와 무릎을 꿇는다.⁵⁰⁷)

이재수: 채 군수 어른, 소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채 군수: 아니 왜 이러시오?

이재수: 미천한 소인이 군수 어른께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감히 장두로 나섰습니다.

채 군수: (이재수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⁵⁰⁸) 일어나시게, 자네는 이미 내 종복이 아닐세. 장두가 이러면 되겠나.

마찬삼: 이 장두 어서 일어나시게. 자네는 장두가 아닌가.

하지만 제자리에 꼼짝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재수.

이재수: 채 군수 어른. 관노(官奴)인 소인이 비천한 신분으로 장두에 나선 것은 짧은 객기가 영웅 소릴 듣고 뜬 야욕 때문이 아니었다. 죽지 못해 사는 우리 백성들을 보셔서.⁵⁰⁹) 성을 공격하면 지금 당장은 피를 보겠지만, 이대로 흘러진다면 자자손손 더욱 많은 피를 볼 것이우다.⁵¹⁰) 소인은 불쌍한 제주민들이 이번 난리로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이 미천한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거우다.

이재수의 목소리는 점점 울음 섞인 고통의 소리로 변해 가고,⁵¹¹) 내려다보는 채 군수의 눈도 붉게 충혈된다.⁵¹²)

- 현기영 원작 / 박광수 외 각색, 「이재수의 난」

*태고: 따구. 북경과 천진으로 가는 입구가 되는 향구. 의화단의 난 때 서양 군대가 집결한 지역.

*장두: 예전에, 여러 사람이 서명한 소장(訴狀)이나 청원장(請願狀)의 맨 첫머리에 이름을 적는 사람.

1. 갈래 : 시나리오
2. 배경 : 시간-1901년, 공간-제주도
3. 제재 : 실제 사건인 이재수의 난
4. 주제 : 이재수의 항쟁과 좌절.

<특징>

- 대화를 통한 인물들의 상황 제시.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줌.

- 갈등 : S#72의 갈등양상 : 채 군수 ↔ 구 신부 (외세의 개입에 따른 이견)

S#82 채 군수(외세의 개입에 따른 피해를 걱정함) ↔ 마찬가지로 투쟁과 희생이 불가피함을 강조함.)

504) 외세의 침탈에 대한 대항 의지를 밝힘.

505) 제주민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걱정하는 채 군수

506) 채 군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면에서 이재수의 인간적인 면모가 나타남.

507) 채 군수에게 예의를 지키며 의견을 토로하는 이재수.

508) 이재수와 그 무리의 뜻에 대한 존중을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보여줌.

509) 심각한 수탈에 고통당하는 민중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나타냄.

510) 부당한 대우를 후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 민란을 일으킨 것임을 밝힘.

511) 막중한 책임감과 부당한 현실의 고통으로 인한 슬픔.

512) 제주민의 상황을 이해하고 가련하게 생각하는 채 군수.

「결혼」 - 이강백

여자: 왜 난폭한 하인을 그냥 두시죠? 당장 해고하세요.

남자: 하인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⁵¹³⁾

여자: 그냥 두시니까 자꾸 빼앗기잖아요.

남자: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되돌려 주는 겁니다.⁵¹⁴⁾

여자: 당신은 너무 착하세요.⁵¹⁵⁾

남자: 글썄요, 내가 착한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태도 하나만은 분명히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되돌려 주면서도 당신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습시다. 아니, 즐기는커녕 오히려 불어나고 있습니다.⁵¹⁶⁾ 아, 나의 천사님, 아니 덤이여! 구두와 넥타이와 모자와 자질구레한 소지품과 그리고

옷에 대해서 내 사랑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로지 당신 하나에로만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내 청혼을 받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인, 돌아와서 두 남녀에게 우뚝 선다.

여자: 어마, 또 왔어요!

남자: 염려 마십시오. 나도 이제 그의 의무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⁵¹⁷⁾

여자: 그의 의무? 의무가 뭐죠?

남자: 내가 빌린 물건들을 이 하인은 주인에게 가져다주는 겁니다.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여자: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남자: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지요.

여자: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⁵¹⁸⁾

남자: 내 것이라곤 없습니다.

여자: (충격을 받는다.)

남자: 모두 빌린 것들뿐이었지요. 저기 두동실 떠 있는 달님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하늬바람도, 그리고 어쩌면 여기 있는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⁵¹⁹⁾ (미소를 짓고) 잠시 빌린 겁니다.

여자: 잠시 빌렸다고요?

남자: 네. 그렇습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⁵²⁰⁾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는다. 그 구둣발로 차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남자: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여자: ……아, 어쩌면 좋아?

513) 자신의 의무를 다한 하인을 두둔함

514)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실천에 옮김

515) 남자의 실체를 아직 파악하지 못함

516) 역설적 표현 : 물질적 가치를 포기하면서 더 커지는 정신적인 가치

517) 더 이상 물질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의미

518) 남자의 실상을 알아차림

519) 자연물을 빗대어 세상의 모든 것은 빌린 것이라고 표현함.

520) 남자를 쫓아내기 위한 소품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신는다.⁵²¹⁾

여자: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남자: 글썽 그건……. (탁상 위의 사진들을 쓸어 모아 여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보여 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 장입니다. 젊을 때 한 장, 그다음에 한 장, 늙구 나서 한 장.⁵²²⁾ 당신 어머니도 이해할 겁니다.

여자: 이해 못 하실 걸요, 어머니. (천천히 슬프고 낙담해서 사진들을 핸드백 속에 담는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 나간다.

남자: 잠깐만요, 덤…….

여자: (멈칫 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남자: 가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여자: (침묵)

남자: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 봐요.

여자: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⁵²³⁾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남자: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줘야했습니다.⁵²⁴⁾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구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 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⁵²⁵⁾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구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석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⁵²⁶⁾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셨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남자: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넥타이를 빌렸었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 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소? 마구 험하게 했었소? 어딜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 드렸지요.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⁵²⁷⁾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⁵²⁸⁾ 덤!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덤!

남자, 하인의 구두발에 걸어차인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⁵²⁹⁾

521) 긴장감을 고조시킴

522) 여성의 인생을 상징함

523) 남자를 이해하기에 미워하지 않음

524) 진정한 소유의 의미

525) 인간은 모든 만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음

526) 작품의 실험적 기법

527) 『』 관객을 참여시킴으로써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

528) 남자의 헌신적인 사랑

529) 여자가 행동으로 남자를 동정하는 마음을 표현됨

여자: 그만해요!

남자: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여자: 그래요! 당신 아니구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⁵³⁰⁾

남자: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둣발에 차이기 전에!

여자: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다던데…….

남자: 자아, 빨리 갑시다!

여자: 네, 어서 가요!

1. 갈래 : 희곡
2. 성격 : 비판적, 풍자적
3. 배경 : 어느 저택의 응접실
4. 제재 : 어느 가난한 남자의 결혼담
5. 주제 : 소유의 본질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

< 특징 >

- 무대 장치가 매우 단순함
- 관객의 소지품들을 소품으로 활용하고, 관객을 극중 안으로 끌어들이는 등 실험적인 기법을 사용함.
-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빌린 것'이라는 설정으로 진정한 소유의 의미를 표현함

530)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여자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신영복

오늘은 당신⁵³¹⁾이 가르쳐 준 태백산맥 속의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⁵³²⁾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風霜)⁵³³⁾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 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였습니다.⁵³⁴⁾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⁵³⁵⁾과는 달리 오직 ‘신발한 켈레의 토지’⁵³⁶⁾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⁵³⁷⁾이 충격이고 경이였습니다.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광리의 솔숲⁵³⁸⁾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⁵³⁹⁾ 같았습니다.⁵⁴⁰⁾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려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⁵⁴¹⁾.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⁵⁴²⁾ 『사실 서울에서는 그⁵⁴³⁾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⁵⁴⁴⁾ 언젠가 경복궁 복원 공사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한 조선정궁의 기본 궁제(宮制)⁵⁴⁵⁾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광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⁵⁴⁶⁾을 반성하게 됩니다.』⁵⁴⁷⁾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⁵⁴⁸⁾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 백만 년의 세월⁵⁴⁹⁾을 잘라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 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⁵⁵⁰⁾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 내고 있는가 하면 ⁵⁵¹⁾아예 사람을 잘라 내는 일⁵⁵²⁾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⁵⁵³⁾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 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⁵⁵⁴⁾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⁵⁵⁵⁾이 이 소광리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합니다.

산판일⁵⁵⁶⁾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 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린

531) 엽서를 받는 대상, 독자 혹은 그 밖의 특정대상.

532) 편지글 형식, 독자의 흥미를 유발과 소통 가능

533) 바람과 서리, 세상의 어려움과 고생을 비유

534) 묵묵히 오랜 세월을 견뎌온 나무에게 느끼는 감탄과 경외감

535) 나무와 대조되는 존재

536)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협소한 땅

537) 인간과 대조되는 존재

538) 화자가 성찰하게 되는 매개

539) 소광리의 솔숲

540)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깨달음과 교훈을 줌

541) 별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뜻

542) 소나무도 아름답고 가치있다는 의미

543) 별 또는 소나무

544) 『 』, 현실 비판적 태도

545) 궁궐의 형태

546) 경복궁 복원이 당연하다는 생각

547) 경복궁 복원 공사에 대한 비판적 생각과 소나무를 베는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성찰

548) 인간의 욕심으로 소나무를 잘라내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

549) 시련을 이겨낸 소나무의 세월, 삶의 역사를 잘라 내는 것과 같음

550) 현실에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파괴되는 것들로 확장

551) 인간의 이기심으로 자연을 파괴

552) 사람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세태 비판

553) 생산없이 소비만 하는 인간 비판

554) 폭력적 소비의 주체에서 소비의 대상이 되어 소비에 매몰된 인간 비판

555) 자연을 생산요소로만 생각하는 인간비판, 뒤이은 ‘아카시아와 활엽수’ 연관

556) 벌목등을 하는 곳에서 나무를 베어 내는 일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⁵⁵⁷⁾ 은 산천⁵⁵⁸⁾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 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⁵⁵⁹⁾『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⁵⁶⁰⁾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 하였습니다.』⁵⁶¹⁾ 그리고 그 무덤 속의 한을 달래 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솔바람입니다. 솔바람만이 아니라 솔빛·솔향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高節)⁵⁶²⁾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금강송의 곧은 등치⁵⁶³⁾에서뿐만 아니라 암석지의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곧은 지조⁵⁶⁴⁾를 읽어 낼 줄 압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⁵⁶⁵⁾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가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⁵⁶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⁵⁶⁷⁾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 있을 당신⁵⁶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의 소나무⁵⁶⁹⁾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⁵⁷⁰⁾을 달고 있다』⁵⁷¹⁾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⁵⁷²⁾해 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활엽수⁵⁷³⁾의 침습(侵襲)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 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 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⁵⁷⁴⁾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⁵⁷⁵⁾처럼 산을 나왔습니다.』⁵⁷⁶⁾ 솔방울 한 개를 주워 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⁵⁷⁷⁾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⁵⁷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⁵⁷⁹⁾을 신뢰해야 합니다.

1. 갈래 : 현대 수필, 서간체 수필
2. 성격 : 비판적, 사색적, 성찰적, 반성적
3. 제재 : 소광리 소나무 숲의 소나무
4. 주제 : 이기심과 욕구를 위해 무차별적 소비를 하는 현대인들 비판, 현대 사회의 비정한 세태 비판

<표현상의 특징>

557) 설의법 (자연을 파괴하면 그 피해가 인간에게도 미침)

558) 대유법 (자연)

559) 의인화

560) 부정(不淨)을 막기 위해 문이나 길등에 매는 새끼줄

561) 『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귀적에 소나무의 자취가 있음

562) 높은 절개

563) 큰 나무의 밑둥

564) 뒤이은 오늘날의 상품미학과 대조되는 가치

565) 고절과 지조의 상징인 소나무와는 대조적인 소비 대상으로서의 가치

566)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대상 (온갖 풍상을 이겨낸 강인함과 소비에 매몰 되지 않은 높은 절개를 지닌 사람)

567) 소나무 같은 사람

568) 도시의 소비 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

569) 소비적인 도시 문명에 힘겨워 하는 소나무들

570) 소나무의 의지, 싹을 틔우려는 희망

571) 『 』, 도시에 있는 소나무들이 자연 속 소나무 보다 솔방울이 많다

572) 자연이 파괴됨

573) 소나무와 생존을 경쟁하는 나무, ‘경제학의 폭력성’ 상징

574) 무한경쟁에 처해 있는 인간 사회의 문제점 (경제학의 폭력성)

575) 솔숲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반성하는 글쓴이

576) 『 』, 첫 번째 문단에서 ‘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과 유기적으로 연결

577) 디오니소스 관련된 그리스신화

578) 소나무의 후손, 생명력

579) 재생의 상징

- 경어체 및 서간체(편지글) 형식으로 서술하여 독자에게 흥미와 친근감 유발
- 독자를 '당신' 이라는 2인칭 대상으로 설정해 작가와 독자간의 거리를 좁힘
-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내용상의 특징>

-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 세상으로 확장하고 있음
- 평범한 소재인 '소나무'를 사용하여 자신의 가치관과 깨달음을 전달
- 소비에 매몰된 인간과 대조적인 존재로 '소나무'를 설정하여 성찰을 하게 함
- 구체적인 체험을 제시하여 현대 사회를 비판
-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

「산돼지」 - 김우진

[앞부분 줄거리] 동학군으로 활약하다가 죽은 아버지를 둔 최원봉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의 친구 최 주사 부부에 의해 양육된다. 최 주사는 죽으면서 아내에게 딸 영순과 원봉을 혼인시키라는 유언을 남긴다. 원봉은 청년회 상무 간사로서 바자회의 수익금을 유용해 청년회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상태에서 이를 덮어 주려는 친구 차혁과 말다툼을 하게 되고, 애인 정숙을 떨쳐내는 과정에서 '산돼지'라는 별명을 얻고 몽환병을 앓는다. 그런데 최 주사댁은 영순에 대한 애정 때문에 남편의 유언을 비밀에 부쳐 두고 영순을 차혁과 혼인시키려고 한다. 원봉은 영순이 친동생이 아님을 알고 있는데 반해 영순은 원봉을 친오빠로 알고 있다. 원봉은 꿈속에서 병정에게 맞아 거꾸러지는 어머니를 본다.⁵⁸⁰⁾

최 주사댁: (들어와 일으켜 주며) 아, 불쌍해! 가엾어라! 못 일어나겠니?⁵⁸¹⁾

원봉: 어머니! 왜 이 모양으로 나를 내놓았소? ^{582)산돼지 한 마리⁵⁸³⁾} 내놓으면 무슨 극락세계로나 갈 줄 알았소?

최 주사댁: 온몸이 아프니? 옆구리가 그리도 아프니? 그 무지막지한 병정 놈이 널 차 내부쳤구나! ^{584)염라국으로 쫓아 보낼 녀석 같으니!} 오, 불쌍한 원봉아!

원봉: 당신한테서 불쌍하단 소리 듣기 싫어요! 무슨 심정으로 날 내놓았느냐 말어요! 대답 좀 해요!

최 주사댁: 내가 어찌 아니? 내가 어찌 알 수가 있니? 영순이 어머니인 내가!⁵⁸⁵⁾

원봉: (놀라며)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갔소? 우리 어머니 찾아 주오.⁵⁸⁶⁾

최 주사댁: 내가 어떻게 아니. 영순이 어머니인 내가!

원봉: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소? 그것이나마 찾아 주오.

최 주사댁: 내가 어떻게 아니. 영순의 어머니인 내가!

원봉: 당신⁵⁸⁷⁾은 언제까지 날 그렇게 속일 작정이요?

최 주사댁: (가슴을 쥐며) 그 말을 내 입에서 듣구 싶거든 이 가슴을 칼로 찍어 낸 뒤에 다시 물어보려무나!⁵⁸⁸⁾

원봉: 그러면 영순이더러 물어보겠소. 개는 날 사랑하니까. (영순이 나와서 어린애처럼 철모르는 얼굴을 해가지고 쳐다 본다.) 영순아, 너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영순: 오빠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있긴. 여기 계시지 않아요.⁵⁸⁹⁾

최 주사댁: (둘이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얘들아, 그게 무슨 짓이니?⁵⁹⁰⁾

원봉: (영순을 입 맞춰 주며) 너 어머니⁵⁹¹⁾가 저렇게 날 어린애로 대접하니까 어디 어머니 정이 들어오니? 너는 내 동생이지, 내 동생. 아 변치 않는 내 동생! 내 동생!

영순: 오빠! 정숙⁵⁹²⁾이란 년한테 굶힌 오빠 가슴은 내가 꼭 낫게 해 드릴 테예요. 이 몸이 녹아서 녹아서 백번이라도 녹아서 옛날 임금님의 발에 발라 드리던 몰약이 되는 것도 사양치 않고! 불쌍한 오빠!⁵⁹³⁾

원봉: 아, 영원을 잊어버렸던 산돼지 눈에도 눈물이 나오는구나.⁵⁹⁴⁾

최 주사댁: 원봉아, 내 말 곧이듣고 참아라. 내 말 곧이듣고. 이 애 어미 되는 내 말을 곧이듣고.

영순: 어머니 말도 곧이들어 줘야 해요. 네, 오빠!

원봉: 당신한테 아무 관계없는 내게다 그게 무슨 염치없는 말솜씨요?⁵⁹⁵⁾

580) 원봉은 꿈을 통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깨어난 후에 주변 인물과 겪었던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다.

581) 원봉에 대한 최주사댁의 애정

582) 자신을 왜 태어나게 했냐는 뜻

583) 자기 비하

584) 몽환적, 비현실적 원봉이 꿈에서 겪은일을 최주사댁이 알 리가 없을 터임에도 아는 것으로 되어있음

585) 자신을 친어머니로 대해주지 않는 원봉에게 서운함

586) 꿈에서의 내용이 현실에도 영향을 미침

587) 최주사댁에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

588)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만큼 가슴이 아픈일임을 나타냄

589) 영순은 최주사댁이 원봉이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

590) 원봉과 친딸인 영순이 남매이상으로 가까워 지는 것을 원치 않음

591) 최주사댁에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

592) 원봉의 전 애인

593) 사랑에 실패한 원봉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는 영순

594) 영순의 애정에 감동

최 주사댁: 영순아, 어서 나가 봐라. 너나 내 말 곧이들어 다오. 혁이가 와 기다리고 있다.

원봉: (영순을 안고 안 놓으며) 혁이? 그놈은 연한 살에 고름과 마찬가지로 596)이런 순결한 애를 당신 딸이라면서 왜 중히 여기지 않소? 끓이지 않고, 옷 안 벗기고, 아들딸 많이 낳게만 만들면 597)그만 될 것 같소? 이 애는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순결하고도 깨끗해요. 여름밤 하늘에 별보다도 더 귀엽고 값이 있어요. 598) 이런 귀한 보석⁵⁹⁹⁾을 더러운 집돼지⁶⁰⁰⁾발밑에다가 내던지려고? 왜 자기 손안에 든 진주⁶⁰¹⁾를 그렇게 더럽히려고!

영순: 나는 그래도 안 더러워져요. 오빠! 나는 결코 안 더러워질 테예요. 오빠만 안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은 영원히 안 더러워질 테예요.

최 주사댁: 애야 어서 나가 보라니까! 안 나갈 테니? 그만 뒤라, 내가 불러오겠다. (나간다.)

영순: 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는데! 오빠, 혁 씨 부르러 갔는데! 나 가 보고 올 테야!

원봉: (영순을 끌어안고) 네 눈은 곱구나. 저기 저 하늘 보이니? 네 눈같이 곱고 맑고 티끌 한 점 없이 밝은 저 하늘이 보이니? 저 하늘같이 곱고 맑고 티끌 한 점 없이 밝은 네 눈에 저 하늘이 보이니? 602)

영순: 네, 네, 네, 보여요. 잘 보여요. 어찌 그 하늘에 올라가 앉은 것처럼 이렇게 몸이 가벼워져요. 603)

원봉: 몸이 마음이 다 편하지 않니? 하늘가까지 보이지? 넓고 넓다란 바다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다 보이지? 그것이 하늘이다. 그리고 저기 저 밑에 누런 먼지가 가득히 쌓인 세계⁶⁰⁴⁾가 보이지 않니?

영순: 네네, 보여요. 아이구, 갑갑하고 더러운 세계! (눈을 가리며) 아, 저런 속에서 어떻게 사나! 605)

원봉: 너도 그 속에서 살아 있다.

(중략)

영순: 아 참, 보이는군요. 저런! 저런! 비행기 모양으로 날다가 푹푹 떨어지네. 에그 불쌍해! 어머니도 저 속에 있어요? 혁 씨도 저 속에 있어요?

원봉: 아, 그런 사람들은 생각해서는 못 쓴다니까!

영순: 아, 오빠! 괴로워! 아, 오빠! 나하고 저리로 올라가요. 아, 괴로워! 여기는 다 올라가지 않고 중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것 아니에요? 구만리장천 저 위에까지 같이 올라가요. 내 손잡아 줘요! 내가 끌어올릴 테니!

원봉: 내 몸이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연약한 네가 날 꼬집어 올리니? 산돼지는 땅 위에서밖에 못 큰단다!

영순: 그래도 내 힘껏 끌어 볼 테야! 아, 날 놓지 말아요. 이 팔을 꼭 붙들어요. 이 팔을! 아, 오빠!

혁: (들어와서 한참 동안 보고 섰다가 그만 달려들어 영순을 꼬집어낸다.)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 별별 고약한짓이 다 생기는군! 606) 영순 씨 저건 당신 오라버니가 아니오? 아, 그 눈을 해 가지고도 안 보이오?

원봉: 흥, 왔구나. 너무 일찍 온 게 잘되었다.

영순: (혁이 가슴에 안기며) 아! 선생님! (들이 안고 나간다.)

원봉: 흥, 데려가거라. 산돼지한테 맡겼다가는 산돼지 배 속밖에 못 채워 준다. 607)

최 주사댁: (들어오며) 내 말 곧이들어 안 듣더니 그것 봐라. 그래도 너를 갖난애 때부터 기르던 에미가 아니니?

원봉: 어머니 흥계는 나도 인제 넉넉히 알았소. 그만두슈.

최 주사댁: 내 말을 곧이들어야 한다. 네 어머니는 너를 낳고 하룻밤을 못 새고 죽어 버렸다. 그때부터 영순이 아버지 인정에 끌려서 너를 길러 온 어미가 아니냐. 608)

595) 최주사댁에 대한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음

596) 인물에 대한 적개심 표현

597) 평온한 삶

598) 영순에 대한 애정이 드러남

599) 영순

600) 차혁

601) 영순

602) 몽환적인 장면, 내적갈등과 의식세계를 보여줌

603) 몽환적, 몸이 하늘로 떠오름

604) 세상에 대한 환멸감 위의 '하늘가'와 대비

605) 살기 힘든 삶에 대한 인식

606) 영순에 대한 원봉의 애정을 질책

607) 자조적

608) 낳지는 않았어도 길러온 모정이 있음

- 김우진, 「산돼지」

1. 갈래 : 장막극(전3막) 표현주의 극
2. 성격 : 실험적, 현실비판적, 상징적, 표현주의적
3. 배경 : ① 시간 - 1920년대 ② 공간 - 서울과 가까운 어느 마을
4. 제재 :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삶
5. 주제 : 식민지 지식인의 새로운 삶의 방향 모색과 좌절

<표현상의 특징>

- 우리나라 최초의 표현주의 극임.
- 상징적 수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냄.
- 환상과 상징 등 표현주의 수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세계를 나타냄

<내용상의 특징>

- 현실 개혁과 저항의지를 담은 '산돼지'를 제목으로 하여 일제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자세 드러냄
- 몽환 장면에서 표현주의 기법을 통해 원봉의 내면적 갈등 및 의식 세계를 그려냄.

「가마귀 가마귀를 좇추 ~」- 작자미상

가마귀⁶⁰⁹ 가마귀⁶¹⁰를 『좇추 들거고나⁶¹¹ 뒷동산(東山)⁶¹²에』⁶¹³

느러진⁶¹⁴ 고양남개⁶¹⁵ 휘 드느니⁶¹⁶* 가마귀로다⁶¹⁷

『식은 날⁶¹⁸ 못⁶¹⁹ 가마귀 흔디⁶²⁰ 느러 뒤덤병* 덤병⁶²¹ 두루 덥져겨* 박흐니⁶²² 아모 그 가마귀⁶²³ 줄 몰니라⁶²⁴』⁶²⁵

*휘 드느니: 휘 날아드니.

*뒤덤병: 들뜬 행동으로 아무 데나 간섭을 하며 서두름.

*덥져겨: 덥적여. 무슨 일이나 가리지 않고 자꾸 참견하여.

1. 갈래 : 사설시조
2. 성격 : 풍자적, 해학적
3. 제재 : 까마귀
4. 주제 : 벼슬자리를 두고 싸우는 탐관오리를 풍자, 부화뇌동(附和雷同)의 경계

<표현상의 특징>

-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개탄
- ‘뒤덤병덤병’ 같은 의태어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벼슬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싸우는 탐관오리의 모습을 희화화하여 생동감 있게 묘사

<내용상의 특징>

- 자연물을 사용하여 현실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비판
- 까마귀 떼가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여 까마귀처럼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비판의식을 드러냄.

609) 새로 날아든 까마귀, 탐관오리, 간신배

610) 뒷동산에 원래 있던 까마귀

611) 추종하는 구나, 기득권을 빼앗으려 하는 구나. 부화뇌동(附和雷同)

612) 공간적 배경(까마귀들이 모여드는 공간)

613) 『』: 도치법(서술어와 부사의 자리가 바뀜)

614) 늘어진. 가지가 늘어질 정도로 큰 나무.

615) 괴향나무, 먹잇감이 있는 곳, 이권(정권이나 벼슬)을 쟁탈하기 위해 다투는 곳으로 ‘조정’을 상징

616) 마구 들어오는 모습, ‘휘’를 ‘매우, 심하게, 마구’란 뜻의 접두사로 보는 것이 적절

617) 우위적 의미로 이권(利權)을 다투는 사람들의 무리

618) 새로 밝은 날, 다음 날

619) 많은

620) 한 곳에, 같은 목표를 두고

621) 의태어, 음성상징어

622)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서로 참견하며 싸우는 모습

623) 새로 날아든 까마귀

624) 싸우고 있는 모든 무리가 같은 통속임이 드러남

625) 『』: 벼슬자리를 두고 싸우는 모습, 부화뇌동(附和雷同)

「가마귀 겹다 희고 ~」- 작자 미상

가마귀⁶²⁶ 겹다 희고 백로(白鷺)⁶²⁷ | 야 웃지 마라
 겹치 거문둥 속조차 거물소냐⁶²⁸
 아마도 겹 희고 속 검은슨 **너**⁶²⁹뿐인가 희노라⁶³⁰

1. 갈래 : 평시조, 단시조, 정형시
2. 성격 : 풍자적, 교훈적, 비판적, 충절가
3. 연대 : 고려 말, 조선 초
4. 제재 : 까마귀, 백로
5. 주제 : 인간의 위선(표리부동)에 대한 경계, 소인에 대한 훈계와 자신의 결백 표명

<표현상의 특징>

- 의인법을 사용,
- 검은 까마귀와 하얀 백로의 대조를 통해 겹만 보고 남을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성찰하라는 의도를 드러냄.

<내용상의 특징>

- 화자는 고려 유신의 한 사람으로 조선 개국에 참여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

626) 긍정적인 내면을 가진 존재(조선 개국공신인 화자 본인)

627) 부정적 심성을 가진 존재(화자를 비방하는 무리)

628) 화자의 결백성을 표명

629) 백로

630) 의인법(백로의 외형적인 속성이 아니라 내면적인 이중성을 위선적이라 비판)

「가마귀 싸호는 골에 ~」- 작자미상

가마귀⁶³¹ 싸호는 골⁶³²에 백로(白鷺)⁶³³ | 야 가지 마라⁶³⁴

성년 가마귀⁶³⁵ 흰빛⁶³⁶을 새올세라⁶³⁷

청강(淸江)⁶³⁸에 잇것⁶³⁹ 시슨 몸⁶⁴⁰을 더러일가 흐노라⁶⁴¹

1. 갈래 : 고시조, 평시조, 단시조
2. 성격 : 경세(警世)적, 우의적, 교훈적
3. 연대 : 고려 말
4. 제재 : 까마귀, 백로
5. 주제 : 군자(君子)로서의 절의(節義), 표면적 차이에 대한 경계

<표현상의 특징>

- 깨끗함(군자의 지조)을 지키기 위해 까마귀(악한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권고
- 자연물인 대상의 특성에 빗대어 효과적으로 경계의 의미 표현

<내용상의 특징>

- 이분법적인 사고와 흑백논리로 까마귀를 부정적으로 인식
- 대비되는 단어의 나열로 화자의 염려와 경계를 표현

631) 부정적 세력 혹은 인물(이성계)

632) 싸움터, 부정적인 공간

633) 긍정적인 세력, 군자, 충절자 (정몽주)

634) 까마귀(흑)와 백로(백) 라는 관습적인 상징물의 색채대비 효과를 통해 이전투구(泥田鬪狗 :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비열하게 다툼을 비유)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 흑백논리(흑-부정, 백-긍정), 이분법적 사고

635)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

636) 선비의 지조, 절개

637) 시샘할까 두렵구나. ‘르 세라’ : 의구형 어미

638) 맑은 강, 순수하고 긍정적인 공간. 초장의 ‘골’ 과 대비 됨

639) 깨끗이

640)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군자의 도(道), 군자의 지조와 절개를 비유적으로 표현

641) 근묵자흑(近墨者黑), 근주자적(近朱者赤) 까마귀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경계

「논매기 노래」- 작자 미상

잘하고 **자로**⁶⁴²⁾ 하네 **에히요**⁶⁴³⁾ 산이*가 자로 하네⁶⁴⁴⁾

이봐라 농부야 내 말 듣소 이봐라 일꾼들 내 말 듣소⁶⁴⁵⁾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하늘님이 주신 보배 **편편옥토**(片片沃土)⁶⁴⁶⁾가 이 아닌가⁶⁴⁷⁾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물꼬⁶⁴⁸⁾ 찰랑 돌아 놓고 ⁶⁴⁹⁾진네 영감 어디 갔나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한다 소리를 퍽 잘하면 질 가던 행인이 질 못 간다⁶⁵⁰⁾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자로 하네 우리야 일꾼들 자로 한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이 **논배미**⁶⁵¹⁾를 얼른 매고 저 논배미로 건너가세⁶⁵²⁾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담송담송⁶⁵³⁾ 닷 마지기 반달만치만 남았구나⁶⁵⁴⁾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일락서산(日落西山)에 해는 지고 월출동령(月出東嶺)에 달 돈는다⁶⁵⁵⁾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한다⁶⁵⁶⁾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⁶⁵⁷⁾

642) 잘, 자주

643) 흥을 돋우는 갑탄사

644) 후렴구로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645) 선창자 '산이'가 노래를 먼저 부르면서 일꾼들의 관심을 유도

646) 편편옥토(片片沃土) : 어느 논밭이나 다 비옥함

647) 농사일에 대한 천직이라는 낙천성과 하늘에서 내린 땅을 경작한다고 여기는 자부심이 드러남

648) 눈에 물이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게 하기 위하여 만든 좁은 통로

649) 눈에 물을 가득 담아 놓아 물이 풍부하니 농토가 비옥하고, 농사가 잘되고 있음을 의미

650) 일은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서 잘한다 소리(후창)만 열심히 하면 길 가던 행인이 길을 잘못 간다.→ 말보다 행동으로 김을 매라는 독려이자 행인이 가던 길을 멈출 정도로 노래가 흥겨움을 과시하는 것으로 논매기 노래의 흥겨움 표현

651) 두령으로 둘러싸인 논이 하나하나의 구역

652) 일을 부지런히 하자는 독려 및 서로의 것을 같이 하는 상부상조(相扶相助)

653) '드문드문'의 방언. 드물고 성긴 모양. '드문드문'이라는 의태어를 방언으로 표현하여 향토적인 느낌과 리듬감, 경쾌한 느낌을 준다.

654) 작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각적으로 표현, 일을 빨리 끝내자는 독려

655) 시간의 흐름을 중복 표현(한자어를 우리말로 다시 한 번 풀어 줌)을 통해 나타내어 부지런히 일해 김매기를 빨리 끝내자는 것을 강조함

656) 선창자의 매기기(매기다 : 두 편이 노래를 주고받고 할 때 한편이 먼저 부른다.)

잘하고 못하는 건 우리야 일꾼들 솜씨로다⁶⁵⁸⁾

*산이: 원래는 광대나 재주꾼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 노래에서는 선(先)소리꾼을 의미함.

1. 갈래 : 민요, 노동요
2. 성격 : 낙관적, 낙천적
3. 형식 : 선후창요(先後唱謠), 돌림 노래
4. 제재 : 논매기
5. 주제 : 농사일에 대한 기쁨과 보람, 농민으로서의 자부심

<표현상의 특징>

- 선창 후창의 연장형식으로 선창이 2장단이나 4장단의 앞소리를 부르면 후창으로 후렴격인 뒷소리를 부름
- 노래의 속도는 일의 진행에 따라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하여 차차 빨라지는 변화를 보임
- 3·4조, 4음보의 일정한 율격과 후렴구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흥을 돋움
- 반복적이고 열거적인 시구를 통해 농사일을 독려하는 기능을 한다.

<내용상의 특징>

- 민중의 현실 정서를 반영하는 민요의 특성이 드러나 있음
- 논을 매면서 부르는 노래로 동일한 후렴구를 두어 리듬감을 살리고, 주 내용은 선창 부분에 표현
- 농토의 예찬, 농사일의 진행과 독려 등을 차례로 노래하고 현재 일에 대한 농사꾼들의 자부심 드러냄
- 농민들의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정서가 나타남

657) 후창자의 받기

658) 농사꾼들의 솜씨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뉘라셔 까마귀를 ~」- 박효관

뉘라셔 **까마귀**⁶⁵⁹를 검고 **흉(凶)타** **호**뉘⁶⁶⁰던고
 반포보은(反哺報恩)⁶⁶¹이 괴 아니 아름다온가
 슝름이 저 식만 못⁶⁶²물 못⁶⁶²슬허⁶⁶²호노라⁶⁶²

1. 갈래 : 평시조, 단시조, 정형시
2. 성격 : 경세가(警世歌)
3. 제재 : 반포보은(反哺報恩)
4. 주제 : 인간의 불효에 대한 탄식

<표현상의 특징>

- 3(4)·4조, 4음보의 율격
- 까마귀를 제재로 하여 효의 미덕이 지켜지지 않는 세태를 한탄
- 자연물과 인간을 대비하여 효의 실천을 강조

<내용상의 특징>

-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음을 까마귀에 빗대어 비판
- 화자는 까마귀에 반포보은의 가치를 부여, 까마귀를 ‘효’의 상징으로 인식
- 불효하는 사람들은 까마귀보다 못하다고 통탄

659) 본받아야 할 대상

660) 세상 사람들의 통념에 대한 비판

661) 다 자란 까마귀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줌.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까마귀의 효심, 반포지효(反哺之孝)

662) 사람과 까마귀를 비교하여 효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백사장 홍료변에 ~」- 작자미상

백사장(白沙場)⁶⁶³ 홍료변(紅蓼邊)⁶⁶⁴에 구버기⁶⁶⁵ * 백로(白鷺)⁶⁶⁵들아⁶⁶⁶
 구복(口腹)⁶⁶⁷을 못 메워 더다지 굶니⁶⁶⁸다⁶⁶⁸
 일신(一身)이 한가(閑暇)⁶⁶⁹홀선정 슬져⁶⁷⁰ 무슴 흐리오⁶⁷¹)

*구버기⁶⁶⁵: 꾸벅이는. 머리를 숙였다 들었다 반복하는

1. 갈래 : 평시조, 단시조
2. 성격 : 세태가(世態歌)
3. 제재 : 백로
4. 주제 : 인간의 세속적 욕심에 대한 경계

<표현상의 특징>

- 대화체의 어조를 사용하여 백로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로 시상 전개
- 설의법을 사용해 화자의 의도를 강조
- ‘백로’를 의인화해 시상을 전개
- 백사장의 하얀 이미지와 홍료변의 붉은 이미지의 시각적 심상이 백로의 행위를 두드러지게 표현

<내용상의 특징>

- 백로가 ‘구버기⁶⁶⁵’ 행위를 보여주면서 백로의 목적(먹는 것이 급급함)을 드러냄
- 초장에서 색채 이미지로 백로의 모습을 고고한 듯 보이게 하지만 중장에는 결과 대조적인 백로의 본래 모습을 보여 주며 대상을 비판

663) 백색 이미지(흰 모래가 깔려있는 강가)

664) 붉은 빛을 띤 여귀 잎(적색 이미지, 백사장과 색채적 이미지를 형상화 해 고고한 백로의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665) 화자는 백로를 부정적 대상으로 설정하여 겉으로는 고상하나 본래는 탐욕스러운 존재로 인식

666) 백로를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듯한 대화체의 어조를 사용

667) 입과 배, 먹고 살기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곳, 작품에서는 인간의 탐욕을 뜻함

668) 굶었다 찢다하는 모습을 뜻하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반복적 행위를 말함

669)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

670) 백로의 가치관, 화자의 ‘한가’와 대립됨

671) 설의법

「보리타작[打麥行]」 - 정약용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 처럼 ⁶⁷² 뿌영고 』 ⁶⁷³	新篘濁酒如滙白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 로세 ⁶⁷⁴	大碗麥飯高一尺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 니 ⁶⁷⁵	飯罷取枷登場立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 네 ⁶⁷⁶	雙肩漆澤翻日赤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 니 ⁶⁷⁷	呼邪作聲舉趾齊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사방에 가득하 네 ⁶⁷⁸	須與麥穗都狼藉
주고받는 노랫가락 ⁶⁷⁹ 점점 높아지 는데 ⁶⁸⁰	雜歌互答聲轉高
보이느니 지붕까지 날으는 보리 티끌 ⁶⁸¹	但見屋角紛飛麥
그 기색 살펴보 니 ⁶⁸² 즐겁기 짝이 없 어	觀其氣色樂莫樂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 네 ⁶⁸³	了不以心爲形役
낙원 ⁶⁸⁴ 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 데	樂園樂郊不遠有
무엇 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 ⁶⁸⁵ 에 헤매 리오	何苦去作風塵客

1. 갈래 : 한시, 서정시, 행(行)*, 사실주의시
2. 성격 : 사실적, 반성적
3. 연대 : 조선후기
4. 제재 : 보리타작
5. 주제 : 노동에서 얻는 즐거움과 그에 따른 지난날의 반성 / 농민의 보리타작과 그것을 보고 깨달은 건강한 삶의 모습

행(行) : 자신의 감정이나 사물을 거침없이 가볍게 노래하는 한시의 한 체

<표현상의 특징>

- ‘기-승-전-결’의 4단 구성 형식을 지님.
- 평민의 시어로 농촌의 노동을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그려내 조선 후기 한시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 줌.
-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

<내용상의 특징>

- 다산의 중농 사상과 실사구시의 실학사상이 반영된 사실주의 시 정신을 잘 나타냄
- 보리타작하는 농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현장감이 느껴지게 묘사함.

672) 직유법

673) 『』, 막걸리의 색이라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농사를 짓는 모습을 현장감 있게 전달

674) 과장법

675) 밥을 먹은 후 곧바로 일을 하는 농민들의 근면적인 태도

676) 햇빛에 반짝이는 농민들의 어깨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어 그들의 건강한 삶과 노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나타냄

677) 도리깨질 하는 장면이 흥겹게 묘사됨

678) 부지런한 노동에 대한 보상

679) 선창과 후창 형식으로 노동요를 부르고 있음

680) 흥이 고조됨을 알게 하는 청각적 이미지

681) 막걸리, 보리밥, 도리깨, 보리 낱알, 보리 티끌 모두 보리타작하는 상황을 연상케 하는 일상적 소재들

682) 보리를 타작하고 있는 농민들을 바라보는 화자

683) 농민의 모습을 보며 몸과 정신이 하나가 된 노동의 참된 가치를 인식하고 삶의 진리를 깨우침

684) 농민들의 삶, 현실을 만족하고 힘겨운 노동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줄 아는 모습

685) 낙원과 대비되는 세속적 욕망, 지난날의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

「어이 못 오던다 ~」 -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⁶⁸⁶⁾

『너 오는 길 우희 무쇠로 성(城)을 빚고 성안해 담 빚고 담 안헤란 집을 짓고 집 안헤란 두지* 노코 두지 안헤 귀(櫃)를 노코 귀 안헤 너를 결박(結縛)하여 노코 쌍(雙)비목* 외겔새에 용(龍)거북(죽물쇠)⁶⁸⁷⁾로 수기수기* 즘갓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⁶⁸⁸⁾

흔들이 설흔 놀이여니 날 보라 올 흘리 없스랴⁶⁸⁹⁾

*두지: 뒤주. 쌀 같은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

*쌍비목: 결쇠를 거는 구멍 난 못.

*수기수기: 깊이깊이.

1. 갈래 : 사설시조, 연모가
2. 성격 : 해학적, 과장적, 원망적
3. 연대 : 조선 후기
4. 제재 : 오지 않는 입
5. 주제 : 그리운 입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오지 않는 입에 대한 야속한 마음

<표현상의 특징>

-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입에 대한 그리움을 해학과 과장을 통해 표현
- 직설적인 어조로 오지 않는 입을 원망함
- 반복, 연쇄, 열거, 점강, 과장으로 입에 대한 화자의 애타는 마음과 그리움을 강조

<내용상의 특징>

- 화자는 과장적 상상으로 오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과 야속한 심정을 드러냄
- 화자는 입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못’ 오고 있다고 상상, 입의 변심을 부정하며 자기 위안

686) 입이 오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어함. 구절의 반복으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 학수고대(鶴首苦待)

687) 성(城) > 담 > 집 > 두지 > 귀(櫃) > 자물쇠 점점 좁아지는 폐쇄적인 공간에 입이 갇히고 속박되어 있어 못 오는 것이라 화자는 상상함

688) 열거, 연쇄, 점강법, 과장법 『 』, 입이 오지 않는 까닭을 여러 사물을 나열하여 그리운 사람의 내방을 막는 여러 가지 제약 을 표현

689) 일 년의 그 많은 시간 중 자신을 보러 올 하루가 없느냐는 직접적인 원망의 표현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정인지 외

해동(海東) 육룡(六龍)⁶⁹⁰이 낙락샤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고성(古聖)이 동부(同符)하시니⁶⁹¹

海東六龍飛 莫非天所扶 古聖同符
 (해동육룡비 막비천소부 고성동부)

<제1장>

불휘 기픈 남근⁶⁹² 바르매 아니 뭇씨 곶 도코 여름 하느니⁶⁹³
 식미 기픈 므른⁶⁹⁴ 마르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⁶⁹⁵

根深之木 風亦不杌 有灼其華 有蕢其實
 (근심지목 풍역불을 유작기화 유분기실)
 源遠之水 旱亦不竭 流斯爲川 于海必達
 (원원지수 한역불갈 유사위천 우해필달)

<제2장>

천세(千世) 우희 미리 정(定)하시 산 한수(漢水) 북(北)⁶⁹⁶에 누인개국(累仁開國)하시
 복년(卜年)이 궤업스시니⁶⁹⁷

성신(聖神)이 니스샤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하시샤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라쇼셔 낙수(洛水)예⁶⁹⁸ 산행(山行)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千世默定 漢水陽 累仁開國 卜年無疆
 (천세묵정 한수양 누인개국 복년무강)
 子子孫孫 聖神雖繼 敬天勤民 迺益永世
 (자자손손 성신수계 경천근민 내익영세)
 嗚呼 嗣王監此 洛表游畋 皇祖其恃
 (오호 사왕감차 낙표유전 황조기시)

<제125장>

해동에 여섯용이 나시어(날으시어) 일마다 하늘이 내려 준 복이십니다.

(이 모습) 옛 성인과 똑같이 일치하십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으므로 냇물이 이루어져 바다에 갑니다.

천년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인(仁)을 차곡차곡 쌓은 바탕 위에 나라를 여시어(건국하여) 왕조의 운명이 끝이

690) 해동(海東, 발해의 동쪽이라는 뜻으로 조선을 뜻)의 6대조(용비어천가가 지어진 세종 때를 기준으로 그의 여섯할아버지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을 이룸)

691) 고성(古聖)은 중국에서 나라를 세운 옛 성군을 이르는 말로 이러한 제왕들은 하늘의 뜻을 받아야 했기에 조선 역시 이와 일치한다(동부(同符)하시니)는 비유로 조선 창업이 하늘의 뜻이라는 순리를 내세워 조선의 역성 혁명을 합리화

692) 뿌리가 깊은 나무(즉 국기(國基)인 '나라의 터'가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

693) 꽃과 열매는 문화를 뜻하고 이는 문화가 융성하고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694) 근원이 튼튼하고, 유서(由緒)가 깊은 나라

695) 시대를 이뤄 바다로 간다는 것은 조선 왕조의 정당성과 무궁한 발전을 비유

696) 한강 이북, 즉 한양을 이룸

697) 복년(卜年, 하늘이 정한 운수)이 끝이 없다는 것은 조선왕조의 운명이 영원을 의미

698) 하나나라의 태강왕은 조부인 우왕의 공만 믿고 정사를 돌보지 않고 낙수 밖에서 사냥하다가 제후에 의해 폐위 당했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왕권 계승의 올바른 자세를 일깨우고 있음

없습니다. 성스러운 왕손이 (왕위를) 이어서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셔야 (나라가, 왕조의 운명이)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임금이시여, 아소서. 낙수에 사냥하러 가 있으시면서 할아버지만 믿으셨습니까.

1. 갈래 : 악장, 고전시가, 국문시가, 영웅 서사시, 송축가
2. 성격 : 서사적, 설득적, 송축,
3. 배경 : 조선 세종27년(1445)
4. 제재 : 조선 왕조의 창업
5. 주제 : 조선 건국의 6대조 찬양과 왕조의 영원성
조선 건국의 당위성과 후대 왕들에게 왕권 수호의 책임 강화

<표현상의 특징>

-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서사시로 총 125장으로 이루어져 첫 장인 제1장과 마지막장인 제125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2절 4구의 대구 형식
- 용비어천가의 갈래는 악장으로 이는 송도, 송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형식이 자유로움
- 용비어천가가 악장이라 예찬적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왕권 계승에 대한 자세를 깨우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신권에 견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음

<내용상의 특징>

- 제1장의 주제는 조선 왕조 창업의 정당성, 제2장은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제125장은 후대 왕에 대한 권계
- 제1장에서는 전반적인 2절4구 형식의 대구를 취하지 않고 형식의 파격과 비교법을 나타냄
- 제2장에서는 중국의 고사나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구법과 은유법을 구사하여 우리말로 편찬
- 제125장에서는 용비어천가 전체를 함축하여 중국고사를 후절에 인용하여 주제를 더욱 공고히 함
- 이 작품은 조선 왕조 창업의 천명성과 후대 왕에 대한 권계를 담은 교술적 성격과 영웅의 일생을 서술한 서사시적인 성격이 같이 나타남
- 창작동기의 관점에서는 표면적으로는 훈민정음의 실용성의 점검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이지만 내적으로는 민심을 염려하여 조선 건국의 합리성을 부여하고 후대 왕에게 왕권 수호의 책임감을 깨우치기 위함

「저곡전가팔곡(楮谷田家八曲)」- 이휘일

세상(世上)의 브린 몸⁶⁹⁹이 견무(畝畝)⁷⁰⁰*의 늘거 가니
밧겻 일⁷⁰¹ 내 모르고 흐는 일 무스 일고⁷⁰²
 이 중(中)의 우국성심(憂國誠心)⁷⁰³은 연풍(年豐)을 원 흐노라⁷⁰⁴ <제1수>

농인(農人)이 와 이로되 봄 왓너 바티 가새⁷⁰⁵
압집의 쇼보* 잡고 뒷집의 싸보* 내너⁷⁰⁶
 두어라 내 집부디 흐라 늣 흐니 더욱 도타⁷⁰⁷ <제2수>

여름날 더운 적의 단사히 부리로다⁷⁰⁸
밧고랑 띠자 흐니 썸 흘너 싸희 듯네⁷⁰⁹
 어스와 입립신고(粒粒辛苦)* 어니 분이 알으실고⁷¹⁰ <제3수>

가을희 곡석 보니 도흠도 도흠세고⁷¹¹
내 힘의 날운 거시 머거도 마시로다⁷¹²
 이 밧기 천사만종(千駟萬鐘)⁷¹³*을 부러 무슴 흐리오⁷¹⁴ <제4수>

밤의란 스출⁷¹⁵ 쇼고 나죄란 썬를 부여⁷¹⁶
초가(草家)집 자바 미고 농기(農器)점 츠려스라⁷¹⁷
 내년(來年)희 봄 온다 흐거든 결의 종사(從事)⁷¹⁸ 흐리라 <제5수>

*견무: 밭의 고랑과 이랑. 여기서는 시골을 의미함.
 *쇼보, 싸보: 농기구인 쟁기와 따비. 따비는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임.
 *입립신고: 낱알 하나하나가 모두 농부의 피땀이 어린 결정체라는 뜻으로, 곡식의 소중함을 이르는 말.
 *천사만종: 많은 말이 끄는 수레와 많은 봉록.

699) 초야에 묻혀 사는 화자의 처지
 700) 논밭의 이랑으로 작품에서는 농촌에서 일하는 것을 뜻함
 701) 세상 돌아가는 상황, 부귀영화에 골몰하는 일(속세 일)
 702) 무엇인고
 703)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704) 풍년이 들기를 원하는 사대부의 마음이 나타남
 705) 농사일을 함께 하자는 농부의 말을 인용
 706) 도와가며 일하는 농촌의 모습이 드러나 있음
 707) 서로를 배려하는 농민들의 마음, 상부상조(相扶相助)
 708) 직유법 : 햇빛에 달구어진 땅이 불처럼 뜨겁구나
 709) 농사일의 힘겨움을 ‘땀이 흘러 땅에 떨어진다’고 사실적으로 비유
 710) 알아주실까(농부의 고된 노동과 낱알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땀과 정성을 말하며 여름철 힘든 농사일의 수고로움을 알아주지 않는 세태의 안타까움 표현)
 711) 가을날의 수확한 곡식을 보는 큰 기쁨
 712) 내 힘으로 키운 것이니 먹어도 맛있구나
 713) 부귀영화
 714)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화자의 정서
 715) 샷자리,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716) 대구법, 농한기인 겨울철의 생활상을 나타냄
 717) 손질하여라
 718) 마음과 힘을 다함

1. 갈래 : 연시조(평시조 8수가 연첩으로 구성)
2. 성격 : 전원적, 사실적, 향토적
3. 연대 : 조선 중기
4. 제재 : 농촌 생활
5. 주제 : 전원생활에서의 농사일의 즐거움, 농촌 생활의 수고로움과 노동의 보람

<표현상의 특징>

- 대구법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의 구체화
- 설의법을 활용하여 삶의 깨달음을 표현
- 비유법, 대구법, 설의법을 사용한 청유형 방식으로 함께 농사일에 참여 할 것을 권유함
- ‘쇼보, 따비, 농기’ 등의 소재를 통해 화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농촌의 현장에 생동감 부여

<내용상의 특징>

- 사계절에 따른 농사일과 노고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나타남
- 강호한정가와 같은 이전 시기의 작품들과 달리 화자가 직접적으로 농사를 하면서 농촌의 삶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

「정읍사(井邑詞)」-어느 행상인의 아내

전강(前腔) 들 719)하720) 노피곰 721)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722)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소엽(小葉) 아으 다롱디리 723)

후강전(後腔全) 저재 724) 녀러신고요
어기야 즌 디 725)를 드디올세라 726)
어기야 어강도리

과편(過篇) 어느이다 노코시라

금선조(金善調) 어기야 내 가는 디 727) 점그를세라 728)
어기야 어강도리

소엽(小葉) 아으 다롱디리

[현대어 풀이]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여
어기야차 멀리멀리 비취 주소서.
어기야차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차 위험한 곳을 디덜까 두렵습니다.
어기야차 어강도리

어느곳에서나 놓으십시오.

719) 달, 소원(남편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광명의 존재. 종교적인 의미 내포.

720) 돈호법

721) 노피곰 : 높이 높이

722) 머리곰 : 멀리 멀리 (남편의 무사함을 기원하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

723) 끝부분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후렴구의 역할을 한다. ‘어기야’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나 소리로 여음구이자 조흥구.

724) 시장의 뜻으로 화자의 남편이 행상인임을 암시

725) 즌 디(진곳, 위험한 곳을 포괄적으로 모든 위험을 의미함.)

726) 남편의 안위를 해하는 위험에 처할까 두렵다(드디올세라)는 의미나, 혹은 기생들이 모여 사는 거리로 이해할 경우 남편이 주색에 빠지지 않았는지 두렵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

727) ‘내 가는 디’는 화자인 나와 남편이 가는 곳, 나의 가는 곳, 남편이 돌아오는 곳 등으로 해석 가능

728) ‘저물까 두렵습니다’로 해석할 경우 나와 남편의 여로(旅路)로 보고, ‘나와 남편의 인생이 어두워질까 두렵습니다’로도 해석 가능

여기야차 당신 가시는 곳에 저물까 두렵습니다.

여기야차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1. 갈래 : 전연시(全聯詩), 백제 가요, 서정시.
2. 성격 : 서정적, 기원적, 여성적, 비유적
3. 연대 : 미상(백제로 추정)
4. 제재 : 남편에 대한 걱정
5. 주제 : 행상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

<표현상의 특징>

- 후렴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절들을 정리하면 3장 6구의 형식과 유사하여 시조 형식의 원형을 지닌 것으로 보기도 함
- 『악학궤범』에 가사가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 가요이자, 국문으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래
- 의인법, 돈호법,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냄

<내용상의 특징>

- 화자로 추정되는 어느 행상인의 아내라는 정보를 참고하면 화자의 상황(남편을 기다림)과 심리(남편의 무사귀환 소망)를 파악할 수 있음.
- ‘달’은 남편의 귀갓길, 아내의 마중길 그리고 부부의 인생을 밝혀줄 상징으로 사용
- 이 작품의 서정적 자아는 우리의 전통적인 여인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감정을 보다 직접적이고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어 작중 화자의 태도는 직설적이고 외면적임을 알 수 있음
-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애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어조와 연관하여 이 작품을 망부석(望夫石)설화와 연관시키기도 함

「정석⁷²⁹가(鄭石歌)」 - 정석가

삭삭기⁷³⁰ 세모레⁷³¹ 벼랑에 나난 ⁷³²

삭삭기 세모레 벼랑에 나난

구운 밤⁷³³ 닷 되를 심고이다⁷³⁴

그 밤이 움이 돌아 싹 나거시아

그 밤이 움이 돌아 싹 나거시아

유덕(有德)하신 입을 여의아와지이다⁷³⁵

<제 2 연>

옥(玉)으로 연꽃⁷³⁶을 사교이다⁷³⁷

옥(玉)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바위 위에 접주(接柱)하요이다*

그 꽃이 삼동(三冬)⁷³⁸이 피거시아

그 꽃이 삼동(三冬)이 피거시아

유덕(有德)하신 입을 여의아와지이다

<제 3 연>

무쇠로 철릭⁷³⁹/⁷⁴⁰*을 말아⁷⁴¹ 나난

무쇠로 철릭을 말아 나난

철사(鐵絲)로 주름 박오이다

그 옷이 다 헐어시아

그 옷이 다 헐어시아

유덕(有德)하신 입을 여의아와지이다

<제 4 연>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⁷⁴²

구슬이 바위에 지신들

끈잇단 그츠리잇가 ⁷⁴³

즈른 해를 외오곰 여신들 ⁷⁴⁴

즈른 해를 외오곰 여신들

729) ‘덩’은 정(釘). ‘돌’은 石. 즉 경(磬)이므로 금속 악기인 ‘鉦磬[징과 경쇠라는 악기]’에 은유하여 연정의 대상 인물인 ‘鄭石’을 나타낸 것. ‘징’, ‘돌’은 악기를 의인화한 것과 동시에, 연모의 대상을 나타냄

730) 사각사각거리는 모양(청각적 심상)

731) 가는 모래

732) 운을 형성 위한 여음구

733) 구운밤 불가능의 전제조건, 역설법

734) 심습니다.

735) 여의고(이별하고) 심습니다.

736) 옥으로 새긴 연꽃 불가능의 전제조건, 역설법

737) 새깁니다

738) 세 묶음이. 삼동(三冬)의 잘못된 표기로 본다면 ‘추운 겨울’

739) 무쇠로철린 불가능의 전제조건, 역설법

740) 무관의 공복(公服)으로 ‘털릭’은 이 노래의 지은이가 ‘털릭’을 입을 수 있었던 신분임을 알 수 있다.

741) 재단하여

742) 떨어진들

743)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744) 천년을 외따로 살아간들

신(信)잇단 그츠리잇가⁷⁴⁵⁾

<제 6 연> ⁷⁴⁶⁾

*접주하요이다: 접붙입니다.

*철릭: 옛날에 무관이 입던 관복.

1. 갈래 : 고려 가요. 고려 속요. 장가(長歌)
2. 성격 : 감성적, 여성적, 애상적
3. 연대 : 연대미상의 고려속요
4. 제재 : 정석(鄭石) (이 노래 첫머리에 나오는 ‘딩아 돌하’의 ‘딩[鄭(정)]’과 ‘돌[石(석)]’)

5. 주제 :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 영원한 해로를 축원하는 사랑의 충정

<표현상 특징>

- 구비 전승되다가 조선 시대에 문자로 기록됨
- 과장법에 해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한 연에 두 번씩 되풀이되는 2구를 통해 감정 강조
- 불가능한 사실을 가능한 사실로 가정하는 역설의 표현 기법 사용
- 제 2연에서 제 5연까지는 한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메김소리’로 부른 것으로 추측 민요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내용상 특징>

-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남녀 간의 사랑이 무한함을 표현한 노래
- 제 2연에서는 구운 밤, 제 3연에서는 옥련꽃, 제 4연에서는 무쇠옷, 제 5연은 무쇠소라는 소재를 등장시켜 놓고 가능한 일을 제시하여 이별의 불가능을 강조
 - 소망형인 ‘ㅇ와지이다’로 끝을 내어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느낄 수 있게 함.
- 영원 무궁한 사랑을 노래한 작품으로 가장 뛰어나다

745) 설의법, 영원한 사랑을 강조

746) <서경별곡>의 제2연이 첨가, 당시 이와 같은 구절이 널리 유행되었을거라는 추측가능, 고전가요 구전중에 삽입 가능성 보여줌

「흥망이 유수하니 ~」 - 원천석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747)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 | 로다748)』749)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750)에 부쳐시니751)

석양(夕陽)752)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계워 흐노라

*만월대: 개성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있는 고려의 왕궁 터 이름.

현대어풀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다 운수에 매어 있는 것이니, 화려했던 고려의 궁궐이 있던 만월대도, 이제는 시든 가을 풀만이 우거져 있을 뿐이로구나.

오백 년 고려의 왕업은 이젠 한낱 목동이 부는 구슬픈 피리 소리이나 담겨 있으니
해질 무렵 이 곳을 지나는 나그네(작자 자신)로 하여금 슬픔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구나.

1. 갈래 : 평시조
2. 성격 : 회고적, 감상적
3. 연대 : 고려 말
4. 제재 : 고려의 멸망
5. 주제 : 고려왕조의 패망에 대한 탄식과 허무함

<표현상의 특징>

- 초장의 시각적 이미지(만월대, 추초)와 중장의 청각적 이미지(목적)를 대조시켜서 표현
- 초·중장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나타낸 후에 중장에서는 객(客)에게 의탁한 자신의 회고의 정을 대비시키고 있다. 따라서 초·중장은 서경적이며, 중장은 서정적이다. 선경후정(先景後情)
- 다양한 비유적 시어를 사용하여 망국의 슬픔과 회한, 무상감을 절실하게 드러낸 문학성이 높은 작품이다
- 은유법, 영탄법, 중의법을 사용하여 표현

<내용상의 특징>

- 고려의 멸망에 안타까워하면서 ‘흥하고 망하는 것이 다 운수가 있다’고 하여 시운론(時運論)의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 이 시조에서 화자 자신을 중장에서 객(客)으로 표현하여 드러내고 있다.

747) 운수가 있으니

748) 가을 풀처럼 황폐하구나. 가을철의 시든풀과 쇠락한 고려왕조를 표상하는 중의적 표현

749) 만월대→영화로있던 고려 왕조[과거], 추초(秋草)→황폐한 왕궁의 무상감(현재)을 시각적으로 표현

750) 목동의 피리소리 애상적인 피리소리의 청각적 이미지

751) 남았으니

752) 지는 해(표면적 의미), 고려 왕조의 몰락(심층적인 의미)을 상징하는 중의적 표현

「오백년 도움지름」 - 길재

오백년(五百年) 도움지(都邑地)⁷⁵³를 필마(匹馬)⁷⁵⁴로 도라드니
 『산천(山川)⁷⁵⁵은 의구(依舊) ㅎ되⁷⁵⁶ 인걸(人傑)⁷⁵⁷은 간 디 업다』⁷⁵⁸
 『어즈버⁷⁵⁹ 태평연월(太平烟月)⁷⁶⁰이 쑤⁷⁶¹이런가 ㅎ노라』⁷⁶²

1. 갈래 : 평시조, 단시조, 정형시
2. 성격 : 회고적, 감상적, 영탄적
3. 연대 : 조선 초
4. 제재 : 고려의 멸망
5. 주제 : 고려왕조의 패망에 대한 탄식과 허무함

<표현상의 특징>

- 초 . 중장의 구상적 표현과 종장의 추상적 표현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 영탄적 어조를 통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어즈버'는 10구체 향가의 감탄사와 마찬가지로 시상을 전환하고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는 기능을 하는 감탄사로, 10구체 향가의 낙구 첫머리에 나타나는 감탄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내용상의 특징>

- 조선이 세워진 직후에 고려 왕조를 회고하며 지은 시조
- 고려의 옛 도움지인 개성(開城)을 둘러보며 회고의 정에 젖어 인생 무상(人生無常)을 노래
- 왕조 멸망의 한을 노래한 회고가(懷古歌) 중 대표적인 작품으로 '고려 유신의 외로운 신세'와 '흥성했던 고려 왕조'를 각각 '필마'와 '태평 연월'로, '인생의 덧없음'을 '꿈'으로 비유하였다

753) 고려의 수도, 개성

754) 혼자서 말을 타고. 이는 '벼슬하지 않은 신분'임을 뜻하는 말로서, 지은이가 고려 왕조에 대한 의리를 지켜 조선조에 출사하지 않았음을 의미

755) 무한한 자연

756) 옛날과 다름이 없으되

757) 뛰어난 인재(고려의 유신)

758) 『 』, 대구법 옛모습 그대로인 산천과 사라져버린 인걸을 대비하여 무상감 강조

759) 어어 (감탄사)

760) 태평하고 안락한 세월. 태령 성대(太平聖代). 강구 연월(康衢煙月). 여기서는 '고려의 융성했던 때'를 말함.

761) 무상감이 집약된 시어. 융성했던 고려왕조의 몰락이 한갓 꿈에 불과

762) 맥수지탄(麥秀之嘆)

「선인교 나린 물이」 - 정도전

『선인교(仙人橋)* 나린 물이 자하동(紫霞洞)*에 흘러드려』⁷⁶³⁾

반천 년(半千年) 왕업(王業)⁷⁶⁴⁾이 물소리⁷⁶⁵⁾뿐이로다⁷⁶⁶⁾

아희야⁷⁶⁷⁾ 고국 흥망(故國興亡)⁷⁶⁸⁾을 물어 무슨 흐리오⁷⁶⁹⁾

*선인교: 개성의 자하동에 있는 다리 이름.

*자하동: 개성 송악산 기슭에 있는 고을 이름

1. 갈래 : 평시조, 서정시
2. 성격 : 회고적, 감상적, 권유적
3. 연대 : 조선 초
4. 제재 : 물소리
5. 주제 : 고려왕조의 패망에 대한 탄식과 허무함

<표현상의 특징>

- 청각적 이미지, 영탄법,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드러냄.

<내용상의 특징>

- 지은이는 고려 왕조를 회고하면서도 시세에 따라 함을 은근히 드러냄
- 고려 왕업의 무상함을 노래한 조선 개국 공신의 회고가로, 망국의 슬픔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잊으려는 태도를 보여줌
- 고려의 멸망을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흐름으로 인식, 무상감에서 벗어나 현실에 충실할 것을 권유

763) 선인교, 자하동 모두 과거에 융성했던 고려 왕조의 표상

764) 고려 왕조 오백년의 업적

765) 고려 멸망의 허무감, 무상감을 표현, 청각적 이미지

766) 인지상정의 무상감을 표현

767) 영탄법

768) 고려 왕조의 흥과 망

769) 무상감을 극복하려는 개국 공신으로서의 면모, 설의법

「헌화가」 - 견우노옹

자춧빛⁷⁷⁰ 바위 가에 紫布岩乎过希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⁷⁷¹, 執音乎手母牛放教遣
 『나⁷⁷²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⁷⁷³ 吾矜不喻慚矜伊賜等
 꽃⁷⁷⁴을 꺾어 바치오리다. 花矜折叱可獻乎理音如

1. 갈래 : 4구체 향가
2. 성격 : 민요적, 서정적
3. 연대 : 신라 33대 성덕왕(8세기 초)
4. 제재 : 바위위의 꽃
5. 주제 : 꽃을 꺾어 바치는 사랑의 마음, 수로부인의 아름다움

<표현상의 특징>

- 가정법과 도치법을 사용
- 여인에게 꽃을 바치는 노인의 심정이 붉은 바위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묘사

<내용상의 특징>

- 신화적 인물이 인간(여성)에게 바치는 구애의 노래
- 주술성이나 종교적 색채 없이 아름다움의 상징적 인물인 수로 부인에 대한 순수한 예찬을 표현한 구애의 노래로, 신라인의 미의식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

770) 철쭉꽃의 빛깔, 수로 부인에 대한 노인의 강렬한 사랑의 마음과 관련되는 색

771) 행위의 원인은 수로부인에게 있음을 암시

772) 견우노옹 = 서정적 자아

773) 『 』, 가정법, 도치법

774) 아름다움과 사랑을 표상하는 소재이자, 수로부인을 향한 노인의 정서를 표현. 꽃을 꺾어다 바치며 대상을 찬양하고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는 '산화 공덕(散花功德)'의 전통은 고전 시가와 김소월의 시 등에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해가」 - 작자 미상

거북아 775)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龜乎龜乎出水路
 남의 부녀를 약탈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가. 776) 掠人婦女罪何極
 네 만약 거역하고 내어 바치지 않으면 777) 汝若悖逆不出獻
 그물 778) 을 넣어 사로잡아 구워서 먹으리라 779). 入網捕掠燔之喫

1. 갈래 : 고대가요, 7언 4구의 한역 시가
2. 성격 : 주술적, 집단적
3. 연대 : 신라 성덕왕
4. 제재 : 수로부인의 납치
5. 주제 : 수로부인의 귀환을 요구

<표현상의 특징>

- 설의법과 가정법을 사용하여 위협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 구지가의 '거북'이라는 중심 소재나 '호명 - 명령 - 가정 - 위협'의 구조가 그대로 계승되어 있다.

<내용상의 특징>

- 내용과 형식이 고대 가요 '구지가'와 매우 유사하여 '구지가'가 오랜 시간 구비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불행한 일을 당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주술요로, 사적인 인물인 수로 부인의 구출을 내용으로 한다

775) 수로를 납치한 바다의 용, 돈호법

776) 설의법

777) 가정

778) 거북을 징벌하는 수단이자 거북이 요구를 따르게 하는 도구

779) 위협

「훈계자손가」 - 김상용

이바 아희들아⁷⁸⁰ 내 말 드러 빈화스라⁷⁸¹
 『어버이 효도(孝道) 호고 어른을 공경(恭敬) 호야』⁷⁸²
 일생(一生)의 효제(孝悌)⁷⁸³를 닦가 어딘 일흠⁷⁸⁴ 어더라 <제1장>

사름이 되여 이셔 용훈⁷⁸⁵ 길로 덧녀스라⁷⁸⁶
 언충신 행동경(言忠信行篤敬)*을 염려(念慮)⁷⁸⁷의 넋디 마라
 내 몸이 용티곳⁷⁸⁸* 아니면 동내(洞內)엔들 덧니라 ⁷⁸⁹ <제3장>

말을 삼가 호야 노(怒)호온⁷⁹⁰ 제 더 츨아라
 『호 번을 실언(失言) 호면 일생(一生)의 뉘웃브노』⁷⁹¹
 이 중(中)의 조심 홀 거시 말슴인가 호노라 <제4장>

늬과 빠흠⁷⁹² 마라 빠흠이 해(害) 만호노
 『크면 관송(官訟)*이오 적으면 수욕(羞辱)이라』⁷⁹³
 무스 일 내 몸을 그릇 덧녀 부모 수욕(父母羞辱) 먹이리⁷⁹⁴ <제5장>

그른 일 몰나 호고 뉘우쳐 다시 마라
 알고도 쑈 호면 내중내⁷⁹⁵ 그르리라
 진실(眞實)로 허물곳 고티면⁷⁹⁶ 어딘 사름 되리라 <제6장>

빈천(貧賤)을 슬허 말고 부귀(富貴)를 불워 마라⁷⁹⁷
인작(人爵)* 곳 닦그면 천작(天爵)*이 오^느 니라⁷⁹⁸
 만사(萬事)를 하늘만 밧고 어딘 일만 호여라 <제7장>

일 니러 세수(洗手) 호고 부모(父母)의 문안(問安) 호고⁷⁹⁹
 좌우(左右)의 되와 이셔 공경(恭敬) 호야 섬기오디

780) 구체적 청자, 아희들아(아이들아)
 781) 배워라, 배우자
 782) 유교적 가치관
 783) 부모에 대한 효도와 어른에 대한 공경
 784) 어진이름, 훌륭한 명성
 785) 좋은, 바른, 옳은
 786) 다녀라, 행하여라
 787) 마음, (걱정의 뜻으로 쓰이지 않음)
 788) ‘곳’은 ‘곧’으로 앞말을 강조하는 보조사
 789) 언충신 행동경 하면 비록 오랑캐의 나라에도 행할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비록 고을에선들 행하겠는가?<논어>의 구절, 설의법
 790) 화날, 성날
 791) 뉘우치니, 후회하니 실언을 하면 일생동안 후회하게 된다. 가정표현
 792) 싸움
 793) 『 』, 수욕(부끄럽고 욕됨) 남과 싸우면 크기와 상관없이 문제가 됨. 대구법
 794) 설의법
 795) 나중에
 796) 그른 일을 뉘우쳐 다시 하지 않도록 강조
 797) 세속적 가치를 좇지 않기를 바람
 798)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하면 하늘의 복을 얻을 것, 인작이 천작으로 이어짐
 799) 효도의 방법 구체적으로 제시

여가(餘暇)의 글 비화 넘어 못 미칠 듯 하여라

<제9장>

*언충신 행동경: 말은 미덥게 하고 행동은 공손하게 함.

*용티곳: 착하지, 바르지.

*관송: 관청의 송사나 시비.

*인작: 사람이 주는 벼슬.

*천작: 하늘이 주는 벼슬.

1. 갈래 : 평시조, 연시조
2. 성격 : 교훈적
3. 연대 : 조선 중기
4. 제재 : 효도와 공경
5. 주제 : 바람직한 삶을 위한 조언

<표현상의 특징>

- 청자를 설정하여 대화를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
- 비교되는 어구를 제시하여 주제를 강조함
-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
- 명령형 문장 사용

<내용상의 특징>

-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다.
- 교훈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구절을 통해 드러남

「노처녀가」 - 작자 미상

인간 세상 사람들아⁸⁰⁰ 이내⁸⁰¹ 말씀 들어 보소⁸⁰²
 인간 만물 생긴 후에 금수 초목 짝⁸⁰³이 있다
 인간에 생긴 남자 부귀 자손 같건마는⁸⁰⁴
 이내 팔자 험곳을손⁸⁰⁵ 날 같은 이 또 있든가⁸⁰⁶
 백 년을 다 살아야 삼만 육천 날이로다
 혼자⁸⁰⁷살면 천년 살며 정녀 되면 만년 살까⁸⁰⁸
 『답답한 우리 부모 가난한 좀 양반⁸⁰⁹이
 양반인 체 도를 차려 처사가 불민하여⁸¹⁰
 괴망*을 일삼으며 다만 한 딸⁸¹¹ 늙어 간다』⁸¹²
적막한 빈방⁸¹³ 안에 적료하게⁸¹⁴ 홀로 앉아
 전전반측* 잠 못 이뤄 혼자 사설⁸¹⁵ 들어 보소
 『노망한 우리 부모 날 길러 무엇 하리
 죽도록 날 길러서 잡아 쓸까 구워 쓸까』⁸¹⁶
 인황씨* 적 생긴 남녀 복희씨* 적 지은 가취⁸¹⁷
 인간 배필 혼취⁸¹⁸함은 예로부터 있건마는
 어떤 처녀⁸¹⁹팔자 좋아 이십 전에 시집간다
 남녀 자손 시집 장가 뗏뗏한 일⁸²⁰이건만
 이내 팔자 기험하야⁸²¹사십까지 처녀로다
 이럴 줄을 알았으면 처음 아니 나올 것을⁸²²
 월명 사창* 긴긴 밤에 침불안석* 잠 못 들어⁸²³
적막한 빈방⁸²⁴ 안에 오락가락 다니면서
장래사⁸²⁵ 생각하니 더욱 답답 민망하다⁸²⁶

800) 불특정 다수의 청자에게 말하고 있다.

801) '나의' 강조

802) 말을 건네는 어투

803) 6행의 '혼자'와 대비

804) 남자들은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없다

805) 험곳은 것은

806) 설의법.

807) 2행의 '짝'과 대비

808) 혼자 살거나 처녀(정녀)로 산다고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809) 가난하고 좀스런 부모의 처지 및 화자의 상황을 알수 있음

810) 어리석고 둔하다

811) 화자 자신의 객관화

812) 『 』.부모에 대한 원망을 직설적으로 표현

813) 쓸쓸한 화자의 처지

814) 적적하고 고요하다

815) 화자 자신의 잔소리와 푸념을 길게 늘어 놓는 것

816) 『 』.부모에 대한 원망

817) 혼례, 오래 전부터 혼인이 있었음

818) 혼인

819) 화자가 부러워 하는 대상

820) 혼인의 정당성

821) 기구하여

822) 세상에 태어나지 말것을

823) 전전반측 과 비슷

824) 화자의 처지

825) 미래의 일

826) 직설적인 정서의 표현

부친 하나 반편⁸²⁷)이요 모친 하나 속맥불변⁸²⁸)
 날이 새면 내일이요 세가 쇠면⁸²⁹) 내년이라
 혼인 사설⁸³⁰) 전폐하고⁸³¹) 가난 사설⁸³²)뿐이로다
 어디서 손님⁸³³) 오면 행여나 증매신가
 아이 불러 힐문한즉 풍헌 약정* 환자* 재촉
 어디서 편지⁸³⁴) 왔네 행여나 청혼선가
 아이더러 물어보니 외삼촌의 부음이라
 애고애고 설운지고⁸³⁵) 이내 간장 어이할꼬
 『앞집에 아모 아기⁸³⁶) 벌써 자손 보단 말가
 동편 집 용골녀는 금명간에⁸³⁷) 시집가네』⁸³⁸)
 그동안에 무정세월 시집가서 풀련마는
 친구 없고 혈족 없어 위로할 이 전혀 없고
 우리 부모 무정하여 내 생각 전혀 없다
 부귀빈천⁸³⁹) 생각 말고 인물 풍채 마땅커든⁸⁴⁰)
 처녀 사십 나이 적소 혼인 거동 차려 주오⁸⁴¹)
 『김동이도 상처⁸⁴²)하고 이동이도 가치⁸⁴³)로다』⁸⁴⁴)
 증매 할미 전혀 없네 날 찾을 이 어이 없노
 『감정 암소 살져 있고 봉사 전답 같건마는』⁸⁴⁵)
 사족 가문⁸⁴⁶) 가리면서 이대도록⁸⁴⁷) 늣히노니
 연지분도 있건마는 성적 단장⁸⁴⁸) 전폐하고
 감정 치마 흰 저고리 화경 거울 앞에 놓고
 원산 같은 푸른 눈썹 세류⁸⁴⁹) 같은 가는 허리
 『아름답다 나의 자태 묘하도다 나의 거동
 흐르는 이 세월에 아까울손 나의 거동
 거울더러 하는 말이 어화 답답 내 팔자여
 갈데없다 나도 너도⁸⁵⁰) 쓸데없다 너도 나도』⁸⁵¹)

827) 지능이 모자란 사람

828)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829) 1년이 지나면

830) 혼담

831) 전혀 하지 않고

832) 가난 타령

833) 증매에 대한 기대감, 실제로는 ‘환자 재촉’ → 해학

834) 혼인에 대한 기대감, 실제로는 ‘외삼촌의 부음’ → 해학

835) 화자의 정서 직접 표출

836) 어느 처녀 아이

837) 오늘 내일, 가까운 시일내에

838) 『 』, 주변인물에 대한 부러움

839) 경제적 상황과 신분

840) 마땅하지만

841) 혼인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 표현

842) 아내와 사별

843) 이혼

844) 김동이, 이동이 모두 혼인 대상들의 예

845) 검정암소, 논과 밭(봉사 전답) 혼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은 갖추

846) 문벌이 좋은 양반집안

847) 이토록

848) 신부단장

849) 버드나무 가지

850) 나: 화자, 너: 거울 동병상련의 처지

851) 『 』, 도치법, 대구법

『우리 부친 병조 판서 할아버지 호조 판서
 우리 문벌 이러하니 풍속 좃기 어려워라』⁸⁵²⁾
 아연듯⁸⁵³⁾ 춘절 되니 초목 군생⁸⁵⁴⁾ 다 즐기네
 두견화⁸⁵⁵⁾ 만발하고 잔디 앞 속잎 난다
 삭은 바자⁸⁵⁶⁾ 쟁쟁하고 종달새 도루 뜬다
 춘풍 야월 세우 시⁸⁵⁷⁾에 독수공방 어이할꼬
 원수의 아이들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앞집에는 신랑 오고 뒷집에는 신부 가네
 내 귀에 듣는 바는 느낄 일⁸⁵⁸⁾도 하도 많다
 녹양방초⁸⁵⁹⁾ 저문 날에 해는 어이 수이 가노⁸⁶⁰⁾
 초로⁸⁶¹⁾ 같은 우리 인생 표연히 늙어 가니
 머리채는 옆에 끼고 다만 한숨뿐이로다⁸⁶²⁾
 긴 밤에 짝이 없고 긴 날에 벗이 없다
 앉았다가 누웠다가⁸⁶³⁾ 다시금 생각하니
 아마도 모진 목숨 죽지 못해 원수로다⁸⁶⁴⁾

*괴망: 말이나 행동이 괴상하고 망측함.

*전전반측: 잠 못 드는 모양.

*인황씨, 복희씨: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월명 사창: 달이 뜨는 창가.

*침불안석: 불안이나 근심 등으로 편안히 자지 못함.

*풍헌 약정: 풍헌과 약정. 향약 조직의 임원.

*환자: 환곡. 곡식을 백성들에게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1. 갈래 : 가사, 규방가사
2. 성격 : 애상적, 해학적, 풍자적
3. 연대 : 조선후기
4. 제재 : 노처녀가 겪는 슬픔과 한스러움
5. 주제 : 사대부의 체면과 가난 때문에 혼인의 기회를 놓친 노처녀의 슬픔

<표현상의 특징>

- 일정한 음보율과 음수율을 사용
-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 강조

852) 허울만 좋은 집안이라 혼인이 더욱 어려움

853) 어느덧

854)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자연물

855) 진달래꽃

856) 댕싸리 울타리

857) 봄바람 불고 밤에 달뜨고 가랑비가 올 때에, 화자의 외로움을 강조하는 배경

858) 슬퍼서 흐느낄 일

859)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

860) 세월이 흐르는 것에 대한 원망과 한탄

861) 풀잎에 맺힌 이슬 직유법 (금방 사라짐을 의미)

862) 노화의 한탄

863) 전전반측, 침불안석

864) 운명에 대한 원망

-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시작

<내용상의 특징>

- 화자의 기대감과 실망감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해학성 유발
- 신분에 얽매이는 양반가의 허위의식 비판
- 부모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직접적으로 표현

「상녀⁸⁶⁵」 - 작자 미상

어떤 재상의 딸이 출가했다가 한 해도 안 되어 남편이 죽고 친정에 와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⁸⁶⁶

하루는⁸⁶⁷ 재상이 안으로 들어오다가, 아랫방⁸⁶⁸에서 딸이 곱게 몸단장을 하고 자신을 거울⁸⁶⁹에 물끄러미 비춰 보다가는 거울을 내던지고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는 것을 보았다. 재상은 그 꼴을 보고 어쩌나 측은한 마음이 들던지 도로 사랑⁸⁷⁰으로 나와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⁸⁷¹

때마침 문하에 출입하던 잘 아는 무관이 들어와 문안을 드리었다. 그는 집도 없고 아내도 없는데, 나이 젊고 건장한 사람이었다.⁸⁷²

재상은 사람을 물리치고 조용히 말을 꺼냈다.

“자네 신세가 곤궁한데, 내 사위가 안 돼 줄라나?”

그는 황송하여,

“그 어인 분부이시온지? 소인이 무슨 뜻이온지 모르옵고, 감히 명령을 받을 수 없겠사옵니다.”

“내 농담이 아니다.”

하고 궤 속에서 한 봉의 은덩이⁸⁷³를 꺼내 주면서 하는 말이,

“이걸 가지고 가서 튼튼한 말과 교자⁸⁷⁴를 세내어 오늘 밤 통행금지 이후⁸⁷⁵ 우리 집 뒷문⁸⁷⁶ 밖에서 기다려라⁸⁷⁷. 시간을 어겨선 안 된다.”

그는 반신반의⁸⁷⁸하여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가서, 그 말대로 교자와 말을 준비하여 뒷문에서 대령하고 있었다.

이윽고 캄캄한데 ⁸⁷⁹재상이 한 여자⁸⁸⁰를 데리고 나와 가마 속에 들게 한 뒤에 무관에게 경계하기를,

“곧장 함경도⁸⁸¹ 땅으로 가서 살아라.”

그는 영문도 모른 채 하직하고 교자를 뒤따라 성 밖으로 나갔다.

재상은 돌아와 아랫방으로 들어가 통곡을 하며 딸이 자결했다고 하니,⁸⁸² 집안사람들이 모두 경황없이 애통하는 것이었다. 재상이 이내 하는 말이,

“이 애가 평소 누구에게도 자신을 보이려 하지 않았더니라. 내가 직접 염습⁸⁸³하겠으니 남매간이라도 아예 들여다보지 말아라.”

하고 자기 혼자 이불을 싸서 묶어 가지고 시체 모양을 꾸며서 흠이불로 덮어 둔 다음 비로소 사돈집에 통부⁸⁸⁴하고 입 관하여 그 시가의 선산⁸⁸⁵에 장사 지냈다.

865) 홀어미, 과부

866) 고위 관직의 딸이 청상과부가 된 상황

867) 이야기의 시작

868) 공간 1 딸의 처지를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공간

869) 딸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는 도구

870) 공간 2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색하는 공간

871) 딸에대한 연민의 마음

872) 무관의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

873) 무관이 딸과 함께 갈 수 있게 함

874) 가마

875)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시간적 배경)

876) 공간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속의 공간

877)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

878) 당대 신분차별과 재가금지 짐작가능

879) 통행금지 이후(시간적 배경)

880) 재상의 딸

881) 공간 4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공간

882) 당시 재가금지 풍습으로 인한 재상의 방법

883) 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갈아입히고 염포로 묶는 일

884) 사람의 죽음을 알림, 부고(訃告)

885)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공간 5 문제 해결을 위해 은폐되는 공간

1. 갈래 : 야담(野談)
2. 성격 : 근대적, 현실적
3. 연대 : 조선 후기
4. 제재 : 양반가문의 재혼
5. 주제 : 양반가의 재혼 금지와 인간 정욕에 대한 억압적 분위기 고발

<표현상의 특징>

- 한문으로 기록된 비교적 짧은 길이의 이야기
-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전개 시킴

<내용상의 특징>

- 청상과부인 '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
- 양반가문의 재혼의 어려움과 인간의 본능을 억압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줌
-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재상의 모습을 통해 부성애와 근대적 가치관 드러냄

「바리데기」- 작자 미상

[앞부분 줄거리] 천별산을 다스리는 오구 대왕⁸⁸⁶은 부인⁸⁸⁷을 찾기 위해 천하궁의 같이 박사⁸⁸⁸에게 길흉화복을 묻는다.

상궁에게 점괘를 일러 주었는데,
“아뢰옵기 황송하나, 금년에 길례⁸⁸⁹를 하면 칠 공주를 보실 것이요, 내년엔 길례를 하면 삼 동궁⁸⁹⁰을 보시리이다.⁸⁹¹”
상궁은 돌아와 그대로 아뢰었다. 상궁의 말을 들은 대왕은 웃으면서 말했다.

“문복⁸⁹²이 용하다고 한들 제 어찌 알쏘냐, 일각이 여삼추⁸⁹³요, 하루가 열흘 같은데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오구 대왕은 예조⁸⁹⁴에 택일을 명했다. 삼월 삼일에 초간택⁸⁹⁵을 봉하시고 오월 오일 단오는 이간택을 봉하시고, 칠월 칠일 견우직녀가 상봉하는 날을 길례⁸⁹⁶로 정하고 길례도감⁸⁹⁷을 설치한 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세월은 유수⁸⁹⁸와 같아 몇 달이 지나가니 길대 부인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 『수라에서는 생쌀 내가 나고, 중전마마가 드시는 물에서는 물속에 생기는 썩은 냄새나는 찌꺼기 내가 나고, 담배에 뜻내가 나고 국에서는 생장 냄새⁸⁹⁹가 나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⁹⁰⁰

대왕마마에게 아뢰자 대왕마마가 묻는다.

“몽사⁹⁰¹가 어떠하더이까?”

“예, 품안에 달이 돌아 뵈고 오른손에 푸른 봉숭아꽃 한 짝을 꺾어 들고 있더이다.”

대왕마마는 상궁에게 점을 보러 가라 명했다. 천하궁의 같이 박사는 점을 쳐 상궁에게 일러 준다.

“길대 중전마마의 태기가 분명하구나. 자식을 보시는데 여 공주를 볼 것이요.⁹⁰²”

그대로 상달하자,

“문복이 용하다고 한들 제 어찌 알쏘냐.⁹⁰³”

고 웃어넘긴다. 열 달이 되어 낳으니 공주였다. 공주의 탄생을 대왕마마께 아뢰자,

“공주를 낳았으니 세자인들 아니 낳쏘냐, 귀하게 길러라.”

하신다. 공주 애기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자 청대 공주라 하고 별호로 달이장 아씨라 하였다.

세월이 흘러 길대 부인은 또 잉태했는데, 몽사를 말하기를,

“품안에 칠성별⁹⁰⁴이 떨어져 보이고, 오른손에 붉은 봉숭아꽃 한 가지를 물고 있더이다.”

또 딸을 낳아 이름을 흥도 공주라 하고, 별호로 별이장 아씨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렸는데, 계속 딸이 태어나 딸만 육 형제를 두게 되었다.⁹⁰⁵

886) 바리공주의 부친

887) 길대부인, 바리공주의 모친

888) 다지(多智)박사. 용한 점쟁이로 박사는 남자무당을 가리키는 말

889) 길례(吉禮 : 관례, 혼례 등의 경사스러운 예식)

890) 황태자, 왕세자

891) 오구대왕이 일곱명의 딸을 낳게 됨을 암시

892) 길흉(吉凶)을 물음

893)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여 아주 짧은 시간도 삼 년처럼 느껴진다는 말

894) 예악, 제사 등을 관장

895) 왕비나 세자빈·세손빈·부마 등을 고를 때 첫 번째로 실시하는 간택

896) 관례나 혼례 등의 경사스러운 예식.

897) 예식과 절차를 맡는 임시로 설치하는 관청

898) 유수(流水 : 흐르는 물)

899) 끓이지 않은 장(醬)의 냄새.

900) 길대 부인이 아기를 잉태하여 입덧을 하고 있음

901) 꿈속의 일

902) 같이박사는 딸을 낳을 태몽으로 풀이

903)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에 같이 박사의 점괘를 믿지 않음

904) 복두칠성

905) 딸을 일곱 낳을 것이라는 점괘가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육 형제를 낳은 후 길대 부인은 다시 잉태하였다.
 “이번 몽사는 어떠하더이까?”
 “이번 몽사는 연약한 몸이 부지하기 어려울까 하나이다. 대명전 대들보에 청룡 황룡이 엉켜져 보이고 오른손에 보라매, 왼손에 백마를 받아 보이고 왼 무릎에 흑 거북이 앉아 뵈고 양어깨에는 일월⁹⁰⁶이 돌아 뵈더이다.”
 길대 부인의 말을 들은 대왕은 크게 기뻐했다.
 “그대가 이번에는 세자 대군을 낳겠구려.”
 그러고는 상궁에게 문복 갈 것을 명했다. 문복을 다녀온 상궁이 아뢰었다.
 “이번에도 공주를 본다고 합니다.”
 “점복이 용하다 한들 점복마다 맞출쏘냐. 이번 몽사는 세자 대군을 얻을 몽사로다.⁹⁰⁷”
 하며 사대문에 방을 붙여 옥문⁹⁰⁸을 열어 중죄인을 용서하게 하였다. 드디어 열 달이 되어 해산을 하였는데 또 딸이었다. 길대 중전마마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대왕은 길게 탄식하며 말하였다.
 “내 전생의 죄가 남아 옥황상제가 일곱 딸을 점지하였구나. 서해 용왕에게 진상이나 보내리다.⁹⁰⁹”
 옥장이 불러서 옥함⁹¹⁰을 짜게 하여 함 뚜껑에 ‘국왕 공주’라고 새기게 했다.
 중전마마가 탄식하며 말했다.
 “대왕마마는 모질기도 모지시다. 혈육을 버리려 하옵시니, 신하 중 자식 없는 신하에게 양녀로 주시지⁹¹¹.”
 대왕마마는 중전마마의 말을 듣지 않았다.⁹¹²
 “버리는 자손 이름이나 지읍시다.”
 “버려도 버릴 것이요 던져도 던질 것이니 ‘바리공주’라 지어라.⁹¹³”
 양 마마의 생월 일시와 아기의 생월 생시를 옷고름에 맨 후⁹¹⁴에 옥병에 젖을 넣어 아기 입에 물린 후 함에 넣었다. 금 거북 금 자물쇠, 흑 거북 흑 자물쇠를 채운 후에 신하를 시켜 바다에 버릴 것을 명했다. 앞에는 황천강, 뒤에는 유사강이 흐르는 여울⁹¹⁵에 한 번 던지니 용솟음하여 물으로 다시 나오고, 두 번째 던져도 물으로 다시 나온다. 세 번째 던지니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늘이 아는 자손이라 깊이 가라앉지 않고 금 거북이 나타나 지고 간다.⁹¹⁶

906) 그전의 태몽에서는 달, 복숭아꽃, 칠성별, 붉은 복숭아 꽃이 등장 평범한 딸이 태어났지만. 바리공주의 태몽에는 청룡, 황룡, 보라매, 백마, 흑거북, 일월이 등장해 비범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암시

907) 이전의 태몽과는 달라 이번에는 자신의 대를 이을 세자를 낳게 될 것으로 기대

908) 감옥의 문

909) 바다에 버리려고 함

910) 옥으로 만든 함(바리공주를 버리기 위해 만들)

911) 딸을 잃고 싶지 않은 길대 부인의 마음

912) 완고하며 비정한 인물

913) ‘바리공주’라는 이름을 갖게 된 내막

914) 바리공주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

915) 강이나 바다의 바닥이 얇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

916) 바리공주의 비범한 인물임이 드러남

1. 갈래 : 무조(巫祖)신화, 서사 무가
2. 성격 : 무속적, 교훈적, 신화적, 서사적
3. 제재 : 바리공주의 일상
4. 주제 : 바리공주의 고난과 희생을 통한 구원의 성취.

<서술상의 특징>

- 4·4조의 율격으로, 구연을 위한 운문체
- 죽은 사람의 원혼을 달래주고 극락천도를 기원하는 오구굿에서 가창
- 신의 내력담이 영웅서사구조에 따라 전개됨
- 바리공주의 탄생과정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됨

<내용상의 특징>

- 남존여비사상과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의식 드러남
- 바리공주를 통해 당시 여성의 수난을 형상화함과 동시에 소망을 반영
- 무속 제의에서 불린 구비문학으로 오락적, 문학적 기능을 가짐
- 죽음을 주관하는 무조신의 유래를 밝힘
- 영원히 살고자 하는 민중의 소망과 초월적 세계에 대한 염원 반영
- 유교, 불교, 도교, 무속의 혼합된 배경사상을 바탕

「임진록(壬辰錄)」- 작자 미상

백관이 주 왈⁹¹⁷,

“만민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남은 백성이 마자 함몰케 되었사오니⁹¹⁸ 원컨대 전하는 급히 처치하소서.”

왜왕이 서안(書案)⁹¹⁹을 치고 방성대곡⁹²⁰ 왈,

“방금 사세 여차(事勢如此)⁹²¹하니 경 등은 염려치 말라. 내 어찌 만민을 구치 아니하리오.”

하고 칼을 들어 자문(自刎)*코자 하거늘 신하 호걸산이 급히 들어와 읍주 왈⁹²²,

“전하는 아직 옥체를 보중⁹²³하소서.” / 하고 칼을 쥐고 문무백관⁹²⁴이 한가지로 사명당 앞에 나아가 복지 왈⁹²⁵,

“소국왕⁹²⁶이 무도⁹²⁷하여 부처님을 모르고 사죄(死罪)⁹²⁸를 지었사오니 복결⁹²⁹ 부처님은 덕택을 드리워 소국왕의 죄를 사(赦)하시고 억만창생⁹³⁰을 살리소서.”

하고 일시에 머리를 조아려 통곡하며 일제히 손을 고쳐 축수⁹³¹하거늘 사명당이 대로⁹³²하여 꾸짖어 가로되,

『“빨리 왜왕의 머리를 버혀 들어 생령⁹³³의 도탄⁹³⁴을 면하라.”』⁹³⁵

백관이 고두 사죄⁹³⁶ 왈, / 『“소신 등이 원컨대 왕명을 대신하여 각각 머리를 베어지이다.”』⁹³⁷

하거늘 사명당이 그제야 노를⁹³⁸ 잠깐 그치고 이르되,

“너의 정성을 감동하여 아직 용서하나니 빨리 왜왕을 결박하여 대하⁹³⁹에 꿇리라. 불연즉⁹⁴⁰ 왜왕의 머리를 버혀 가지고 일본을 탕멸⁹⁴¹하리라.”

중관⁹⁴²이 차언⁹⁴³을 듣고 왜왕에게 돌아가 그 수말⁹⁴⁴을 고하니 노산흥이 주 왈,

“사세 위급하오니 전하는 부처⁹⁴⁵의 말대로 하시면 생명을 보전하려니와 만일 지원⁹⁴⁶하면 대화(大禍)⁹⁴⁷ 당도하리이다.”

왕이 노산흥의 손을 잡고 통곡 왈, / “과인이 일찍 경의 말을 들었던들 어찌 오늘날 환을 만나리요.”⁹⁴⁸

917) 모든 관리들이 말하길

918) 사명당이 풍랑을 일으켜 일본백성에게 큰 피해가 발생

919) 책상

920) 대성통곡(大聲痛哭 : 큰소리로 몹시 슬프게 곡을 함)과 같은 말

921) 일이 되어가는 형세가 이와 같음

922) 읍(搦)하면서 아뢰어 말하길

923) 몸을 유지하다

924) 문관과 무관 모든 신하

925) 땅에 엎드려 말하길

926) 일본왕

927) 도리에 어긋나다

928) 죽어 마땅한 죄

929) 엎드려 뵈

930) 수많은 백성

931) 손을 마주대고 빌다

932) 크게 노하다

933) 살아 있는 낚, 생명

934) 몹시 곤궁하고 고통스러운 지경

935) 『 』 ‘일본왕의 머리를 베어오면 살려주겠다’는 의미

936) 머리를 조아리며 잘못을 뵈

937) 자신들이 대신 죽고자 하며 일본왕에 대한 충성심 표현

938) 분노를

939) 대의 아래

940) 그렇지 않으면

941) 모조리 멸망시킴

942) 내시

943) 이 말을

944) 일의 시작과 끝

945) 사명당

946) 더디고 느슨하다

947) 큰 재앙

하고 하릴없이⁹⁴⁹ 흰옷을 입고 스스로 결박하여 문무백관을 거느려 『항표(降表)⁹⁵⁰』를 가지고 사명당 앞에 나아가 복지 청죄(伏地請罪)⁹⁵¹한대』⁹⁵² 사명당이 고성대매(高聲大罵)* 왈,
 “왜왕은 들으라. 『너희 나라가 근본 진시황(秦始皇)의 신하로 동남동녀 오백 인을 배에 싣고 방장(方丈) 봉래(蓬萊) 영주(瀛州) 삼신산(三神山)⁹⁵³에 들어가 불사약(不死藥)을 얻으러 가노라 하고 천자를 속이고 이곳에 도망하여 거짓 신선이라 칭하고 여러 대를 평안히 지내매』⁹⁵⁴ 또한 조선 덕택이요, 너도 또한 『천상 익성(天上翼星)⁹⁵⁵』으로 반도회(蟠桃會)⁹⁵⁶에 참여하여⁹⁵⁷ 월궁항아(月宮姮娥)⁹⁵⁸를 희롱한 죄로 상제께 득죄하고 인간에 적거(謫居)⁹⁵⁹하여 대왕이 되었거늘』⁹⁶⁰ 임자년에 외람한 의사를 내어 조선을 침노하여 생명을 많이 살해하매 상천(上天)이 진노하사 극벌(極罰)⁹⁶¹을 내려 너희 장졸을 다 멸하였거늘 네 아무리 속객(俗客)이 되었은들 아득히 알지 못하고 조선을 침범코자 뜻을 다시 내매 상제 노하사 사해용왕⁹⁶²을 주시고 너희 죄상을 물으라하시매 내 특별히 문죄하나니 어찌 감히 거역하느냐, 빨리 머리를 베어 들이라.”

왜왕이 돈수⁹⁶³ 청죄 왈, / “소왕⁹⁶⁴이 밝지 못하여 천위(天威)⁹⁶⁵를 범하였사오니 덕택을 드리워 죄를 용서하소서.”

사명당 왈, / “네 이제는 순종할쏘냐.”

왜왕이 사죄 왈, / “수화 중(水火中)이라도 어찌 사양하리이까.”

사명당 왈, / “네 그러면 예단(禮緞)⁹⁶⁶을랑 말고 인피(人皮) 삼백 장씩 매년 진공(進貢)하라.”⁹⁶⁷

왜왕이 이 말을 듣고 주저하여 진시 답지 못하거늘 백관이 주 왈, / “전하는 근심 말으시고 윤종*하소서.”

왕이 마지못하여, / “그대로 하리이다.”

하거늘 사명당이 또 이르되, / “그러면 문서를 써 올리라.”

왜왕이 이에 문서를 써 올리거늘, / 사명당 왈, / “차후는 생심⁹⁶⁸도 외람한 뜻을 두지 말라.”

왕이 돈수 청명⁹⁶⁹하거늘 이에 용왕을 불러 왈,

“이제 왜왕이 항복하매 죄를 사하였으니 용왕은 풍운뇌우(風雲雷雨)를 거두라.”⁹⁷⁰

하니 즉시 천지 명랑⁹⁷¹하고 일색이 조요⁹⁷²하니 일본 군신 백성이 저마다 놀라고 칭찬하며 과연 생불⁹⁷³이라 하더라.

*자문: 스스로 자신의 목을 베거나 찌름. 또는 그렇게 하여 죽음.

*고성대매: 크고 높은 목소리로 호되게 꾸짖음.

*윤종: 남의 말을 좇아 따름.

948) 과거에 일본왕이 노산흥의 충고를 듣지 않음

949) 어쩔 도리 없이

950) 항복할 의사를 적에게 알리는 글.

951) 땅에 엎드려 죄를 청함

952) 『 』 실제 역사적 사실과 다름

953) 봉래, 방장, 영주를 상징

954)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 보낸 신하들이 일본을 세웠다는 전설

955) 별자리 중 하나로 바다뱀자리

956) 복숭아 연회, 서왕모의 생일 축하연

957) 참여하여

958) 전설에서 달에 있는 궁에 산다는 선녀

959) 귀양살이

960) 왜왕의 전생

961) 혹독하게 벌함

962) 전설에서, 동서남북의 네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는 용왕.

963) 머리를 조아림

964) 일본왕이 자신을 낮추어 이름

965) 제왕의 위엄

966) 예물로 보내는 비단

967) 사람을 죽여서 바치라는 뜻. 충성심의 요구

968)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먹음

969) 부수청명(俯首聽命 : 고개를 숙이고 명령을 따른다는 뜻으로,윗사람의 위엄에 놀려 명령대로 좇아 행함을 이르는 말)

970) 용왕에게 명령할 정도인 사명당의 위세

971) 흐린데 없이 밝고 환함

972) 밝게 비쳐서 빛남

973) 살아있는 부처

1. 갈래 : 역사소설, 군담소설
2. 성격 : 전기적(傳奇的), 설화적
3. 시점 : 전지적 작가시점
4. 배경 :
 시간 -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 전후
 공간 - 조선팔도 및 왜국
5. 제재 : 임진왜란 당시 영웅들의 활약
6. 주제 : 임진왜란의 패배에 대한 정신적 보상 및 민족적 자긍심 고취

<서술상의 특징>

-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사명당의 감정과 생각, 행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
-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화와 혼용하여 소설로 창작
- 영웅적 인물들이 활약하는 애국적 무용담을 순차적으로 엮음
- 우리나라 군담 소설의 대표작

<내용상의 특징>

- 임진왜란의 패배로 인해 위축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고취하기 위해 창작됨
- 민족적 응전(應戰) 의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허구를 가미함
- 임진왜란 중에 활약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며 민중의 정서와 역사의식에 따라 변용

최척전 - 조위한

[앞부분 줄거리] 남원에 살던 최척과 옥영 가족은 여러 차례의 전란을 거치며 이별과 재회를 반복한다. 최척은 부인 옥영과 생이별 후 극적으로 재회한 뒤 명나라에 정착하여 둘째 아들 몽선을 낳고, 몽선은 커서 홍도라는 여인과 혼인을 한다. 그러나 후금이 전쟁을 일으키자 최척은 참전하며 가족들과 이별하는데, 전쟁 중에 포로가 된 최척은 그곳에서 우연히 조선의 원병으로 징병되어 온 맏아들 몽석을 만나 몰래 도망쳐 고향으로 돌아온다.

몽석은 아버지를 살려 준 중국 사람의 은혜에 감격하여 장차 후하게 보답하려고 그를 데리고 왔었다.⁹⁷⁴ 최척은 가족과의 감격스러운 해후를 마치고 나서 중국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중국 사람이라면 집은 어디에 있으며 성명은 무엇입니까?” / 중국 사람이 대답했다.

“내 성은 진(陣)이요, 이름은 위경(偉慶)이며, 집은 항주 용금문 밖에 있습니다. 만력⁹⁷⁵ 연간에 조선으로 원정을 온 뒤 유 제독 휘하에 있었습니다. 『유 제독은 전라도 순천에 진을 쳤는데, 하루는 제가 적세⁹⁷⁶를 염탐하다가 주장(主將)⁹⁷⁷의 뜻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주장이 장차 군법으로 다스리려고 하기에 밤에 몰래 달아나서 여기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⁹⁷⁸”

최척이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 “당신 집안에 부모와 처자가 있습니까?”

중국 사람이 말했다.

“집안에 아내와 딸아이 하나만 있었는데, 딸아이는 내가 떠나올 때 낳은 지 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았었습니다.”⁹⁷⁹

최척이 또 물었다. / “딸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중국 사람이 말했다.

“아이를 낳는 날, 마침 이웃 사람이 복숭아를 보내왔기에 이름을 홍도(紅桃)라고 지었습니다.”

최척이 갑자기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괴이하도다! 괴이하도다! 내가 항주에서 당신의 집과 이웃해서 살았었습니다. 당신의 처는 신해년 9월에 병으로 죽고 홍도만 혼자 남게 되었는데, 홍도는 이모부인 오봉림의 집에서 길러져 내가 둘째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여기에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⁹⁸⁰

▶ 최척이 사돈 지간인 진위경을 만나게 됨.

(중략)

순천에 이르자 배를 다리에 정박시켜 놓고 세 사람을 내려 주었다. 이때가 경신년 4월이었다. 옥영과 몽선, 홍도는 5, 6일을 걸어서 남원에 도착하였다. 옥영은 마음속으로 집이 온통 난리 중에 함몰되었을 것이기에 단지 옛 집터만을 찾아가려고 생각하였다.⁹⁸¹ 감회에 젖어 두루 돌아보며 먼저 만복사를 향해 갔다. 금교옆에 이르러 앉아서 바라보니, 성곽이 완연하였으며⁹⁸² 시골의 집들도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옥영은 몽선을 돌아보고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너의 아버지 집이었는데, 지금은 누구의 집이 되었는지 모르겠구나. 모두 가서 하룻밤 머물러 자면서 옛날 일이나 돌이켜 보자꾸나.”⁹⁸³

『옥영 일행이 곧 일어나 그 집 문 앞으로 나아가 보니, 최척과 그의 아버지가 수양버들 아래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형제가 놀라서 서로 부둥켜안고 통곡을 하였다. 진위경도 와서 자기 딸과 상봉을 하였으며,⁹⁸⁴ 심 씨는 허둥지둥 달려 나와 딸 옥영을 끌어안고 통곡하다가 기절하고 말았다. 모두들 꿈이요, 세상에

974) 최척을 살려준 중국인을 고향에 데리고 옴.

975) 중국 명나라 황제 만력제(萬曆帝)의 연호(1573~1620)

976) 적의 세력이나 형세

977) 우두머리가 되는 장수

978) 『』: 장수의 뜻을 어기고 탈영하여 조선에 발이 묶인 진위경.

979) 진위경은 딸 홍도가 갓난아기일 때 이별했음.

980) 조선에 도착해서야 진위경과 대화를 나누던 중 진위경이 몽선의 장인임을 알게 됨. 진위경의 사연을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음.

981) 옥영은 전란 중에 집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예상함.

982) 성곽이 완연하게 남아 있다.

983) 당연히 전란 중에 집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함.

984) 헤어질 때 몇 개월 안됐던 딸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있음.

진짜로 벌어진 일이 아닌 듯이 슬픔과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였다. 이 광경을 보기 위해 사방의 이웃들이 구름처럼 몰려 들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기괴한 놀이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겪었던 옥영와 흥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는 모두들 놀라며 축하하고, 서로들 말을 전해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다.』⁹⁸⁵⁾

▶ 고생 끝에 가족과 재회하는 옥영

- 조위한, 「최척전(崔陟傳)」

1. 갈래 : 한문 소설, 군담 소설, 애정 소설
2. 성격 : 사실적, 불교적, 우연적
3. 배경 : 시간-조선 시대, 공간-조선의 남원, 일본, 중국, 안남(베트남)
4. 제재 : 가족의 이산과 재회
5. 주제 :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특징>

- '만남-이별-재회'를 반복해서 보여줌.
- 전쟁으로 인한 당시 백성들의 고초를 사실적으로 표현함.
- 실제로 일어난 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함.
- 조선을 넘어 중국, 일본 안남 등으로 공간적 배경을 확장시킴.
- 고전소설의 특징인 우연성이 다수 등장함.

985) 『』: 주인공은 물론 등장인물 모두가 재회하여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복한 결말로 끝남.

주생전 - 권필

[앞부분 줄거리] 뛰어난 능력을 지녔으나 과거를 포기하고 장사꾼으로 배(986)를 타고 떠돌던 주생은 어느 날 어릴 때 살던 곳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어릴 때 함께 놀았던 배도라는 기생을 만나 사랑에 빠져 함께 살게 된다. 그러나 주생은 이웃 승상 덕 딸 선화에게 한눈에 반하고, 선화의 동생 국영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승상 덕에 머물며 선화와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배도가 눈치챈다.(987)

주생은 어쩔 수 없이 다른 핑계를 대고 다시 배도의 집으로 돌아갔다.(988) 배도는 주생과 선화의 관계를 알게된 뒤부터는 다시는 주생을 선랑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이는 마음속으로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989) 주생은 오로지 선화만을 생각하느라고 날로 여위고 수척해 갔으며, 20여 일 동안이나 병을 핑계 대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뒤 뜻하지 않게 국영(990)이 병이 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생은 제물을 갖추고 가서 국영의 널(991) 앞에서 제사를 올렸다. 『선화 또한 주생 때문에 병이 들어 움직일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는데, 갑자기 주생이 왔다는 말을 듣고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나 소복단장(素服丹粧)(992)을 하고 홀로 주렴 안에 서 있었다.』(993) 주생은 제사를 마친 후 멀리 서 있는 선화에게 눈길로 마음을 보내고 나왔으나, 고개를 숙이고 머뭇거리며 눈동자를 돌린 순간에 이미 선화의 모습은 아득하여 다시 볼 수가 없었다.

▶ 국영의 장례에서 선화와 주생이 다시 만남

몇 개월이 지난 뒤 배도마저 병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배도는 죽어 가면서 주생의 무릎을 베고 눈물을 머금은 채 말했다.

“저는 봉비의 뿌리로서 송백의 넉넉한 그늘에 의지하였는데, 어찌 꽃향기가 없어지기도 전에 소쩍새가 먼저 울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곧 낭군과는 영영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비단옷이나 거문고 가락도 이제는 끝났으며, 낭군과 해로하고자 했던 오랜 소원마저도 이미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994) 다만 제가 죽은 뒤 낭군께서는 선화를 배필로 맞이하고, 제 유골을 낭군이 왕래하는 길가에 묻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995) 그러면 저는 비록 죽었을지라도 산 것과 다를 이 없을 것입니다.”

배도는 말을 마친 후 기절했다가 한참 후에 다시 깨어나 눈을 뜨고 주생을 보면서 말했다.

“주랑이여, 주랑이여! 부디 귀하신 몸을 소중히 하소서.”

배도는 연이어 이 말을 몇 차례 하더니 결국은 죽고 말았다. 주생은 크게 통곡하고, 배도의 소원대로 호수와 산을 끼고 있는 큰길가에 장사 지냈다.(996)

▶ 사랑을 잃은 괴로움에 죽게 되는 배도

(중략)

주생은 새벽녘까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떠나면 선화와 영영 이별할 것 같고, 머물고 싶어도 배도와 국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의탁할 곳이 없었다. 이리저리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뽀족한 수가 없었다. 날이 밝음에 어쩔 수 없이 돛을 올리고 노를 저어 나아가니, 선화네 집과 배도의 무덤이 차례로 보이다가 점점 멀어져 갔다. 배가 강물을 따라 산을 돌아 나가는 순간 이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 다시 목적지 없이 고향을 떠나게 된 주생

- 권필, 「주생전(周生傳)」

986)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는 삶을 상징

987) 한남자와 두여자의 삼각관계

988) 배도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음을 보여줌.

989) 선랑이 배도가 주생을 부르는 애칭임을 알 수 있음.

990) 선화의 동생

991) 시체를 넣는 관이나 곱 따위

992) 아래위를 하얗게 차려입고 곱고 맵시 있게 꾸밈. 또는 그런 차림

993) 『』: 거동이 불편하지만 주생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큼.

994) 주생과 혼인하여 백년해로하고자 했던 배도의 마음.

995) 배도는 죽어서도 주생을 보고 싶어함.

996) 배도의 죽음을 슬퍼하며 유언을 들어주는 주생.

*저는 봉비의 뿌리로서 ~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버림받은 여자이지만 당신의 은덕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리 빨리 생을 마감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라는 의미.

1. 갈래 : 고전 소설, 한문 소설, 액자 소설
2. 성격 : 사실적, 비판적
3. 배경 : 중국 명나라
4. 제재 : 세 남녀의 사랑과 이별
5. 주제 : 운명에 대한 인간의 나약성과 비극적 사랑

<특징>

- 비현실적인 요소가 없음
- 서정시가 많이 삽입되어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외부 이야기는 '나'와 주생의 만남으로 내부 이야기는 주생의 사랑이야기로 액자식 구성
- 공간과 인물의 처지에 따라서 심경의 변화가 생김

콩쥐팥쥐전 - 작자미상

하루는 감사가 신기(身氣)⁹⁹⁷ 불평(不平)하여 일찍이 공사를 마치고 연못 앞으로 배회⁹⁹⁸하노라니, 못 가운데로부터 전에 없던 연꽃 한 줄기⁹⁹⁹가 특별히 높게 솟은 것이 꽃도 기려(綺麗)¹⁰⁰⁰함이 비길 데 없으므로 자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 꽃을 꺾어다가 연당¹⁰⁰¹ 방문 위에 꽂아 놓고 무한히 사랑하기를 마지아니하는데, 팥쥐는 일찍이 깨닫는 일이 있으므로 그런 꽃이 별안간 그다지 기려하게 솟은 일에 대하여도 심히 괴상하게 생각하는 중 더욱 괴상하기 심한 것은 영감¹⁰⁰²만 그 방을 떠나면 팥쥐가 들어오고 나갈 적마다 그 꽃 속에서 무슨 손 같은 것이 팥쥐의 머리를 바당바당 쥐어뜯는지라.¹⁰⁰³ 한 번 두 번만 그러함도 아니요 번번이 뜯기를 마지아니하는¹⁰⁰⁴ 고로 팥쥐는 크게 놀랍고 아주 미워하여, ‘요것이 필연 콩쥐 년의 귀신이 붙은 것이다.’ 하고, 그 꽃을 빼어 불 아궁이에 넣었더라.

▶ 꽃이 계속해서 팥쥐를 괴롭히자 죽은 콩쥐라고 생각하여 꽃을 불태에 태워 버림.

그런 후에는 과연 머리도 뜯는 것 없고 팥쥐의 마음은 무한히 상쾌하여 ‘콩쥐 년, 제아무리 죽은 귀신이 비록 영독* 할지라도 나의 알콩달콩 깨박이 쏟아지게¹⁰⁰⁵ 사는 것이 배만 아플 뿐이지, 다시는 별수 없으리라.’하고 그제서는 콩쥐의 세간¹⁰⁰⁶도 뒤장질¹⁰⁰⁷하여 제 마음대로 채를 잡으려¹⁰⁰⁸ 하였다.

▶ 콩쥐인 척하며 감사 부인 노릇을 하는 팥쥐의 모습.

다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은 이웃집 할미¹⁰⁰⁹ 하나가 있어 불씨를 얻으려고 감사 덕 내아¹⁰¹⁰에 들어와 이왕¹⁰¹¹ 감사 부인과 친한 까닭으로 바로 연당 아궁이에 이르러 불을 떠 가려 하는데, 아궁이 속의 불은 씨도 없이 꺼지고 난 데없는 오색 구슬이 한 아궁이나 대글대글¹⁰¹²하므로 노파는 탐나는 마음에 허겁지겁 그 구슬을 모두 치마 앞에 쓸어 담아 가지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쉬쉬하며 반달이¹⁰¹³ 속에 감추어 두었더니, 천만뜻밖에 반달이 속으로부터 ‘할멈, 할멈’ 부르는 소리¹⁰¹⁴가 흡사한 감사 부인 목소린지라.

노파는 놀라 반달이 문을 열고 본즉 완연한 감사 부인이 어찌한 까닭인지 그 속에 앉아 노파에게 반색¹⁰¹⁵을 하며 가로되,

“내가 본대 콩쥐라 하는 사람인 것은 김 감사와 혼인할 때에 이 골 사람이 모르는 자가 없거니와, 우리 서모¹⁰¹⁶의 데리고 들어온 딸 팥쥐라 하는 계집아가이 있어 항상 나를 모해코자 하다가 이번에 무슨 정으로 나를 찾아왔다가 여차여차하였다.¹⁰¹⁷”

그 연못에 빠져 죽은 사실까지 낱낱이 고하고, 다시 노파의 귀에 입을 대고 여차여차하여 달라는 묘계¹⁰¹⁸를 가르쳐 주는지라.

▶ 콩쥐가 오색 구슬에서 나타나 노파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함.

노파는 이상도 스럽고 무서운 생각에 머리를 조아리며 응낙하고 그 묘계를 시행할 새, 남에게 빛도 내고 여간 벗섬

997) 몸의 기력

998) 이리저리 돌아다님.

999) 죽은 콩쥐의 환생

1000) 곱고 아름다움

1001) 연꽃을 구경하기 위하여 연못가에 지어 놓은 정자

1002) 감사

1003) 팥쥐에게 분풀이하는 콩쥐 → 현실적이지 않음.

1004) 계속해서 팥쥐를 괴롭히는 콩쥐의 현신.

1005) 깨가 쏟아지다: 오붓하거나 몹시 아기자기하여 재미가 나다.

1006)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

1007) 물건 따위를 뒤져내는 일.

1008) 주도권을 잡다.

1009) 콩쥐의 조력자

1010) 지방 관아에 있던 안채

1011) 이전

1012) 가늘거나 작은 물건들 중에 몇 개가 드러나게 조금 굵거나 큰 모양.

1013) 앞의 위쪽 절반이 문짝으로 되어 아래로 젖혀 여닫는 꺾 모양의 가구

1014) 죽은 콩쥐의 목소리 → 현실적이지 않음.

1015) 매우 반가워함.

1016) 아버지의 첩, 계모

1017) 팥쥐가 콩쥐를 시샘하여 연못으로 유인해 빠뜨려 죽게 한 일

1018) 노파의 집으로 감사를 초대해 달라고 부탁함.

도 쥘어 팔아 돈을 장만하여 가지고 진수성찬으로 잔치를 배설¹⁰¹⁹한 후 거짓 노파의생일이라 하여 노파가 친히 김 감사 찾아뵈옵고 친절히 여짜오되,

“오늘은 소인의 생일이온데 변변치 못하오나 음식을 조금 준비하였삽기에 감히 사또의 행차를 청하오니 누추한 천인의 집일지라도 백성의 솜는 정을 하렴하옵서 잠시 행차하옵시면 한 잔 박주(薄酒)라도 관민(官民)이 함께 즐기어 볼까 하옵나이다.”

하며 재삼¹⁰²⁰ 앙청(仰請)¹⁰²¹하거늘, 감사도 그 뜻을 가상히 여겨 초초히* 노파의 집에 행차하니, 노파는 본대 아전의 계집으로 처음 사또의 행차하는 영광을 얻었는지라 크게 좋아할 뿐 아니라, 동리 사람까지 아무네 집에 감사가 행차하신다 하여 구경 겸 모이는 사람이 노파의 집을 가득히 채웠더라. ▶ 노파가 콩쥐의 부탁대로 묘

책을 실행에 옮김.

감사가 노파의 집에 이르러 상을 받으니, 온갖 음식이 안목을 황홀할 만치 없는 것이 없이 고배*하였는지라. 감사가 크게 칭찬하고 술을 부어 두어 잔 마신 후 이것저것 맛볼 생각으로 젓가락을 들어 한번 상에 굴리니 한 짝은 길고 한 짝은 짧은 것이 손에 잡히지 아니하므로 심중에 노파의 소홀함을 꽤심히 생각하여 좋지 못한 기색으로 참다못하여 젓

가락의 짝 틀림을 말하니, 노파는 미처 대답하기 전에 홀연 병풍 뒤로부터 사람의 음성이 있어 그 말에 대답하되,

“젓가락 짝 틀린 것은 어찌 저렇게 똑똑하게 아시는 양반이 사람 짝 틀리는 것은 어찌 그렇게 모르시노?”¹⁰²²하는지라.

/ 감사가 대경하여 잠깐 말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 생각하여도 깨닫지 못할지라. ‘내외의 짝이 틀리다니 이 어찌 된 말인가 하는 그자가 사람인가 귀신인가?’ 하여 그윽히 생각하다가 그사이 자기 아내¹⁰²³의 행동이 종종 괴상한 일이 있음을 맹렬히 깨닫고 필연 콩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라 하여 얼른 집에 돌아가 알아보리란 마음에 진수성찬도 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밑에는 바늘방석을 깔 것이나 다름없이¹⁰²⁴ 일편 정신이 집에 돌아갈 마음뿐이라.

마지못해 노파에게 치사하며 상을 물리고 일어서려 할 즈음에 병풍 뒤로부터 한 미인이 녹의홍상(綠衣紅裳)¹⁰²⁵으로 천연히 나와 감사에게 예하며 가로되, / “영감이 첩¹⁰²⁶을 몰라보시나이까?”

하거늘 감사는 더욱 경의함을 마지아니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이르는 말이,

“부인이 어찌 사람을 속이면 어찌 이같이 심할 수 있으리오? 내가 불민하든지¹⁰²⁷ 그대의 조롱이든지 이때껏 하는 일과 하는 말은 전연히 깨달아 알 수 없으니 그럴 것 없이 빨리 이야기하여 사람의 답답한 가슴을 헤쳐 주기를 바라노라.”

물음에 대하여 콩쥐는 그 자리에 엎드려지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못하는 목소리로 하는 말이,

“첩이 일찍이 팔자가 기구하다가 영감의 후의로 좋은 지위에 이르렀삽기 배우지 못한 이 몸으로도 마음것은 받들어 보리라 생각하였삽더니, 불의에 의붓동생 팔쥐라 하는 계집아이의 독해(毒害)를 입어 몸은 벌써 연못 귀신이 되었사오나, 본래 첩의 성질이 악함이 없으므로 상제께서 특별히 세상에 재생케 하였삽기로 미진한 인연을 말끔할까 하고 주인 노파의 신세를 끼치었사오니, 영감께서는 이제 이렇게 된 이상에 다른 생각을 두지 마시고 그 팔쥐와 함께 안향(安享)¹⁰²⁸하심을 바라나이다.”

하고 느끼어 울기를 마지아니하므로, 감사는 듣기를 다하고 일변 자기의 불명(不明)함도 부끄럽고 팔쥐의 소행이 절통하여, 곧 선화당에 좌기하고 팔쥐를 잡아 문초하며 일변 연못을 치게 하니, 과연 콩쥐의 신체가 옷은 낮으로 누워 있는 지라. / 급히 건져 내어 염습¹⁰²⁹하려 할 즈음에 죽었던 콩쥐는 다시 숨을 통하며 완전히 회생¹⁰³⁰하고 그때에 노파의 집에서 울기를 마지아니하던 콩쥐는 온데간데없이 없어졌으므로 모든 관속(官屬)¹⁰³¹과 읍내 백성까지 그 신기한 일을

1019) 연회나 행사에 쓰는 물건을 차림.

1020) 두세 번

1021) 우러러 청함.

1022)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감사에게 상황을 일깨워줌.

1023) 팔쥐가 콩쥐 대신 아내 행세를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함.

1024) 좌불안석(坐不安席):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 안절부절 못하다.

1025)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의 옷차림.

1026) 콩쥐가 자신을 이르는 말.

1027) 어리석고 둔하여 재빠르지 못하든지

1028) 하늘이 준 복을 평안하게 누림.

1029) 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갈아입히고 염포로 묶는 일

1030) 부활 모티프

1031) 지방 관아(官衙)의 아전과 하인을 통틀어 일컫는 말.

놀라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더라.

*영독: 모질고 독살스러움.

*초초히: 바쁘고 급하게.

*고배: 과일, 떡 등의 음식을 그릇에 높이 괴어 담음.

1. 갈래: 가정 소설
2. 성격: 설화와 매우 유사한 서사 구조
3. 배경: 시간-조선 중엽, 장소-전라도 전주 부근
4. 제재: 선한 콩쥐의 행실과 계모와 팔쥐의 구박
5. 주제: 괴롭힘을 견디는 콩쥐의 인생 역정과 권선징악(勸善懲惡)

<특징>

- 서양의 신데렐라 설화와 매우 유사한 서사 구조를 지님.
- 혼인 이후의 콩쥐의 죽음, 계모와 팔쥐에게 복수하는 부분은 설화에 없는 허구적인 창작.
- 변신 모티프가 포함되어 사건 전개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이춘풍전」 - 작자미상

[앞부분 줄거리] 평양 기생 추월에게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그 집에서 사환* 노릇을 하고 있는 남편을 찾기 위해, 춘풍의 아내는 평양 감사로 부임하는 김 승지를 따라 비장* 차림으로 남장을 한 채 평양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춘풍의 아내는 추월을 잡아들여 매를 치고 추월에게 춘풍의 돈을 물어내게 한다.¹⁰³²⁾

비장¹⁰³³⁾이 사또 전에 여짜오되, 춘풍과 추월을 처치한 말씀을 낱낱이 다 고하고 조용히 여짜오되,
“내일 하직하고 경성으로 가려 하오니 사또님 덕택으로 추월에게 분부하여 자모지례*로 오천 냥을 몰 수(沒數)이 소쇄¹⁰³⁴⁾하여 춘풍에게로 보내기를 천만 바라나이다.”

사또 허락하고, 이튿날 하직하고 상덕한* 돈 수만 냥을 환전¹⁰³⁵⁾으로 부쳐 놓고, 인하여 발행(發行)할새 평양을 하직하고 경성으로 올라와서 환전 돈을 즉시 찾고 춘풍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평양 사또 본관이 분부하되, 추월을 잡아들여 돈 바치라 성화하되, 십 일 다 못 하여 오천 냥을 다 바 치니¹⁰³⁶⁾, 춘풍이 돈을 싣고 경성으로 올라갈 제, 이때 춘풍의 아내 문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손을 부여잡고,¹⁰³⁷⁾

『“어이 그리 더디 온가? 장사에 사망* 많아 평안히 오시니잇가?”』¹⁰³⁸⁾

춘풍이 반기면서,

“그사이에 잘 있었는가?”

하고, 열두 바리 실은 돈을 장사에서 남긴 듯이 여기저기 들여놓고 의기양양하는구나. ¹⁰³⁹⁾춘풍에게 차담상을 별나게 차려 들이거늘, 『춘풍이 온 교태(驕態)¹⁰⁴⁰⁾를 다할 적에 기구하고 볼 만하다.』¹⁰⁴¹⁾ 콧살도 찡그리며 입맛 도 다셔 보고 젓가락도 휘저으며 하는 말이,

“『 생치(生雉)¹⁰⁴²⁾ 다리도 덜 구워졌으며, 자반에도 기름이 적고, 황육(黃肉)¹⁰⁴³⁾조차 맛이 적다. 평양으로 갈 까 보다.¹⁰⁴⁴⁾ 호조 돈 아니었더라면 올라오지 아니했지. 내일은 호조 돈을 다 바치고 평양으로 내려갈 제, 너도 함께 따라가서 평양 감영 소가(小家)* 집의 그 음식 먹어 보소.』”¹⁰⁴⁵⁾

온갖 교만 다할 적에, 춘풍 아내 춘풍을 속이려고 황혼을 기다려서 여자 의복 벗어 놓고, 비장 의복 다 시 입고 흐늘거리며 들어오니, ¹⁰⁴⁶⁾춘풍이 의아하여 방 안에서 주저주저하는지라. 비장¹⁰⁴⁷⁾이 호령하되,

“평양에 왔던 일을 생각하라. 네 집에 왔다 한들 그다지 거만하냐?”

춘풍이 그제야 자세히 본즉, 과연 평양에서 돈 받아 주던 회계 비장이라. 깜짝 놀라면서 문밖에 뛰어 내려 문안을 여쭙오되¹⁰⁴⁸⁾, 회계 비장 하는 말이,

“평양에서 맞았던 매가 얼마나 아프더냐?”

춘풍이 여쭙오되,

“어찌 감히 아프다 하오리까? 소인에게는 상(賞)이로소이다.”¹⁰⁴⁹⁾

회계 비장¹⁰⁵⁰⁾ 하는 말이,

1032) 춘풍아내의 능력

1033) 이춘풍의 처

1034) 모두 거두어 들임

1035) 현금 대신 쓰는 증서

1036) 아내덕에 춘풍은 위기를 모면

1037) 비장으로 오서 추월에게 춘풍의 돈을 돌려받은 사실을 감춤

1038) 거짓말1 사정을 알면서도 모른체함

1039) 아직도 누우치지 않고, 아내에게 허세를 부림

1040) 교만한 태도

1041) 편집자적 논평(서술자의 개입)

1042) 익히거나 말리지 않은 꿩고기

1043) 소고기

1044) 거짓말2 허세를 부리며 진실을 감추고 있음

1045) 반찬투정하며 평양에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는 모습(반성하지 않는 이춘풍)

1046) 춘풍을 각성시키기 위해 아내가 비장의 복장을 하고 나타남

1047) 춘풍의 처

1048) 비장에게 찢찢매는 춘풍의 모습

1049) 추월에게 돈을 받아 감사하다며 비굴해지는 춘풍의 모습

“평양에서 떠날 적에 너더러 이르기를,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거든 댁에 문안하라 하였더니, 풍문에 소식 들리기를 매일 기다리다가 아까 마침 남산 밑에 박 승지 댁에 가 술을 먹고 대취하여 종일 놀다가 홀연히 네가 왔단 말을 듣고 네 집에 돌아왔으니 흰죽이나 썬어 달라¹⁰⁵¹.”

한대, 춘풍이 제 지어미를 아무리 찾은들 있을쏜가¹⁰⁵². 제가 손수 죽을 썬려 하고 죽 쌀을 내어 들고 부엌으로 나가거늘¹⁰⁵³, 비장이 호령하되,

“네 지어미¹⁰⁵⁴는 어디 가고, 나에게 내외¹⁰⁵⁵를 하느냐¹⁰⁵⁶?”

춘풍이 묵묵부답하고 혼잣말로 심중에 헤아리되, ‘그립던 차에 가술을 만났으니 우리 둘이 잠이나 잘 자 볼까’ 하였더니 아내는 간데없고, 비장은 이처럼 호령하니 진실로 민망하나 무가내하¹⁰⁵⁷*라.

회계 비장이 내다보니, 춘풍의 죽 썬는 모양이 우습고도 볼 만하다.¹⁰⁵⁸ 그제야 죽상을 들이거늘,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 먹는 체하다가 춘풍에게 상째로 주며 하는 말이,

“네가 평양 감염 추월의 집에 사환으로 있을 때에 다 깨진 헌 사발에 누룽지에 국을 부어서 손가락 없이 뜯아래 서서 되는대로 먹던 일을 생각하여 다 먹으라.¹⁰⁵⁹”

하니, 그제야 춘풍이 아내가 어디서 죽 먹는 양을 볼까 하여 여기저기 살펴보며 얼른얼른 먹는지라.¹⁰⁶⁰ 그제야 춘풍 아내 혼잣말로,

‘이런 거동 볼작시면¹⁰⁶¹ 누가 아니 웃고 볼까? 하는 행실 저러하니 어디 가서 사람으로 보일런가? 아무튼 속이기를 더 하자니 차마 그리 우스워라. 이런 꼴을 볼작시면 나 혼자 보기 아깝도다.’

이런 거동 저런 거동 다 본 연후에, 회계 비장 의복 벗어 놓고 여자 의복 다시 입고 웃으면서,¹⁰⁶²

“이 멍청아!”

춘풍의 등을 밀치면서 하는 말이,

“안목이 그다지 무도한가?”

춘풍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이왕에 자넌 줄 알았으나 의사(意思)를 보자 하고 그리하였노라.¹⁰⁶³”

하고, 그날 밤에 부부 둘이 원앙금침¹⁰⁶⁴ 펼쳐 덮고 누웠으니 아주 그만 제법일세.

*사환: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비장: 지방 관리나 해외 사신을 따라다니던 관직.

*자모지례: 1년간의 이자를 원금의 2할 이내로 정한 이율.

*상덕한: 윗사람한테 덕을 받은.

*사망: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얻는 운수.

*소가: 작은집. 여기서는 평양의 추월을 가리킴.

*무가내하: 도무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어 어찌할 수 없음.

1050) 이춘풍의 처

1051) 춘풍을 혼내기 위해 일부러 시킴

1052) 편집자적 논평(서술자의 개입)

1053) 강자에게 약한 모습(처에게 하는 모습과 대비)

1054) 춘풍의 처

1055) 남녀의 구별

1056) 춘풍을 남감하게 함

1057) 막무가내

1058) 자신에게는 강한척 하던 춘풍이 비장앞에서는 약해지는 모습

1059) 이춘풍이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며 반성하기를 바람

1060) 아내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두려워하는 춘풍

1061) 판소리적 문체

1062) 춘풍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힘

1063) 거짓말3 민망함을 숨기기위해 거짓말

1064) 원앙이 수놓인 이불

1. 갈래 : 고전소설
2. 성격 : 해학적, 세태풍자적, 교훈적
3. 시점 : 전지적 작가시점
4. 주제 : 무능력한 가정에 대한 풍자와 적극적 여성상의 제시

<표현상의 특징>

- 운문과 산문이 혼합되어 나타남
- 귀족 계층의 언어와 평민 계층의 속어가 섞여있음.
- 판소리 사설의 문체 사용
- 남장 모티프를 사용하여 남성 중심의 봉건적 질서의 불합리성을 드러냄

<내용상의 특징>

- 물질 중심적인 새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던 조선후기 시대상을 반영함
- 두 인물(이춘풍과 이춘풍의 처)의 상반된 생활 태도와 갈등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냄
- 속고 속이는 사건 위주로 내용이 전개

「심청가」 - 작자미상

[아니리]¹⁰⁶⁵

이렇듯 탄식하다 예부 상서를 또다시 부르시더니,
 “네 여봐라. 오늘도 거주성명을 명백히 기록하야 차차 호송허되, 만일 도화동 심 맹인 계시거든 별궁으로 모셔 들어라.” / 봉사를 차례로 점고¹⁰⁶⁶해 내려올 적에, 제일 말석에 앉은 봉사한테 당도허며,
 “여보시오. 당신 성명이 무엇이오?” / “예, 내 성명은 심학규요.” / “심 맹인 계신다!”
 허더니만은, / “어서 별궁으로 들어갑시다.” / “아니, 어쩔라고 이러시오?”
 “우¹⁰⁶⁷에서 상을 내리실지 벌을 내리실 줄은 모르나, 심 맹인을 모셔 오라 허셨으니 어서 별궁으로 들어갑시다.”
 “내가 공연한 잔치에 왔제.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¹⁰⁶⁸ 『이 잔치를 배설¹⁰⁶⁹키는 나를 잡을 양으로 배설을 헌 것이로구나.』¹⁰⁷⁰ 아, 내가 살아서 무엇 하리. 내 지평이나 좀 잡으시오.”
 별궁에 들어가더니, / “심 맹인 대령하였소!”
 심 황후 부친을 살펴보니 백수풍신* 늙은 형용 슬픈 근심 가득한 게 ¹⁰⁷¹부친 얼굴이 은은하나, 심 봉사가 딸을 보내 놓고 삼 년 동안 어찌 울었던지 눈갓이 희어지고, 또한 피골이 상접이라. 산호 주렴*이 가리어 자세히 보이지 아니하니, 심 황후 또다시 분부하시되,
 “네 여봐라. 그 봉사 거주를 묻고, 처자가 있나 물어보아라.¹⁰⁷²”
 심 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마는, 먼눈에서 눈물이 뚝뚝뚝¹⁰⁷³ 떨어지더니마는,

[중모리]¹⁰⁷⁴

“예, 소맹¹⁰⁷⁵이 아뢰리다. 예, 소맹이 아뢰리다. 소맹이 사육기는 황주 도화동이 고토(故土)¹⁰⁷⁶이옵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축년 삼월 달에 산후 탈로 상처(喪妻)허고¹⁰⁷⁷, 어미 잃은 딸자식을 강보¹⁰⁷⁸에다 싸서 안고, 이집 저 집을 다니면서 동냥젖을 얻어먹여 겨우겨우 길러 낼 제, 효성이 출천¹⁰⁷⁹하야 애비 눈을 띄운다고 십오 세 때 남경 장사 선인¹⁰⁸⁰들께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¹⁰⁸¹로 죽은 지가 삼 년이오.』¹⁰⁸² 눈도 뜨지를 못하고 자식만 팔아먹었으니, 자식 팔아먹은 놈을 살려 주어 쓸데 있소? 당장에 목숨을 끊어 주오.¹⁰⁸³”

[아니리]

『이때에 심 황후가 이 말을 다 듣고 있을 이치가 있으리오마는¹⁰⁸⁴, 소리를 허니 일이 늦게 되었겠다.』¹⁰⁸⁵

1065) 창을 하는 중간에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설(내용 요약 정리와 분위기 이완 기능)

1066)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가며 사람의 수효를 조사

1067) 황후가 된 심청

1068) 심청이 인당수에 빠진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낌

1069) 연회나 의식(儀式)에 쓰는 물건을 차려 놓음.

1070) 『 』, 심봉사의 오해 - 심청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맹인 잔치를 열지만, 심 봉사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한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재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재회 순간의 극적인 흥미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1071) 죄책감을 느껴 체념한 모습

1072) 자신의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함

1073) 음성상징어 사용, 시의 운율 형성

1074) 어떤 사연을 담담하게 서술하는 장면이나 서정적인 장면에서 흔히 쓰임.

1075) 맹인들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1076) 고향 땅

1077) 아이를 낳은 후에 생긴 병으로 아내가 죽음

1078) 포대기

1079) 하늘이 냄

1080) 뱃사람

1081) 제물

1082) 『 』, 사건의 요약적 제시

1083) 죽기로 마음먹은 심봉사의 심리

1084) 『 』, 아버지를 확인한 심청의 다급한 마음

1085) 서술자의 개입(소리꾼의 상황설명, 판소리적 문체)

[자진모리]¹⁰⁸⁶

『심 황후 기가 막혀 산호 주렴을 걷어 버리고 버선발로 우루루루루루루루. ¹⁰⁸⁷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¹⁰⁸⁸

심 봉사 깜짝 놀라,

『“아니, 누가 날다려 아버지여? 에이? 나보고 아버지라니? 이 말이 웬 말이여! 무남독녀 외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 ¹⁰⁸⁹삼 년이 되었는디, 누가 날다려 아버지여?”』¹⁰⁹⁰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불효 여식 심청이가 살어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저를 급히 보옵소서. 아이고, 아버지.” / 심 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에? 아니, 심청이라니, 청이라니? 이게 웬 말이여? 에이? 이게 웬 말이여? 내가 지금 죽어 수궁을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죽고 없는 내 딸 청이, 이곳이 어디라고 살어오다니 웬 말이냐? 내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내 딸 좀 보자!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답답허여라! 어디, 내 딸 좀 보자!”

심 봉사가 두 눈을 끔쩍끔쩍허더니마는, 부처님의 도술로 눈을 번쩍 떴구나.¹⁰⁹¹

*백수풍산: 머리가 센 늙은이의 점잖고 위엄 있는 풍채.

*산호 주렴: 산호를 꿰어 만든 발.

1. 갈래 : 판소리 사설
2. 성격 : 교훈적, 비현실적, 우연적
3. 주제 :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 인과응보

<표현상의 특징>

- 열거와 음성상징어 등으로 해학적으로 표현
- 언어의 이중성이 드러남(일상어와 한문투의 표현 혼재, 판소리의 특징)
- 인물의 심리와 행동이 사실적으로 묘사 됨
- 여러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첨삭이 이루어진 적층 문학의 성격을 가짐

<내용상의 특징>

-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과 가치관 등이 반영됨
- 여러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첨삭이 이루어진 적층 문학의 성격을 가짐
- 해학미와 풍자가 주를 이루는 다른 판소리 사설과 달리 비장미와 해학미가 공존
- 유교의 효(孝) 사상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효가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에 의해 달성되도록 구성

1086) 중중모리보다 빠른 장단으로 어떤 일이 차례로 벌어지거나 여러 가지 사건을 늘어놓는 장면, 격동하는 장면 등에서 흔히 쓰임.

1087)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운율 형성

1088) 『 』, 아버지를 찾은 심청의 기쁜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묘사

1089) 지금에 이르기까지

1090) 유사한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 형성

1091) 극적장면, 비현실성, 작품의 주제(효의 가치) 강조역할

「수로부인」 - 일연

『성덕왕 때에 순정공(純貞公)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다가, 바닷가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¹⁰⁹² 곁에는 석벽¹⁰⁹³이 병풍 처럼 바다를 둘러는데, 높이가 천 길이나 되었다. 그 위에는 철쭉꽃¹⁰⁹⁴이 활짝 피어 있었는데, 공의 부인 수로(水路)가 그것을 보고 좌우에게 말했다.

“누가 저 꽃을 꺾어 바치겠느냐?”

종자*가 말했다. / “사람의 발자취가 이를 수 없는 곳입니다.”

모두들 할 수 없다고 사양했다. 마침 그 곁에 한 늙은이가 암소를 몰고 지나가다 부인¹⁰⁹⁵의 말을 듣고는, 그 꽃을 꺾었다.¹⁰⁹⁶ 그러고는 가사¹⁰⁹⁷도 지어 함께 바쳤다. 그 늙은이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뒤 이틀 동안 길을 가다가 또 임해정(臨海亭)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갑자기 바다의 용이 부인을 납치해 바다로 들어갔다. 공이 땅바닥에 허둥지둥 발을 굴렀지만¹⁰⁹⁸ 아무런 계책도 없었다. 그러자 또 한 늙은이가 나타나 말했다.

“옛사람의 말에 ‘여러 사람의 입이 쇠를 녹인다’¹⁰⁹⁹고 했습니다. 이제 바닷속의 짐승¹¹⁰⁰이 어찌 여러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내의 백성들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¹¹⁰¹, 부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¹¹⁰²”

공이 그 말대로 했더니¹¹⁰³, 용이 부인을 모시고 바다에서 나와 바쳤다. 공이 부인에게 바닷속의 일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칠보 궁전¹¹⁰⁴의 음식은 달고 부드러우며 향기롭고 조출해서, 인간의 음식과는 달랐습니다.”

이 부인의 옷에도 이상한 향내가 스며 있었는데, 세상에서 맡아 보지 못한 것이었다. 수로는 자태와 용모가 뛰어났으므로¹¹⁰⁵,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자주 신물(神物)¹¹⁰⁶에게 납치당했다. 여러 사람이 부른 「해가(海歌)」는 사(詞)가 이렇다.

거북¹¹⁰⁷아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¹¹⁰⁸. 龜乎龜乎出水路

남의 부녀를 약탈¹¹⁰⁹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가¹¹¹⁰. 掠人婦女罪何極

네 만약 거역하고 내어 바치지 않으면¹¹¹¹ 汝若悖逆不出獻

그물을 넣어 사로잡아 구워서 먹으리라¹¹¹². 入網捕掠燔之喫

노인의 「헌화가(獻花歌)」 는 이렇했다.

1092) 시대적 배경, 인물 및 공간적 배경 제시

1093) 깎아지른 듯한 바위

1094) 수로부인의 미적 대상

1095) 노인의 미적 대상

1096) 노인의 비범한 모습과 부인을 향한 연정이 나타남

1097) 헌화가

1098) 순정공은 당황하여 아무런 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1099) 언어의 주술성,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합치면 쇠도 녹일 만큼 힘을 낼 수 있음을 비유

1100) 바다의 용

1101) 노동요의 성격

1102) 『 』, 노래의 주술적 기능이 나타남

1103) 순정공은 노인이 제시한 방법을 그래도 따름

1104) 바닷속 세계

1105) 수로가 납치를 당한 까닭

1106) 신령스럽고 기묘한 물건

1107) 수로부인을 납치한 동해용왕,대상의 의인화, 부름

1108) 명령

1109) 근거

1110) 설의법

1111) 가정

1112) 위협

자줏빛 1113)바위 가에 紫布岩乎过希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1114), 執音乎手母牛放教遣
 나 1115)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吾矜不喻慚矜伊賜等
 꽃 1116)을 꺾어 바치오리다. 花矜折叱可獻乎理音如

*종자: 남에게 종속되어 따라다니는 사람.

1. 갈래: 설화
2. 성격: 기록적, 설명적
3. 제재: 수로부인의 아름다움, 헌화, 바다의 용
4. 주제: 수로부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

<표현상의 특징>

- 개별적인 사건들은 이야기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제의의 양상을 짐작하게 한다

<내용상의 특징>

- 8세기 초의 향가인 <헌화가(獻花歌)>와 <해가(海歌)>의 형성 배경을 설명해 주는 배경 설화의 역할을 한다.
-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하나는 <헌화가>와 관련하여 벼랑에 핀 철쭉을 꺾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해가>와 관련해서 바다의 용이 수로부인을 바다 속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다.
- 신라인의 세계관과 미의식이 드러나 있다.

1113) 철쭉꽃의 색

1114) 주체sms 수로부인으로 수로부인에게 매료됨을 뜻함

1115) 화자, 암소를 몰고 지나가던 노인

1116) 아름다움을 지닌 대상, 수로부인에 대한 노인의 마음

「육미당기」 - 서유영

소선이 비로소 자리에 나아가 정히 소매를 떨치고 단소를 불고자 할새, 홀연 공중에서 한 기러기¹¹¹⁷⁾ 슬피우는 것이 들리더니 점점 구름 밖에 떨어져 과봉루로 향하여 오거늘, 소선이 단소를 땅에 던지고 귀를 기울이고 듣더니 안색이 돌변하며 눈물이 비 오듯 하는지라¹¹¹⁸⁾. 이윽히 있다가 그 기러기가 소선의 곁으로 날아와 멈춰 고개를 들어 슬피 우니, 소선이 급히 두 손으로 기러기의 목을 안고 실성통곡¹¹¹⁹⁾하거늘, 공주와 궁녀들이 다 크게 놀라다가 괴이히 여기지 않음이 없어 그 기러기를 보니 순전히 붉은색인데 한 서간¹¹²⁰⁾이 있어 그 발에 매였더라.

공주가 크게 기이히 여겨 급히 열어 보니 그 글에 하였으되,

‘모년 모월 모일에 신라국 왕비 석 씨¹¹²¹⁾는 원통함을 머금고 피눈물을 뿌려 글을 태자 소선에게 부치노라. 아아. 예전에 네가 부왕¹¹²²⁾이 병으로 누워 계실 때에 도인의 말을 듣고 스스로 바다를 건너 남으로 향해 해숙(解叔)*의 지극한 효성을 본받아 보타산으로 영약¹¹²³⁾을 찾아 갔으니,¹¹²⁴⁾ 이것이 어찌 10세 어린이의 능히 행할 바이리오? ¹¹²⁵⁾그러나 네가 결의하고 가기를 원하되 죽기로써 스스로 맹세하니, 만약 너의 감을 허락지 아니하면 네가 반드시 죽을 뜻이 있는 고로 부왕이 허락하시고 나도 또한 허락하였더니, 대개 너의 지성에 감격하고 상천이 돌보시고 신명(神明)이 붙들어 마침내 험난함에서도 탈 없을 것을 생각함이라. 네가 간 후에 왕자 세징이 스스로 말하되, ‘특별히 배 한 척을 구하여 너의 뒤를 따라갔다가 너와 같이 돌아오리라.’ 하므로, 해상 만 리에 파도가 하늘을 치는데 네가 홀몸으로 가 보호할 사람이 없음을 염려하여 부왕이 허락하시고 나도 또한 허락하였더니, 어찌 반년 후에 세징은 약을 가지고 홀로 돌아왔으되, 너는 한 번 가고 돌아오지 않음을 뜻하였으리오? ¹¹²⁶⁾세징의 말은 가로되, ‘타인의 전하는 바를 들은즉, 혹은 네가 보타산에 이르렀다가 풍파에 표류하여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고, 혹은 네가 대양에 이르러 빠졌으되 구하지 못하였다.’ ¹¹²⁷⁾하니, 그 전하는 말이 너무 모호하므로 진실로 믿기 어렵고 이것이 내가 의혹이 여러 가지로 생겨 종시 마음에 풀리지 않는 까닭이로다. ¹¹²⁸⁾아아. 너의 온후한 덕성과 효우¹¹²⁹⁾의 행실로써 상천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어찌 재앙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부왕의 병든 몸은 그 영약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나오시니,¹¹³⁰⁾ 도인의 말이 과연 징험이 있도다. 이로써 보면 네가 살아서 고국에 돌아오는 것 또한 가히 날을 기약하여 기다릴지로다. 비록 그러하나 한 번 가고 돌아오지 않음이 지금껏 4년이니, 어찌 너에게 큰 액운이 닥쳐 천수를 도망키 어려움이 그 도인이 나를 속여 그리함인가? ¹¹³¹⁾우주가 아득하나 질문할 곳이 없고 하늘 끝과 땅 모퉁이에 소식을 의거할 수 없으니, 나로 하여금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¹¹³²⁾아아. 네가 동궁에 있을 때에 길들인 바 붉은 기러기¹¹³³⁾가 네가 남해로 간 후부터 옛 보금자리를 떠나지 않고 홀로 배회하며 매양 나를 대하여 머뭇거리며 슬피 울되 하소연하는 바가 있는 듯하니, 뜻하건대 네가 혹 죽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 있어 나로 하여금 서간을 부치게 하고자 그러함인가? 생각이 이에 미치니 마음이 어지럽고 붓을 잡아 쓰고자 하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지도다. 기러기의 발에 매어 소식을 부쳐 멀리 묻노니, 너는 과연 보는가, 못 보는가? ¹¹³⁴⁾고통이 가슴에 얹히고 일은 허탄하니 그 전하고 전하지 않음은 가히 알지 못할지라. 기러기가 당도하는 날에 곧 답서를 보내어 노모로 하여금 주야로 멀리 바라보게 하지 말라. 천만 울며 축수¹¹³⁵⁾하노

1117) 새로운 사건 전개에 매개체

1118) 기러기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이 기르던 기러기임을 알게 됨

1119)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로 슬프게 통곡함

1120) 주인공의 신분이 밝혀짐과 동시에 주인공이 눈을 뜨게 함

1121) 소선의 어머니

1122) 소선의 아버지

1123) 신령스러운 약

1124) 구약(救藥)모티프가 나타남

1125) 설의법 소선의 지극한 효심

1126) 세징이 약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소선을 돌아오지 못함

1127) 세징의 거짓말

1128) 세징의 말에 의심을 품고 있음

1129) 부모에 대한 효도와 행제에 대한 우애

1130) 부왕은 영약을 먹고 병이 나았음

1131) 소선의 귀환을 기대하면서도 4년이 지났기에 걱정하고 있음

1132) 의문문의 형식을 반복하여 석 씨의 답답함을 강조 1

1133) 소선은 기러기가 우는 소리만 듣고도 자신이 기르던 것임을 알아챈

1134) 의문문의 형식을 반복하여 석 씨의 답답함을 강조 2

1135) 오래 살기를 빌

라.’

공주가 보기를 다하더니 오열하며 눈물을 흘려 비로소 소선이 신라국 태자로서 타국에 표박¹¹³⁶함은 왕자 세징으로 인하여 그리움을 알았더라. 이에 옷깃을 정제하고 단정히 앉아 소선더러 가로되, “이제 기러기의 발에 매인 글을 보니 곧 귀국 왕비의 수찰¹¹³⁷이라. 청컨대 태자를 위하여 한 번 외우리다.” 이윽고 등불을 밝힌 후 한 번 낭독하니, 음성이 청아하여 옥을 울림 같거늘, 글자마다 뼈에 사무치고 글귀마다 코에 시리니, 좌우의 궁녀가 듣고 또한 모두 말을 잃고 울며 소선은 머리를 숙이고 듣다가 피눈물이 똑똑 떨어지더니, 급히 두 손으로 모비의 수찰을 받들고 어루만지며 슬피 울다가 홀연 뜻밖에 두 눈이 활짝 열려 물건을 봄에 환하여 장애됨이 없더라.¹¹³⁸ 공주를 보매 봉관 하피(鳳冠霞帔)*로 용모가 연꽃같아 방금 자리 위에 단정히 앉았으니, 소선이 황망히 자리를 피하여 머리를 돌이키며 두 손을 모으고 섰더라.

*해숙: 중국 남제(南齊) 사람으로 효성이 지극했던 해숙겸(解叔謙)을 말함.

*봉관 하피: 중국에서 황후가 특별한 날에 착용하였던 복식.

1. 갈래 : 고전소설, 군담소설, 한문소설
2. 성격 : 영웅적, 교훈적, 불교적
3. 주제 : 신라태자 김소선의 고난과 승리

<표현상의 특징>

- 인물간의 대화와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
- 인물의 특징이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를 통해 드러난다.

<내용상의 특징>

- 구성이 치밀하고 규모가 방대하며 표현이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여성 인물의 성격도 매우 개성적으로 창조되어 있다.
- 이 작품은 주인공이 중국의 부마가 되었으나 다시 고국에 돌아와 왜국을 토벌한다는 내용으로 민족의식이 강조된 작품으로 평가된다
- 불경 소재 <선우태자전 善友太子傳>과 그것을 소설화한 <적성의전 翟成義傳>을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발전시킨 작품으로
- 작품의 전반부에는 구약모티프와 형제 갈등, 선악 갈등이 중심을 이루지만 후반부에는 남녀의 애정과 영웅적 활약상이 강조된다.

1136) 일정한 주거나 생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며 지냄.

1137) 손수 쓴 글이나 편지

1138) 소선은 공주가 읽는 편지의 내용을 듣고 피눈물을 흘리다가 눈을 뜨게 됨

「예덕선생전」 - 박지원

선굴자(蟬橘子)에게 예덕 선생¹¹³⁹이라 부르는 벗이 한 사람 있다. 그는 종본탑(宗本塔¹¹⁴⁰) 동쪽에 살면서 날마다 마을 안의 뚝을 치는 일¹¹⁴¹을 생업으로 삼고 지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그를 엄 행수(嚴行首¹¹⁴²)라 불렀다. ‘행수’란 막일꾼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칭호요, ‘엄’은 그의 성(姓)이다.

자목(子牧¹¹⁴³)이 선굴자에게 따져 묻기를,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벗의 도를 들었는데, ‘벗이란 함께 살지 않는 아내요, 핏줄을 같이하지 않은 형제와 같다.’¹¹⁴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벗이란 이같이 소중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이름난 사대부들이 선생님을 따라 그 아랫자리에서 노닐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지만』¹¹⁴⁵ 선생님께서서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엄 행수라는 자는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막일꾼으로서 열악한 곳에 살면서 남들이 치욕으로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선생님께서서는 자주 그의 덕(德)을 칭송하여 선생이라 부르는 동시에 장차 그와 교분¹¹⁴⁶을 맺고 벗하기를 청할 것같이 하시니 제자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¹¹⁴⁷ 그러하오니 문하(門下)에서 떠나기를 원하옵니다.” / 하니, 선굴자¹¹⁴⁸는 웃으면서,
 “얕게. 내가 자네에게 벗을 사귀는 것에 대해 말해 주겠네. 속담에 ‘의원이 제 병 못 고치고 무당이 제 곳 못 한다.’¹¹⁴⁹”라고 했지.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지. 그런데 남들이 그것을 몰라주면 답답하게 여기면서 도리어 자신의 허물에 대해 듣고 싶어 하게 된다네. 이때 마냥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만 늘어놓는다면 이는 아침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한 오로지 단점만 늘어놓는다면 잘못을 파헤치고 흉보는 것과 같아 무정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일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허물을 말할 때는 그 핵심에서 벗어나 슬쩍 돌려 말하는 것이 좋다네. 그러면 설사 책망이 좀 과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리 화를 내지 않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부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서 슬그머니 그 사람의 장점을 마치 숨겨 놓은 부분을 발견하듯이 은근히 말해 주는 거지. 그럼 마치 가려운 데를 긁어 준 것처럼 진심으로 감동하게 될 것일세. 가려운 데를 긁어 주는 데도 방법¹¹⁵⁰이 있네. 등을 토닥일 때는 겨드랑이까지는 이르지 말고, 가슴을 어루만질 때는 목덜미까지는 이르지 않는 거지.¹¹⁵¹ 뜬구름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들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뻐하며 자신을 알아준다고 생각할 것일세.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지 않겠는가?”¹¹⁵²

하였다. 자목은 귀를 막고 뒷걸음질 치며 말하기를,

“지금 선생님께서는 시정잡배(市井雜輩)나 하인들이 하는 행동¹¹⁵³을 가지고 저를 가르치려 하시는군요.”

하니, 선굴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자네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이런 것¹¹⁵⁴이었군. 무릇 시장에서는 이해관계로 사람을 사귀고 면전에서서는 아침으로 사람을 사귀지. 따라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세 번 도움을 요청하면 누구나 멀어지게 되고, 아무리 목은 원한이 있다 하더라도 세 번 도와주면 누구나 친하게 되기 마련이지. 그러므로 이해관계로 사귀게 되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침으로 사귀어도 오래갈 수 없다네. 훌륭한 사귀는 꼭 얼굴을 마주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훌륭한 벗은 꼭 가까이 두고 지낼 필요가 없지. 다만 마음으로 사귀어야 덕과 의리가 통하는 벗을 만나게 되는 것

1139) 예(穢)는 ‘더럽다’라는 의미로, 더럽고 미천한 일을 하지만 덕(德)이 있다는 의미로 붙인 이름. 엄 행수가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임을 드러내기 위해 붙인 호칭임.

1140) 현재 서울 종로의 탑골 공원 안에 있는 월각사지(圓覺寺址)의 석탑을 가리킴. 구체적 배경 제시하여 사실감 부여

1141) 엄행수(예덕 선생)의 직업, 가장 천한 일에 종사

1142) 예덕선생을 지칭하는 말

1143) 선굴자의 제자, 양반층을 대변하는 인물

1144) 가깝고 소중한 존재

1145) 선굴자의 덕망이 높아 양반들의 존경을 받고 있음이 드러남

1146) 서로 사귀는 정

1147) 자목이 양반이라는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물의 내면보다 명분에 집착하고, 체면과 외양을 중시하는 고루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48)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 참된 교제를 제시하며 당시 양반층의 모순과 위선을 비판

1149) 자기 허물은 스스로 고치기 어렵다

1150)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주는 방법

1151) 세속적 사귀

1152) 환심을 사기위한 교언영색(巧言令色)의 태도를 반문

1153) 세속적 사귀를 부여하는 자목, 자신보다 낮은 신분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

1154) 시정잡배나 하인들이 하는 세속적인 교우

이니, 이것이 바로 도의(道義)로 사귀는 것일세.¹¹⁵⁵ 위로 천고(千古)의 옛사람과 벗해도 먼 것이 아니요, 만 리(萬里)나 떨어져 있는 사람과 사귀어도 먼 것이 아니라네.

저 엄 행수란 사람은 일찍이 나에게 알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항상 그를 예찬하고 싶어 했지. 그는 밥을 먹을 때는 끼니마다 착실히 먹고, 길을 걸을 때는 조심스레 걷고, 졸음이 오면 쿵쿵 자고, 옷을 때는 껌껌 웃고¹¹⁵⁶,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마치 바보처럼 보인다네. 흙벽을 쌓아 풀로 덮은 움막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어 들어갈 때는 새 우등을 하고 들어가고 잘 때는 개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자지만¹¹⁵⁷, 아침이면 개운하게 일어나 삼태기를 지고 마을로 들어와 뒷간을 청소하지. ¹¹⁵⁸9월에 서리가 내리고 10월에 엷은 얼음이 얼 때쯤이면 뒷간에 말라붙은 사람 똥, 마구간의 말똥, 외양간의 소똥, 해 아래에 떨어진 닭똥이며 개똥과 거위 똥, 그리고 돼지 똥, 비둘기 똥, 토끼 똥, 참새 똥 따위를 주옥인 양 굵어 가도 염치에 손상이 가지 않고, 그 이익을 다 가져도 정의에 어긋나지 않으며, 욕심을 부려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해도 남들이 양보심 없다고 비난하지 않는다네. 그는 손바닥에 침을 발라 삼을 잡고는 새가 모이를 쪼아 먹듯 꾸부정히 허리를 구부려 일에만 열중할 뿐, 아무리 화려한 미관이라도 마음에 끌리는 법이 없고 아무리 좋은 풍악이라도 관심을 두는 법이 없지. ¹¹⁵⁹부귀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지. 따라서 그를 예찬한다고 해서 그는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헐뜯는다 해서 욕되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네.

왕십리의 무와 살곶이¹¹⁶⁰의 순무, 석교(石郊)¹¹⁶¹의 가지, 오이, 수박, 호박이며 연희궁(延禧宮)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교며 청파(靑坡)의 미나리와 이태인(利泰仁)¹¹⁶²의 토란들은 상상전(上上田)¹¹⁶³에 심는데, 모두 엄 씨의 똥을 가져다 써야 땅이 기름지게 되어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으며 그 수입이 1년에 6천 푼이나 된다네. ¹¹⁶⁴하지만 그는 아침에 밥 한 사발이면 흡족해하고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한 사발을 먹을 뿐이지. 남¹¹⁶⁵들이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였더니, 목구멍에 넘어가면 푸성귀나 고기나 배를 채우기는 마찬가지인데 맛을 따져 무엇 하겠느냐고 대꾸하고, 반반한 옷이나 좀 입으라고 권하였더니, 넓은 소매를 입으면 몸에 익숙하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더러운 흙을 짚어질 수 없다고 하더군. ¹¹⁶⁶해마다 정월 초하루 아침이나 되어야 비로소 의관을 갖추어 입고 이웃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세배를 하는데,¹¹⁶⁷ 세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헌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삼태기를 메고 마을 안으로 들어간다네. 엄 행수와 같은 이는 아마도 ‘자신의 덕을 더러움으로 감추고 세속에 숨어 사는 대은(大隱)’¹¹⁶⁸이라 할 수 있겠지.

(중략)

엄 행수는 지저분한 똥을 날라다 주고 먹고살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가 먹고사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로우며, 그가 처한 곳은 지극히 지저분하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에 있어서는 지극히 높다¹¹⁶⁹ 할 것이니, 그 뜻을 미루어 보면 비록 만종의 녹을 준다 해도 그가 어떻게 처신할지를 알 만하다네. / 이상을 통해 나는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서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음¹¹⁷⁰을 알게 되었네. 나는 먹고사는 일 때문에 아주 견디기 힘든 경우를 당하면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엄 행수를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일이 없었지. 진실로 마음속에 줌도독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엄 행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 이를 더 확대해나간다면 성인(聖人)의 경지에도 이를 것일세.¹¹⁷¹

1155) 참된 벗 사귀는 도리, 이작품의 주제

1156)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해 꾸밈없이 소탈하게 살아가는 엄행수의 모습을 보여줌

1157) 욕심없이 소박하게 사는 엄행수의 모습

1158)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엄행수의 모습

1159)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허욕을 멀리함, 무실역행(務實力行)의 태도

1160) 성동구에 있는 뚝섬

1161) 서대문 밖 일

1162) 이태원

1163) 토지의 질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토지를 상·중·하로 나누고, 각각을 다시 상·중·하로 나누어 모두 9등급을 둬. 상상전은 최상급의 토지를 말함

1164) 엄행수가 하는 일의 가치를 강조

1165) 엄행수의 검소함과 실용성 중시, 당대의 양반들과 대조됨

1166) 격식보다 실용적인 것을 추구, 실학자의 실용적 태도와 일치

1167) 예를 다하는 엄행수의 모습

1168) 신분의 귀천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중시하는 선굴자의 태도

1169) 외면적으로는 더러울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덕이 높음

1170) 신분과 외양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

1171) 분수에 만족하고 성실하게 사는 삶을 예찬

선비로서 곤궁하게 산다고 하여 얼굴에까지 그 티를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요, 출세했다 하여 몸짓에까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니, 엄 행수와 비교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는 거의 드물 걸세. ¹¹⁷²⁾그래서 나는 엄 행수를 스승으로 모신다고 한 것이네. 어찌 감히 벗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¹¹⁷³⁾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엄 행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¹¹⁷⁴⁾이라 부르는 것일세.” / 하였다.

1. 갈래 : 한문소설, 단편 소설, 고전소설
2. 성격 : 풍자적, 비판적, 교훈적
3. 주제 : 바람직한 교우의 도와 엄행수의 무실역행 하는 삶

<표현상의 특징>

- ‘기 - 서 - 결’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선굴자와 자목의 대화를 중심으로 한 문답 형식을 통해 주제를 구현

<내용상의 특징>

- 특정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갈등이 발생
- 이익이나 아첨에 의한 세속적 사귀를 비판하고, 마음과 덕으로 벗을 삼는 도(道)의 사귀를 강조하고 있다.
- 진정한 벗 사귀의 도와 참다운 인간상이 무엇인지 를 제시하고 있다.

1172) 양반들의 허욕과 허위의식 비판

1173) 엄행수와 같은 사람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의식

1174) 허위의식이 없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엄 행수를 진정한 삶을 사는 이상적인 인간형

「할계전」 - 이익

눈먼 암탉¹¹⁷⁵⁾이 등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데, 바른편 눈은 완전히 덮였고 왼쪽 눈도 반 이상 실눈이되어 있었다. 먹이가 그릇에 가득하지 않으면 쪼아 먹지를 못하고, 다니다가 담장에라도 부딪치면 해매다가 돌아 나오곤 하니, 모두들 저래 가지고는 새끼를 기를 수 없다고 하였다.¹¹⁷⁶⁾마침내 날짜가 차서 그 눈먼 닭이 품고 있는 알에서 병아리가 깨어나오니 이를 빼앗아서 다른 어미에게 주려 하였으나, 한편으로 측은하기도 하여 차마 그러지 못하였다. 얼마 후 살펴보니, 별다른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뜰 주변을 떠나지 않는데 병아리들은 푹푹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 다른 어미의 병아리들은 병들고 상처받아 죽거나 어미를 잃어버려 절반도 안 남는데 유독 눈먼 닭의 등지만은 온전하니 어쩐 일인가?¹¹⁷⁷⁾

흔히들 새끼를 잘 길러 낸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즉 먹이를 잘 구하는 것과 환란을 잘 막아 주는 것이다. 먹이를 잘 구하려면 건강하여야 하고 환란을 막으려면 사나워야 한다.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면 어미 닭은 흙을 후비고 숨어 있는 벌레를 찾아내느라 부리와 발톱이 다 닳아빠지며, ¹¹⁷⁸⁾사방으로 흩어지는 새끼들을 불러 모으느라 잠시도 편히 쉴 틈이 없다. 또 위로는 까마귀와 솔개, 주위로는 고양이나 개들을 살피며 부리를 세우고 깃을 펄떡여 목숨을 내걸고 항거함이 마치용사가 맹적을 만난 것같이 한다.¹¹⁷⁹⁾ 그러다가 『숲속으로 달아나서는 때맞추어 불러서 몰고 오는데 병아리들은 빼약거리며 간신히 뒤따라오긴 하지만 힘이 빠지고 병들기 십상이다. 때로는 엇갈리어 길을 잃기라도 하면 물이나 불 속에 빠져 생사를 기약할 수 없으니, 이렇게 되면 먹이를 구해 준 것도 허사로 돌아간다. 또 조심조심 보호하고 타오르는 불길같이 맹렬히 싸워도 환란이 스쳐 가고 나면 병아리 6~7할을 잃고 만다.』¹¹⁸⁰⁾ 게다가 너무 멀리 나가 사람의 보호도 못 받으면 사나운 새매를 무슨 수로 당해 내겠는가. 이렇게 되면 환란을 방지하느라 애쓴 것도 허사가 된다.

그런데 저 눈먼 닭은 하나같이 모두 이와는 반대이다. 멀리 갈 수 없으므로 사람 가까이에서 맴돌고, 눈으로 살필 수 없으니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을 조심조심하며 노상 끌어안고 감싸 준다.¹¹⁸¹⁾ 그러므로 힘쓰는 흔적은 보이지 않아도 병아리들은 저들끼리 알아서 먹이를 쪼아 먹고 자라난다. ¹¹⁸²⁾무릇 병아리를 기르는 것은 마치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아서 교란¹¹⁸³⁾시키는 것이 가장 금기인데, 저 눈먼 닭은 지혜가 있어서 그리한 것은 아니겠으나 방법이 적중하여 마침내 양육에 만전¹¹⁸⁴⁾을 이루게 된 것이다.

사물을 양성하는 방도는 한갓 젓 먹이는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이제야 알겠다. 통솔하되 제각기 제 삶을 이루도록 해야 하니¹¹⁸⁵⁾, 그 요령은 오직 잘 인솔하여 잃어버리지 않는 것뿐이다. 나는 이 병아리 기르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양육하는 도리를 깨달았다.

1175) 할계

1176) 눈먼 닭은 새끼를 기를 수 없다는 사람들의 통념 제시

1177) 건강한 닭의 병아리들은 절반도 남지 않았는데 눈 먼 닭의 병아리들은 잘자란 것에 대한 의문, 통념과 다른 대상의 가치 제시

1178)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구하는 것의 어려움

1179) 환란을 막는 것의 어려움

1180) 병아리들을 잃게 되는 이유: 힘이빠지거나 병들고 물이나 불에 빠져 죽음

1181) 눈먼 닭의 양육방법 1 : 사람가까이에서 맴돌며 보살핌

1182) 눈먼 닭의 양육방법 2 : 병아리들이 스스로 먹이를 쪼며 자라나게 함

1183) 어지럽고 혼란하게 함1184) 조금도 허술함 없이 완전함

1185) 할계의 병아리 양육을 보고 깨달은 사람의 양육 도리

1. 갈래 : 고전 수필, 전
2. 성격 : 비판적, 교훈적, 우의적
3. 시점 : 3인칭 관찰자 시점
4. 제재 : 눈먼 암탉
5. 주제 : 자녀 양육의 올바른 도리

<표현상의 특징>

- 일상 생활에서 발견하고 경험한 사실을 제시한 후에 그것의 의미를 이끌어냄
- 도입부-전개부-종결부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내용상의 특징>

- 눈먼 어미 닭을 예로 삼아 인간의 도리를 말함
- 작가의 주관이 직접 드러나고 있다.

「금방울전」 - 작자 미상

하루는 막 씨가 시름에 싸여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줄기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고 초막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바로 삼랑¹¹⁸⁶이었기에 막 씨가 놀라서 물었다.

“그대가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간 지 거의 수십 년이나 되었소. 그간 어디에 있는지 몰라 걱정했는데, 며칠 전 꿈에 신령이 나타나 이르기를 ‘전란 중에 죽었다.’ 하더이다. 꿈에 나타난 일은 믿을 것이 아니지만 내가 또렷이 들은 까닭에 영연*을 차렸는데, 알 수가 없군요. 지금 살아서 오신 건가요? 어찌이 깊은 밤에 오셨으며, 자취가 분명하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삼랑이 목이 메어 말했다.

“내가 그대의 뜻을 모르고 방탕한 마음을 견잡지 못해 그대의 큰 절개를 모르고 박대했소.¹¹⁸⁷ 그 죄로 천벌을 받아 과연 난중에 죽었으니, 먼 훗날에도 나는 죄인이라. 비록 내 잘못을 깨닫기는 했지만 너무 늦었으며, 그간 귀신의 부류에도 끼이지 못하고 음산한 바람이 되어 이리 떠돌아야만 했소.¹¹⁸⁸ 그런데 그대가 나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지내 주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소? 비록 죽고 산 것은 다르지만 그대의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 여기에 온 것이 오.”¹¹⁸⁹

삼랑이 살아 있을 때와 다름없이 수작하고 돌아간 후 자주 왕래했다. 그 때문인지 어느 날 갑자기 태아가 배 속에서 노는 것처럼 막 씨의 배가 아프고 점점 커졌다.¹¹⁹⁰ 막 씨는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며 혹시 남이 알까 근심하고 있었는데, 과연 열 달이 되자 산기가 완연히 나타났다. 홀로 여막에 엎드려 출산을 하고 돌아보니, 아이가 아니라 금방울처럼 생긴 것이 금빛을 찬란하게 발하고 있었다.¹¹⁹¹ 막 씨가 그 모양을 보고 크게 놀라며 괴이하고 신통하게 여겨 손으로 눌러 보았으나 터지지 않고 돌로 짓쳐도 깨지지 않았다. 다시 집어다 멀리 버리고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서 막 씨를 따라왔다. 더욱 괴이해 다시 집어다가 깊은 물속에 던지고 돌아오는데 역시 따라왔다. 또 그 방울을 집어다가 아주 단단히 물속에 넣고 보니 물 위에 동동 떠다니다가 여전히 막 씨를 보고 뒤따라왔다.

이에 막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 팔자가 기구해 이 같은 괴물을 만나게 되었으니, 뒷날 반드시 큰일이 생길 것이다.’ 막 씨는 집으로 돌아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에 그 방울을 던져 넣었더니 조금도 기미가 없자 매우 기쁘게 여겼다. 그런데 닷새 뒤 아궁이를 헤쳐 보니, 방울이 상하기는커녕 도리어 빛이 더욱 씩씩하고 향취가 진동했다.¹¹⁹² 막 씨가 어쩔 수 없이 그 방울을 놓아 두었더니, 방울이 밤에는 막 씨의 품속에 들어와 자고, 낮에는 굴러다니며 집 떠난 새를 잡거나 나무에 올라가 과일도 따다 막 씨 앞에 놓았다.¹¹⁹³ 막 씨가 자세히 보니 방울 속에 있는 실 같은 것으로 온갖 것을 다 묻혀 왔는데, 그 털이 반반해 평소에는 볼 수가 없었다. 또한 막 씨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방울이 품속으로 들어오면 조금도 춥지 않았다.¹¹⁹⁴

하루는 막 씨가 추운 곳에서 방아질을 해 주고 저녁에 돌아오니, 방울이 여막에서 굴러 나와 반기는 듯했다. 막 씨가 추위를 견디지 못해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니, 그 안은 덥고 방울이 빛을 내 대낮같이 밝았다.¹¹⁹⁵ 막 씨는 기이하게 여기는 한편, 남이 알까 두려워 낮에는 방울을 여막 속에 두고 밤에는 품고 잤다. ¹¹⁹⁶방울이 점점 자라 산을 평지같이 오르내리고 마른 곳 진 곳을 가리지 않고 굴러다녀도 몸에 흠이 묻지 않았다.

(중략)

변 씨는 날이 갈수록 해룡을 더욱 박대했다. 『해룡에게 옷과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낮에는 발 갈기와 논매기, 소 먹이기와 김매기, 나무 베어 오기 등을 시키고 밤에도 이러저러한 일들을 시키며 잠시도 편히 쉬지 못하게 했다.』¹¹⁹⁷

1186) 초막 바깥에 있는 귀신, 막씨의 남편

1187) 막씨에게 잘못을 저지른것에 대해 누우침

1188) 막씨에게 난중에 죽었고, 이리저리 떠도는 처지라고 고백

1189) 삼랑이 나타난 이유

1190) 죽은 삼랑과의 사이에서 금방울이 태어나게 됨, 비현실적인 요소

1191) 비현실적인 요소

1192) 금방울의 초월성

1193) 금방울의 효심을 나타내는 행동

1194) 금방울의 초월성으로 효심을 발휘

1195) 금방울의 속성을 활용해서 막씨를 도와줌

1196) 금방울을 지키고자 하는 막씨의 행동

그러나 해룡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변 씨가 시킨 일을 더욱 공손한 태도로 부지런히 하니¹¹⁹⁸⁾, 자연히 해룡의 용모가 초췌해져 굶주림과 추위를 이기지 못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내리치는 밤에 변 씨는 소룡과 함께 따뜻한 방에서 자고 해룡에게는 방아질을 시켰다. 해룡은 어쩔 수 없이 밤새도록 방아를 찼는데, 얇은 홑옷만 입은 아이가 어찌 추위를 견딜 수 있겠는가?¹¹⁹⁹⁾ 추위를 이기지 못해 잠깐 쉬려고 제 방에 들어가니, 눈보라가 방 안에까지 들이치고 덮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해룡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방 안이 대낮처럼 밝아지고 여름처럼 더워져 온몸에 땀이 났다.¹²⁰⁰⁾ 놀라고 또 이상해 바로 일어나 밖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하얀 눈이 뜰에 가득했다. 방앗간에 나가 보니 밤에 못다 찼은 것이 다 찼어져 그릇에 담겨 있었다. 해룡이 더욱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방으로 돌아오니 방 안은 여전히 밝고 더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방 안을 두루 살펴보니, 침상 위에 예전에 없었던 복만 한 방울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¹²⁰¹⁾ 해룡이 잡으려 했으나, 방울이 이리 미끈 달아나고 저리 미끈 달아나며 요리 구르고 저리 굴러 잡히지 않았다. 더욱 놀라고 신통해서 자세히 보니, 금빛이 방 안에 가득하고, 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향취가 가득히 퍼져 코를 찔렀다.¹²⁰²⁾ 이에 해룡은 생각했다.

‘이것은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어서 일어난 일일 테니, 좀 더 두고 지켜봐야겠다.’

해룡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자리에 누웠다. 그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이 절로 놓여 아침 늦도록 곤히 잠을 잤다. 이때 변 씨 모자는 추위 잠을 자지 못하고 떨며 앉아있다가 날이 밝자마자 밖으로 나와 보니, 눈이 쌓여 온 집 안을 뒤덮었고 찬바람이 얼굴을 깎듯이 세차게 불어 몸을 움직이는 것마저 어려웠다. 이에 변 씨는 생각했다.

‘해룡이 틀림없이 얼어 죽었겠구나.’¹²⁰³⁾

해룡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해룡이 얼어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눈을 헤치고 나와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다. 그랬더니 해룡이 벌거벗은 채 깊이 잠들어 있는데 놀라서 깨우려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하얀 눈이 온 세상 가득 쌓여 있는데, 오직 해룡이 자고 있는 사랑채 위에는 눈이 한 점도 없고 더운 기운이 연기처럼 일어나고 있었다.¹²⁰⁴⁾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변 씨가 놀라 소룡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다.

“매우 이상한 일이니, 해룡의 거동을 두고 보자꾸나.”

문득 해룡이 놀라 잠에서 깨어 내당으로 들어가 변 씨에게 문안을 올린 뒤 비를 잡고 눈을 쓸러 하는데, 갑자기 한 줄기 광풍이 일어나며 반 시간도 채 안 되어 눈을 다 쓸어 버리고는 그쳤다.¹²⁰⁵⁾ 해룡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나,¹²⁰⁶⁾ 변 씨는 그 까닭을 전혀 알지 못해 더욱 신통히 여기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분명 해룡이 요술을 부려 사람을 속인 것이로다.¹²⁰⁷⁾ 만약 해룡을 집에 오래 두었다가는 큰 화를 당하리라.’

변 씨는 어떻게든 해룡을 죽여 없앨 생각으로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한 가지 계교를 생각해 내고는 해룡을 불러 말했다.

“가군*이 돌아가신 뒤 우리 가산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은 너 또한 잘 알 것이다. 구호동에 우리 집 논밭이 있는데, 근래에는 호환(虎患)¹²⁰⁸⁾이 자주 일어나 사람을 다치게 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묵혀 둔 지 벌써 수십여 년이 되었구나. 이제 그 땅을 다 일구어 너를 장가보내고 우리도 네 덕에 잘살게 된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다만 너를 그 위험한 곳에 보내면, 혹시 후회할 일이 생길까 걱정이구나¹²⁰⁹⁾.”

1197) 『』, 해룡을 박대하는 변씨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1198) 해룡의 좋은 인성

1199) 서술자의 개입(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

1200) 고난 상황에서 벗어난 해룡

1201) 금방울의 존재를 인정한 해룡

1202) 금방울의 특성

1203) 해룡이 죽었을거라 기대하는 변씨

1204) 기이한, 비현실적인 상황이 벌어짐

1205) 금방울이 해룡을 도와줌

1206) 금방울이 해룡을 도왔을거라 생각

1207) 해룡이 요술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해룡을 없애려고 함

1208)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

해룡이 기꺼이 허락하고 농기구를 챙겨 구호동으로 가려 하니, 번 씨가 짐짓 말리는 체했다. 이에 해룡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¹²¹⁰⁾, 어찌 짐승에게 해를 당하겠나이까?”

*영연: 죽은 사람의 영위를 모셔 놓고 그에 딸린 모든 것을 차려 놓는 곳.

*가균: 다른 사람에게 자기 남편을 이르는 말.

1. 갈래 : 고전 소설, 영웅소설 전기소설
2. 성격 : 교훈적, 비현실적
3. 주제 : 고난을 극복하고 혼사와 부귀 획득에 성공하는 금방울의 삶

<표현상의 특징>

- 공간적으로 현실과 비현실계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다.

<내용상의 특징>

- 다양한 설화(난생설화, 지하국 대적 퇴지 설화, 변신 모티프 등) 융합되어 있음
- 두 등장인물(해룡, 금방울)의 성격과 역할이 상호 보완적
- 불교, 유교, 도교적 사상을 혼합하여 내포하고 있다.
- 여성 영웅의 출현 소설이라는 의의가 있다.

1209) 해룡을 염려하는 척 하는 번씨

1210) 운명론적 사고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